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AN EFFECTIVE STRATEGY FOR A WELL-BALANCED YOUNG ADULT MINISTR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ILSAN SEUNGLEE CHURCH

written by

KWANG SU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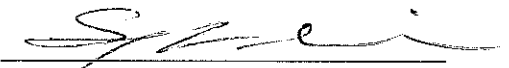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Hyung Kook Oh
Seungkeun John Choi
Jin Ki Hwang

February 25, 2015

**AN EFFECTIVE STRATEGY FOR A WELL-
BALANCED YOUNG ADULT MINISTR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ILSAN SEUNGLEE CHURCH**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KWANG SU PARK

FEBRUARY 2015

균형잡힌 청년부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 일산승리교회 청년부 중심으로 -

이 논문을 풀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오 형 국 교수

박 광 수

2015년 2월

Abstract

An Effective Strategy for a Well-Balanced Young Adult Ministr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Ilsan Seunglee Church

Kwang Su Park

Doctor of Ministry

2015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Although the Korean church experienced staggering growth in the 1970s and 1980s, since the 1990s it has not only been stagnant but also losing members. One reason is that young people are leaving the Korean church. In order for the church to have a future, it must revitalize its young adult ministry. The purpose of this ministry focus paper is to present a practical strategy for revitalizing young adult ministry in a local church.

This ministry focus paper consists of six chapters. Following the introductory chapter, chapter 2 defines and describes characteristics of young people. It then examines the current issues of the Korean church's young adult ministry and argues for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young adult ministry. Chapter 3 analyzes a survey of young people attending ten churches in the Ilsan area.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this chapter discusses the current state of young adult ministries in Korean churches and finds out what young people want from churches.

Chapter 4 introduces John Westerhoff's and C. Ellis Nelson's theories of the faith community. This chapter uses them to establish a theoretical basis for balanced-young adult ministry, which emphasizes five aspects of the faith community (worship, service, proclaiming the gospel, fellowship in community, and education), preparation of the church (providing space for young people, financial support, and full-time ministers), and areas in which ministers with young adults must be prepared (character, relationship, ability, and family).

Chapter 5 describes the history, background, and current state of the Ilsan Seunglee Church, especially focusing on its young adult ministry, after presenting the geographic, demographic, and cultural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the Ilsan area where the church is located. It then scrutinizes the Ilsan Seunglee Church's young adult ministry, which was built on the basis described in the previous chapter. The goal of Ilsan Seunglee Church's young adult ministry is growth in one's personal life, relationships with others, and ministry in the church. In order to accomplish that goal, the church's young adult ministry emphasizes personal devotion, prayer and worship, small group meetings, and proclamation of the gospel. Chapter 6 concludes this ministry focus paper by summarizing the study.

Theological Mentors: Hyung Kook Oh, Ph. D.

Seungkeun John Choi, Ph. D.

Jin Ki Hwang, Ph. D.

감사의 글

먼저 본 논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참 쉽지 않았던 오랜 시간을 청년들과 함께 달려왔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사역을 내려놓고 방황하던 시간에 풀러 목회학 박사과정은 저에게 또 다른 안식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을 주었습니다.

풀러신학교 목회학 박사 과정에서 보낸 시간들은 지난 목회와 사역들 앞으로의 사역들을 정리할수 있는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저에게 소중한 멘토로서 도움을 주신 교수님과 동력 자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부족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용기 주셔서 논문 준비에서 완성에 이르기까지 지도해주신 오형국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논문을 세밀히 읽어주시고 꼼꼼히 지도해주신 최승근 교수님, 부족한 종의 연약함으로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필요한 부분들을 조언해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항상 큰 도움을 베풀어 주신 김태석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을 보여주신 교수님들의 가르침 따라서 사역과 삶의 현장에서 온전한 순종의 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본 논문이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시간과 환경을 허락해주신 일산승리교회 진희근 목사님, 신당중앙교회 허재철 원로목사님, 꿈꾸는 교회 박종철 목사님, 장로회 신학대학교 박상진 교수님, 대구남산교회 지은생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늘 격려해주시고 배려해주신 사랑하는 동력자들 박수쳐주고 파이팅 해준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위를 위해 재정과 기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후원해주신 이종식 집사님과 이복남 권사님, 자녀를 위해 일평생 기도하시면서 후원해주신 박무일 장로님, 김복련 권사님 사랑하는 동생과 누나에게 진심으로 사랑하며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동력자이며 남편의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묵묵히 따라와 준 평생의 동력자요 사랑인 이현진과 사랑하는 아들 민이에게 기쁨과 영광을 바칩니다.

2015년 2월 박광수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동기와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4
제 2 장 청년에 대한 이해	6
제 1 절 청년기의 정의와 특징	6
1. 청년기의 정의	6
2. 청년기의 특징	7
가. 신체적 특성	8
나. 지적, 정신적 특성	9
다. 심리적 특성	10
라. 사회적 특성	11
마. 종교적 특성	12
제 2 절 교회 청년 이해와 중요성	13
1. 교회 청년 이해	13
가. 교회교육의 사각지대 놓여있는 청년	13
나. 청년지도자의 부재	14
다. 교세확장의 도구로 전락한 부정적인 시각	15
2. 교회 청년 목회의 중요성	16
가. 청년들은 교회 사역의 중심	16
나. 청년들은 복음에 개방적임	16
다. 청년들은 교회 성장의 통로	17
제 3 장 청년 사역을 위한 목회비전과 실제적 준비	19
제 1 절 청년 사역을 위한 목회비전	19

1. 청년 사역을 위한 목회비전	19
2. 청년사역을 위한 신앙공동체의 구성요소	20
가. 예배	20
나. 봉사와 섬김	21
다. 복음 전파	22
라. 공동체적 교제	22
마. 교육	23
제 2 절 균형잡힌 청년부 성장을 위한 실제적 지침	24
1. 청년부 성장을 위한 담임목사와 교회의 지침	25
가. 독립적인 사역 제공	25
나. 예배, 장소, 재정, 부서의 독립 제공	26
다. 청년중심의 전문사역자 배치	27
2. 청년부 성장을 위한 사역자의 지침	29
가. 성품의 준비	29
나. 관계의 준비	30
다. 사역능력의 준비	33
라. 가정의 준비	35
제 4 장 설문조사를 통한 청년사역의 실태와 문제점	38
제 1 절 조사방법 및 내용	38
1. 조사의 방법	38
2. 조사내용	39
제 2 절 실태조사의 내용 분석	39
1. 응답자에 대한 분석	40
2. 교회와 신앙생활	43
3. 청년부 활동	52
4. 청년들의 개인 문제와 교회관	56
제 3 절 설문조사를 통한 일산지역 청년부 활성화 방안내용	61

1. 청년부 집회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내용	61
2. 현재 청년부 활동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	62
3. 청년부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63
4. 청년부의 미래에 대한 생각	64
5. 바람직한 청년부 교역자(지도자)상	65
 제 5 장 청년 사역 활성화를 위한 목회 방안	67
제 1 절 일산 승리 교회 목회 현황	67
1. 일산 승리교회 소개	67
2. 일산 승리교회 청년부 소개	68
제 2 절 일산승리교회 청년부 활성화를 위한 목회 방안	69
1. 일산 승리 교회 청년부 조직(하우스 다이어그램)과 목회철학(비전)	69
가. 조직(하우스 다이어그램)소개	71
나. 청년부의 특성 및 목표	76
2. 청년대학부 활성화를 위한 목회 방안	76
가. 복음 선포와 이해	76
나. 개인 성경공부의 발전	81
다. 대그룹 사역의 발전	87
라. 소그룹 사역의 발전	96
마. 청년 전도의 발전	102
제 3 절 일산 승리 교회 청년 사역에 대한 평가	113
1. 긍정적인 평가	113
가. 청년대학부 수적 성장 면에서의 평가	113
나. 목회 선교적 평가	114
2. 개선방안	115
 제 6 장 결론	117
제 1 절 요약	117

제 2 절 제언	117
부록	120
참고문헌	130
Vita	133

표 목 차

<표 1> 일산지역 청년교회 설문조사 대상 교회	39
<표 2> 설문조사내용	40
<표 3> 응답자의 지역별 남녀 비율	41
<표 4> 응답자의 연령	41
<표 5> 응답자의 신급	42
<표 6> 청년들이 교회에 처음 나온 시기	43
<표 7> 신앙생활 총 연수	44
<표 8>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	45
<표 9> 성경통독횟수	46
<표 10> 신앙생활에서 가장 유익한 시간	47
<표 11> 청년들의 교회 봉사 여부	47
<표 12> 교회봉사의 내용	48
<표 13> 교회를 옮겼던 경험	49
<표 14> 교회를 옮긴 이유	50
<표 15> 선교단체에서 훈련 경험	51
<표 16> 청년부활동(혹은 예배) 참석여부	52
<표 17> 청년부 모임에 참석하는 동기와 목적	53
<표 18> 청년부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	54
<표 19> 청년부의 현재 상태	55
<표 20> 교회 내에서의 청년부의 위치와 비중	56
<표 21>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	57
<표 22> 인생, 신앙문제로 고민할 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사람	58
<표 23> 청년들이 생각하는 한국교회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들	60
<표 24> 청년부 집회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내용	61
<표 25> 청년부 활동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	62

<표 26> 청년부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63
<표 27> 청년부의 미래에 대한 생각	65
<표 28> 바람직한 청년부 교역자(지도자)상	66
<표 29> 하우스 다이어그램(young2080)	70
<표 30> 승리교회 청년부 하우스 다이어그램	71
<표 31> 일산승리교회 새 가족 교재 구성	80
<표 32> 오늘은 좋은날 불금 교육 프로그램	104
<표 33> 파이프 생명 운동의 구체적인 전도방법	110
<표 34> 오늘은 좋은날 토요일 행사 진행 프로그램	111
<표 35> 오늘은 좋은날 주일 예배 프로그램	112
<표 36> 승리교회 청년대학부 수적 변화 통계	113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동기와 목적

한국교회는 1970년대와 80년대에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로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했고 현재는 통계상으로 지속적인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에 발표된 통계에 의한 지난 10년간(1995-2005)의 기독교인구 정체가 증명하고 있다.¹⁾ 교회 성장의 둔화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청년사역의 둔화라고 할 수 있다.

교회마다 청년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교회에 잘 나오던 이들이 대학 또는 사회에 진출하면서 교회를 등지고 있는 현실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을 절대적이라고 보긴 힘들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 청년의 수가 중, 고등부의 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기독교는 본래 청년의 종교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신 것도 30세 전후의 청년의 때였다(눅 3:23) 또한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동년배의 청년들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원시 기독교 공동체에서 사도로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던 바울도 청년의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며, 성 어거스틴이 기독교로 회심한

1) 임종학, 청년목자 청년사역매뉴얼 (서울: 기독교대학인회 출판부(ESP), 2014), 23, 1995년과 2005년에 실시한 인구총주택조사 종교부분에서 10년간 전체 기독교 인구는 14만 3898명이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20-34세의 젊은 세대의 감소추이가 두드러졌다. 1995년에 기독교인은 10-14세가 86만 6373명, 15-19세가 84만 1780명, 20-24세가 91만 5230명이었다. 이들은 10년이 지난 2005년에 는 20-24세가 68만 4430명, 25-29세가 62만 6381명, 30-34세가 71만 4953명으로 59만 7619명이 급감하였다. 60만 대군의 젊은이들이 10년 사이에 기독교에서 이탈한 것이다. 현재 20대 중반에서 30대에 해당하는 이들의 현 주소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 여진이 교회에 여전히 남아있다.

때도 32세의 청년 때였다. 그리고 34살의 나이에 비텐베르크 교회 벽에 95개조의 성명서를 내걸고 거대한 로마 가톨릭의 부패와 종교를 대항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27세의 나이에 불후의 신학적인 명작인 기독교 강요 첫 판을 저술한 요한 칼빈, 그리고 젊은 대학시절에 학생선교운동을 하다가 32살의 나이에 미국으로 선교를 위해 떠났던 요한 웨슬레, 이들은 모두 30대 안팎의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을 받았던 것이다.²⁾ 그뿐만이 아니라 12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온 대부분의 선교사들도 청년이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은 이들 모두 이미 일찍부터 복음에 대해서 들어왔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다름이 아닌 젊은 청년들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교회의 장년 성도의 수와 청년의 수를 비교해 볼 때 그 심각성을 알 수가 있다. 사실 청년부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특히 중소형 교회에서는 대학, 청년부의 정체 또는 붕괴현상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2006년 이군식의 조사에 의하면, 서울시내 강남구와 용산구, 강서구의 장년 천명 이상 모이는 교회에서의 청년집회 평균 출석 인원은 장년대비 불과 25명-30명으로 평균 2.8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³⁾ 또한 본 연구자가 2012년 일산 지역 장년 천명 이상 모이는 교회 10개 교회 청년 집회 평균 출석 인원을 조사한 결과 5.1퍼센트에 지나지 않았다.⁴⁾

이러한 교회에서의 청년층 이탈현상에 대해 일부 인사들은 이제 한국교회도 유럽교회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면서 위기론을 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일부 청년층들의 교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바탕으로,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다”거나 “한국 교회는 이미 교회의 본래적 기능을 상실했고 더 이상 아무 대안도 찾아 볼 수 없다”고 혹평하기도 한다.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미래는 분명 청년들에게 달려 있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청년부의 활성화는 한국 교회의 미래의 대안일 뿐만 아니라 복음화에도 연관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청년들의 양, 질적

2) 김지철, “청년에게 비전을 주는 목회,” 목회와 신학, 1999년 2월호, 116.

3) 손원영, “청년 대학부의 활로를 모색한다,” 기독교사상, 2006년 10월호, 37-38.

4) 박광수, 일산지역 청년 100명 이상 출석 교회 조사 (2012).

5) 박철, “동맥경화증 일보 직전의 교회,” 복음과 상황, 1995년, 52.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에서 청년들의 성장이 쉽지만은 않다. 과거에 열심히 교회를 나왔던 청년들 가운데 일부는 교회를 가끔 나오거나 오래 동안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교회를 나온다 하여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경우도 많다. 이같은 현상이 계속 된다면 앞으로 한국 교회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만은 않을 것이다. 만약 교회에서 청년이 사라진다면 한국교회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청년부가 몰락하면 한국교회도 희망이 없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을 살리는 일, 청년부를 활성화 시키는 일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이다. 청년부를 통해 한국교회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청년부가 위축되고 있는 일반적인 여건에서도 일부 교회들에서는 오히려 청년부가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극단적인 현상의 이유는 무엇이며, 교회 청년부들이 맞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냉철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각한 청년 이탈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균형 잡히고 건강한 청년부가 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찾고자 한다.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청년들에 대한 교회의 무관심과 이해의 부족이다. 교회청년들은 주일학교와 장년위주의 교회교육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청년을 교육의 주체, 선교의 주체로 보고 투자하고 기다려 주기 보다는 소비로서만 생각하면서 무관심 했던 것이다. 주일이 되면 각 기관과 예배에서 봉사만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다가 보니까 뚜렷한 위치나 정체성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던 청년들이 마침내 교회 바깥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둘째로, 교회답지 못한 교회의 모습에 대한 청년들의 실망 때문이다. 수적인 성장만 추구하여 물량주의, 기복주의, 독선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배타주의, 이웃과 세상,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의 결여,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못하는 기성세대들을 보면서 청년들은 실망감과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교회의 십자가 침탑은 점점 높아가고, 교회는 화려한 전당에서 호
못한 미소를 짓고, 성가대의 찬양을 즐기고, 개인 구원에만 치중한

설교에 도취되기도 하고...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여겨 감사기도를 드리는 동안에 젊은이들은 교회를 등졌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냉소하고 탄식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⁶⁾

셋째로,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 약화되고 바르게 전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핵심진리, 복음의 능력, 바른 영성의 실체 등을 젊은이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지 못한 채, 주일성수, 헌금과 봉사 생활 등 제도적 교회생활만 강조하는 형식적 외식적 영성만 강조하다가 보니 청년들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고 본다.

넷째로, 예배의 경건성 상실과 공동체적 삶에 대한 실망 때문이다. 청년들은 경직되고 습관적이면 형식적인 예배의 틀을 벗어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고 다이나믹한, 그러면서도 경박스럽지 않은 예배,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교제와 기쁨이 충만한 예배, 쉽고 단순하면서도 메시지가 분명하고 재미있는 설교를 선호한다.⁷⁾

이런 청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다시 한 번 청년사역의 꽃을 피울 수가 있다.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젊은이들을 포기할 수 없다. 청년들이야 말고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의 희망이며 미래이다. 따라서 ‘청년이 없는 교회는 희망도 없다’고 믿고 청년들을 살리는데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20년 이상 청년부와 함께 호흡하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경험자로서 본 논문을 통하여 청년사역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청년부가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방안들을 본 연구자가 사역하였던 일산승리교회 청년부를 중심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주로 문헌 연구 방법과 현장에서 이루어진 사역들을 바탕으로 연구되어졌다. 국내·외의 다양한 서적과 논문, 인터넷에 관련 자료를 참고하였고, 본 연구자가 1992년 올네이션 경배와 찬양(현 ANM)⁸⁾ 훈련을 시작으로 20년 이상을 청년들과

6) 박철, “동맥경화증 일보 직전의 교회,” 53-54.

7) 김명용, “교회 갱신이 시급하다,” 복음과 상황, 1995년 11월호, 76.

함께 한 현장에서 이루어진 사역들, 특히 일산 승리교회의 청년부 담당목사로 섬긴 3년간의 사역 경험으로 얻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은 총 여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서론에 이어, 2장은 청년에 대한 이해를 살펴 볼 것이다. 청년기의 정의와 특징, 청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특성, 교회청년이해와 중요성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3장에서는 존 웨스터호프의 신앙공동체 이론과 엘리스 넬슨의 신앙공동체 이론을 바탕으로 청년부 사역의 이론과 원리를 살펴보고 균형잡힌 청년부 성장을 위한 실제적인 준비 특히 담임목사와 교회의 준비, 사역자의 준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청년부가 균형 잡히게 성장할 수 있는 토양과 환경을 제공하여 청년부가 균형 잡힌 성장을 꾀할 것이다.

4장에서는 경기 일산지역 청년교회 10개를 설문조사한 결과물로 청년사역의 실태와 문제점들을 나누게 될 것이다.

5장에서는 4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균형잡힌 청년대학부 성장 방안 들을 일산 승리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6장 결론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고 균형잡힌 청년부의 부흥을 위한 제언을 함으로 본 연구를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8) 올네이션스 경배와 찬양(ANM: All Nations Worship & Praise Ministries)은 포스트모더니즘과 상대주의, 다원주의, 뉴에이지의 사회 속에서, 교회의 예배회복과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1987년 하스데반 선교사님에 의해 설립된 단체이다.

제 2 장

청년에 대한 이해

본 장에서는 균형잡힌 청년부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청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것이다. 먼저, 청년기의 정의와 특징을 알아본 후, 오늘날의 교회 청년들의 이해와 중요성을 살펴봄으로 청년 사역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구할 것이다.

제 1 절 청년기의 정의와 특징

본 절에서는 청년기의 정의와 다섯 가지의 청년기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청년기의 정의

청년기(Adolescence)라는 말은 라틴어 'adolescere'에서 유래한 말로 '성장하다', '성장하여 성숙에 이르다'라는 말로 이것은 인간의 일생 동안에 있어서 특히 신체적 성적 성숙이 성립하여 완전한 인간이 되는 기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 할 수 있으며, 단순히 신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행동면의 성숙화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⁹⁾ 그러므로 인간 발달적 변화 가운데 사춘기로부터 청년기에 이르는 시기는 양적 질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다.

시기적으로 청년이라고 일컫는 시기는 청소년과 성인 사이의 젊은이들을 말한다. 한국어 대사전을 보면, '2-30세 안팎의 젊은 사람 소년과 장년사이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발달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Erik H. Erikson)은 인생 주기 8단계이론에서 6단계인 성인 초기 19-30세 청년시기로 보고 있다.¹⁰⁾ 청년이라 함은 만 18세 고등

9) 장병림, *청년심리학* (서울: 법문사, 1969), 65.

학교 졸업부터 결혼하지 않은 30세 전후의 연령에 속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의 청년부는 만 18세 고등학교 졸업부터 결혼하지 않은 30세 전후의 연령에 속하는 청년들을 일컬어 대상 연구하고자 한다.

2. 청년기의 특징

청년기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 한다면 ‘어린 아이에서 어른으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의 급격한 변화의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불안과 어려움이 뒤따른다. 또한 청년은 아동도 성인도 아니므로 이 시기를 중간기 또는 과도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처럼 청년기는 중간적이며 영향을 받는 요인이 많고 이러한 요인과 함께 변화의 양상들이 폭 넓게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는 신체적, 생리적인 것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종교적인 면에서 그 특징들을 살펴 볼 수 있다. 다양한 변화의 양상을 보이는 이 시기에 경험 되어지는 것들은 전인적인 인격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¹¹⁾

청년기는 신체적으로는 다 자란 성인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청년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으며, 지적인 면에는 더욱더 활발한 욕구를 원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청년기는 정체성의 위기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 위기는 시간 감각의 위기이며, 자기 의식 과잉으로 인한 위기, 자기 의혹의 위기, 허무감에 의한 위기, what에 대한 위기, 권위와 종속에 대한 위기, 신조의 위기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¹²⁾ 그들은 시대적인 특성을 가지며, 추상적인 생각과 논리를 중요시하고 자기를 표준으로 하고 상당히 비판적인 시기라고 할 수가 있다.

청년기라는 시기는 중간기이며, 변수의 요인이 가장 많은 시기라고 볼 수가 있으며, 행동과 변화와 성장이 계속 반복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¹³⁾ 종교적인 특성으로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무엇을 믿는가? 하는 질문 속에서 인격이 형성이 되기도 한다.

10) Charles G. Morris, *심리학입문*, 장동환, 김영채, 손정락 역 (서울: 박영사, 1987), 488-491.

11) 정인석, *현대청년발달심리학* (서울: 재동문화사, 1984), 41.

12) 김정옥, *청년대학부 20-20 비전으로 재건하라* (서울: 기독교신문사, 1999), 43-46.

13) Gary Schwarz, *청년기와 청년문화* (서울: 현암사, 1975), 131.

신앙에서는 이유가 분명해야 하고 또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것을 원한다. 이러한 청년들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 대해 정리된 5 가지의 특징을 살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가. 신체적 특징

신체적으로는 청년들은 완전한 체력과 지력의 발달로 운동을 좋아하고 지적인 관심이 높다. 이때부터 정상적인 신체적인 원숙기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¹⁴⁾ 청년기에는 신장, 체중, 골격, 생식기관의 발달, 호르몬의 변화 등 성장급등이 두드러진다. 청년기가 되면 신장, 체중, 간, 생식기관, 두뇌, 눈, 귀 등이 성장률 100퍼센트에 이르는 등 최고 수준에 성숙에 도달한다. 또한 시각, 청각, 감각도 최고로 민감해 진다.¹⁵⁾ 그러므로 이러한 시기에 청년들은 신체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들을 어른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인정을 받기 위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행동을 할 때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 이런 신체적 요소의 발달로 점차 연령의 분포가 내려감을 볼 수가 있다.

인간이 가장 많은 신체적 변화를 겪는 시기는 태어나서 청년에 이르기까지의 시기일 것이다. 태어나서 유아기와 청소년기를 지내면서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성장을 겪게 되고 청년기에 와서 가장 건강하고 성숙하며 혈기 왕성한 신체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청년기의 신체적 특성은 체력이 왕성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체적 특성에 대해 몇 가지 고려 할 점이 있다.¹⁶⁾

첫째는 급격한 신체적인 변화와 더불어 어떤 육체적인 불완전으로 인해 자아의식이 강하다. 특히 자기의 코나 몸매 생김새 몸무게 등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이러한 강한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다. 둘째는 체력이 왕성하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를 과신하여 육체적으로 너무 무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대부분의 어른들이 청년들은 신체적으로는 다 성장했지만 생활의 다른 면에서는 아직도 미성숙하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청년들 스스로는 신체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성숙한 어른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체적으로 급격히 성장

14) M. E Soderholm, *학생을 이해하려면*, 양은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89.

15) 손병덕 외 5인,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학지사, 2008), 160.

16) Soderholm, *학생을 이해하려면*, 89-92

한 청년의 시기는 체력이 왕성한 시기이지만 육체적으로 아직은 불완전한데 자신의 육체를 무리하는 경향이 있는 등 아직은 미숙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나. 지적, 정신적 특성

심리학자 코울(Luella Core)은 청년의 정신적인 성숙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¹⁷⁾ 첫째, 정신적인 표현이 유해한 형식으로부터 무해한 형식으로 변화한다. 둘째, 정신적인 장면에서 객관적으로 반응한다. 셋째, 감정을 상하는 일이 없이 비판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넷째, 불 유해한 일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거기에 직면할 수가 있다. 다섯째, 어린이다운 광기나 불안을 제어할 수가 있다.

에릭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 이론에서는 인생 주기를 8단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청년의 정서적인 면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청년의 시기인 5단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청년 시기의 지적, 정서적 특성은 에릭슨의 이론에 의하면, “정체감 대 역할혼미” 혹은 “정체감의 혼란”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청년기에는 신체적인 변화와 함께 지적으로도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되는데 특별히 언어능력, 수리능력, 공간능력에서 특별히 성숙하며 창의적인 사고는 절정에 달한다. 청년기에 있어서 개념적 사고의 발달은 추상적 논리적 발달과 더불어 이 시기의 지적 발달을 특징짓고 있다.¹⁸⁾ 과학적 이론에 흥미를 갖게 되고, 철학적 의문을 갖고 자아를 탐구하고 사회나 정치 문제를 비판적으로 본다. 반면에 대부분의 청년은 경험적, 실증적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문제를 단순화시키기 쉬우며 극단적인 관점에 빠질 정도로 사고의 유연성을 잃기 쉽다. 이러한 지적특성은 기독교교리와 신앙을 갖게 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청년기의 정서적 특징은 첫째로 청년 때의 감정은 극단에서 극단으로 심하게 동요되며 아주 상반된 대립적인 감정이 번갈아 나타나는 수가 많고 또한 정서가 솔직히 표현되지 않고 억압되거나 왜곡되는 수가 많다.¹⁹⁾ 둘째로 때로는 도전적이고 적극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자기의 이상과 현실사이의 괴리현상으로 불안, 고독, 열등감, 공허감 등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셋째로 청년은 인간, 자연, 문화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하

17) 정인석, 신 *청년심리학* (서울: 대광사, 2008), 49-50.

18) W. C. Crain, *발달의 이론*, 서봉연 역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6), 153-157.

19) 정인석, 신 *청년심리학*, 91-92.

여 동경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청년이 품고 있는 이상은 모순이 되는 수가 많다.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타락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기 쉽다.²⁰⁾ 이와 같이 청년기는 지적으로 많은 발달을 가져 오게 되고, 정서적으로 정체감을 형성하지만 많은 혼란을 겪는 시기가 된다.

이러한 지적, 정신적인 성장은 학습이나 경험에 의해서 더 큰 발전을 가지고 오게 된다. 이러한 것들이 발달이 되어서 논리적인 사고태도가 두드러져 보인다. 그리하여 논리를 중요시 여기고 구체적인 실천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감정에 사로잡혀 주관적 논리의 형태를 취한다. 또한 자아의식이 높아지면서 정신적인 독립을 찾고자 갈구하며, 간섭이나 구속을 싫어하고 자기의 의사를 관철하려고 하여 반항적으로 되기도 하는 시기이다.²¹⁾

청년기는 정서도 급격히 발달하는 시기로 감수성이 예민하고 정서의 체험도 강렬하여 극단에서 극단으로 흐르고, 불안과 분노, 정의감 등이 강해진다. 그러므로 이 시기는 청년들의 남아 있는 정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나머지의 청년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정신적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다. 심리적 특성

청년들은 신체적인 변화와 사고 체계의 변화, 그 밖의 다양한 이유로 인해 정서적인 불안정을 경험하는 시기이다.²²⁾ 이 시기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감정의 기복이 커서 성인처럼 행동하다가도 아이처럼 행동하는 비 일관된 모습을 보인다. 청년의 시기는 기본으로 성인의 지원이 필요하나 심리적으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청년들은 다른 사람의 충고나 가치의 차이로 갈등을 빚기도 하고 이성세대에 반항하기도 한다.²³⁾ 만약 이 시기에 자아정체감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역할혼동을 가져와 무기력감과 혼란, 소외감 속에서 부모와 동료의 기대와는 전혀 반대의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 입시의 지나친 심리적 압박으로 중고등학교시절에 확립되어야 할 자아정체감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성취되는 것이 보통이

20) 이춘재 외, *청년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88), 92-93.

21) Ibid., 94

22) 허혜경, 김혜수, *청년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7), 20.

23) Ibid., 21

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경우, 청년들이 이 단계를 신앙적으로 거쳐 사회로부터의 새로운 역할 요구에 대하여 신앙적으로 반응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²⁴⁾

에릭슨은 6단계인 성인초기를 친밀감 대 소외의 단계로 보았다. 이시기에 직장생활과 결혼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발달시켜야 하는 친밀감은 그 이전단계에서 정체감이 확립되어야 가능하다. 에릭슨은 친밀감 형성에서 사랑이 발생되며 사랑이란 자신을 타인과 관련짓고 그 관계를 지키는 능력이라고 주장한다. 이 단계의 위험은 고립인데, 이는 친밀감과 관련된 접촉을 회피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일어나는 남녀관계, 동료관계에서 친화성이 너무 발달하면 엘리트주의에 빠지게 되는데 이것은 사춘기의 또래집단과는 성격이 다른 배타적인 경향성을 지닌 일종의 클럽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²⁵⁾ 그러므로 이 단계에 있는 청년들을 또래집단 외에 가족과 사회 집단 등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사람과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관계의 폭을 넓히기도 하고 깊게 나눌 수 있도록 소그룹 등을 통해 연결해주어야 한다.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외되지 않고 깊은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청년사역과 소그룹 사역 등을 통해 도와야 한다.

라. 사회적 특성

정신적 독립에 수반하여 어른에 의존하던 것이 친구나 사회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사회적인 발달을 하게 된다. 그래서 교우가 다양해지고 친구가 생기게 된다. 이성 친구들도 몇 단계의 과정을 걸쳐 생기게 되고,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며 조금 더 발전을 하여 연애까지 이르게 된다. 집단도 활동의 집단에서 사상이나 흥미의 결합집단으로 분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회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게 되며, 직업에 대한 관심이나 행동이 눈에 띄게 되는 시기이다.

청년의 시기는 가정이라는 보호 속에 있던 개인이 사회로 나아오는 과정을 겪는 시기이다. 이 사회화의 과정은 간접적으로만 경험하던 기존의 사회의 이념이나 가치, 관습과 규율에 대한 수용을 적극적으로 요구한다. 캠벨(E. Q Campbell)은 청년기에서

24) 허혜경, 김혜수, *청년발달심리학*, 22

25) 박상진, *교회교육 현장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8), 148.

볼 수 있는 특유한 사회화를 낳아 주는 기초로서 자기를 자각하는 의식적 노력, 자신의 사회화에 대한 반작용, 장래의 동일성에 대한 추구, 이미 이루어진 사회화에 대한 학습해소의 요구, 선택의 실현, 개인적 동일성의 발견, 급속한 사회적 성장에 의한 변화, 각종 가치와 현실과의 직면 이상 여덟 가지를 열거하고 있다.²⁶⁾

이러한 사회화와 문화화의 과정에서 청년은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청년은 자기가 속해 있는 여러 사회 속에서 갈등을 경험한다. 각각 속해 있는 집단과 사회는 다른 방식의 역할 기대를 갖고 있고, 이것이 서로 상충함으로 역할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청년들은 사회 개조와 사회 변혁의 사명도 지니고 있다. 기존의 사회에 사회화되어 그 사회에 적응하는 것만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를 새롭게 개혁하고 갱신 시켜 더 가치 있고 더 나은 사회로 변화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²⁷⁾ 또한 청년기에 들어오면서 자아의식이 높아지고 스스로의 힘과 판단 그리고 책임 하에 행동하려고 하는 독립적 요구가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청년의 사회성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마. 종교적 특성

청년기의 종교적 특성은 그들의 지적, 정서적, 심리적 특성과 많은 관련이 있다. 청년기의 종교적 특성을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²⁸⁾ 첫째로 청년 초기에는 그들의 사고능력의 성숙으로 대부분의 신학적 개념들을 이해 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의 느낌, 생각, 관점, 기대에 민감해지며, 이것이 자신의 신앙이나 도덕, 정체성 형성의 기초가 된다. 그러나 아직 신앙에 대해서는 깊은 인식이나 반성 없이 수용한다. 그러기에 이 시기의 신앙을 동조의 신앙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로 청년 중반에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 깊은 반성이 일어나며, 자주적인 신앙을 가지려는 노력이 나타난다. 자신의 헌신, 삶의 스타일, 신념, 태도에 대한 책임을 심각히 결정하고, 감당해야 하기에 대부분의 경우 깊은 갈등과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속한 집단이 경직 되어 있을 때에는 자주적인 신앙을 갖기가 힘들다. 많은 청년들이 신앙에 대해 깊은 회의를 갖

26) 정인석, *신 청년심리학*, 178-179.

27) 박상진, *교회교육 현장론*, 151-152.

28) 박원호, *신앙 발달과 기독교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8), 70-73.

거나 교회를 떠나게 되고 아니면 다른 신앙의 집단에 참여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 받기도 한다. 이 시기에는 이분법적 사고가 주류를 이루며, 삶에 있어서의 여러 역설과 극단적인 대립을 경험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개인과 공동체, 특별과 보편, 상대와 절대자아, 성취와 타인에 대한 봉사, 감정과 생각, 주관과 객관 등이다. 셋째로 청년 후반에는 자신의 신앙적 입장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가지면서도 인정과 포용을 가지고 대화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 관심의 폭이 넓어지며, 삶의 좌절과 부정적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 자신이 속한 집단에 제한 받지 않고 헌신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세 가지의 종교적인 특성이 반드시 그 연령층의 청년들에게서 일치되어 나타난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위의 세 가지의 경우가 서로 혼합된 형태의 신앙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청년들은 때로는 소극적이고 냉담한 형태, 때로는 적극적인 형태, 때로는 중간적인 형태의 신앙 특성을 가진다.

제 2 절 교회청년 이해와 중요성

청년들은 교회의 미래에 있어서 지도자이며, 아동부 및 중고등부에서 중요한 교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교회의 선교 및 봉사의 사명을 주도적으로 담당해야 할 연령층으로 계속교육 및 계속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러한 청년들에 대한 교회의 이해와 교회청년 목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본 절에서 다루고자 한다.

1. 교회 청년의 이해

가. 교회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년

청년은 교구에 속하여 활동할 수 있는 성인연령은 못되고, 그러면서도 아동이나 중고등 학생과는 달라서 교사들을 통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교육적인 지도도 받지 못하는 교회교육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다. 일반적으로 교회교육에 있어서 교회학교 교육은 아동교육, 또는 중고등 교육까지 만을 의미하고 청년부는 제외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지배적이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학교 구조 안에 속해 있으면서도 제일 교육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는 부서가 청년부 일 것이다.²⁹⁾ 그러나 청년부는 아동 및 중

고등부와 성인부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해 주는 과도기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중요한 부서이며 교육적인 관심도 더 많아야 한다. 아동부와 중고등부가 아무리 활성화되어도 이 교량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서는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한다.

청년들은 교회학교 교사 및 찬양대로 교회의 많은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교사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얻는 것인지, 제자로서 어떻게 성장하는 것인지 등 제자도의 기초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회의 현실은 청년들이 진리를 알고 향유하기에 앞서서 과도한 봉사에 지치도록 이끌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나치게 많은 일에 지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 교회에 대해 적대적이 되며 회의적인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된다.³⁰⁾ 그러기에 교회는 청년들을 기능적인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교육목회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나. 청년사역자의 부재

청년부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 한 교역자가 사역을 할때에 부흥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최소한 청년들의 전반적인 삶의 영역을 제대로 파악하고, 서로 신뢰하고 자신의 사람을 맡길 수 있는 관계성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많은 청년사역자들은 이와 같은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최소 3년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자가 지금까지 사역한 교회를 보더라도 3년이상 사역한 교회는 어느 정도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본 연구자가 생각해도 청년사역자라는 말을 꺼내기도 부끄럽고 무의미한 상황이다. 3년을 기껏 넘은 교회가 2군데였지만 여러 부서를 맡고 있어서 청년사역에 집중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을 사역한 교회에서는 청년부의 비약적인 부흥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교회가 경제논리에 밀려 재정 탓만 하고 청년들을 위한 믿음의 투자를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 청년부 지도 교역자는 교구를 담당하면서 동시에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사, 또는 아동부나 중고등부를 담당하면서 청년부를 담당하는 교육전

29) 이용남, *장석교회 교역자 연구논문집* (서울: 그린파스츄어, 2002), 214

30) 오형국 외 13인, *성장하는 14교회 청년대학부 부흥 전략* (서울: 기독 신문사, 1999), 35-36

도사의 경우가 많다. 청년부만을 전담하는 전임사역자가 없다는 말이다. 전임사역자가 아닌 경우, 보통은 청년들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가진 강한 리더십을 보이기보다는 교회교육 구조 안에서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할 부서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용남은 그의 책, *장석교회 교역자 연구논문집*에서 “교회 안에 청년사역 전문가를 키우거나 확보하지 않고는 청년부는 표류하거나 잠깐 피었다가 시드는 르네상스 현상(조로)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³¹⁾라고 말한다.

다. 교세확장의 도구로 전락한 부정적인 시각

장년층에 비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비판적이고 배타적인 청년들에 대한 교회의 지도자들의 시각은 결코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많은 경우 교회의 지도자들이 청년부를 두자니 골치 아프고 안 두자니 봉사할 사람들이 없어지겠고 하는 식의 ‘뜨거운 감자’ 혹은 ‘미운 오리새끼’ 마냥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청년들에 대한 왜곡된 시각들은 다음과 같다.³²⁾

첫째는, 청년부가 강하면 골치 아프다. 둘째는, 청년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나 하면 된다. 셋째는, 청년들에게 신경 쓰느니 현금 잘하는 장년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빠르고 낫다. 한마디로 말하면 청년사역이 교회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청년들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전환이 요청된다. 한국교회가 교회의 허리부분이라 할 수 있는 청년들을 향후 10-20년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교회의 성장여부가 달라질 것이다. 한국교회가 청년들의 관심과 헌신을 유도할 수 있으면 한국교회의 질적, 양적 위기론은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청년들로 하여금 등진 교회를 향해 다시 돌아오게 하고 저들을 잘 품고 미래의 지도력으로 준비시키는 일에 성공한다면 한국교회의 역할은 새롭게 조명을 받을 것이다.

31) 이용남, *장석교회 교역자 연구논문집*, 214

32) 청년대학부 성장학 세미나, *청년대학부를 알면 목회가 보인다* (서울: 사랑의 교회 젊은이 선교 주관 세미나 중, 2008)

2. 교회 청년 목회의 중요성

본 연구자는 앞에서 교회에서 청년들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 중 하나가 청년사역이 교회 성장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청년목회는 교회성장에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홍정길은 “한국의 새로운 시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미 자라서 생각이 굳어있는 사람을 움직이기 보다는 자라나는 세대를 하나님 말씀으로 키워야 청년이 바르게 자라면 한국은 소망이 있다”³³⁾고 청년을 키우는 일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교회 청년 목회가 중요한지를 3가지로 나누고자 한다.

가. 청년들은 교회 사역의 중심

일반적으로 청년들이 일꾼으로 교회에 봉사하기까지 성장 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인 오해이다. 잘 훈련된 대학생은 3-4년의 교육을 통하여 구역장을 할 수 있을 수준까지 이르게 된다. 5-6년이 지나면 십일조 교인이 되고 조금만 지나면 결혼하여 아내와 아이까지 갖게 된다. 그러나 장년부의 경우에는 초신자를 전도하여 주일 성수하고 십일조 교인까지 되려면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실제로 정제된 교회에서 성인 한 사람을 전도하여 일꾼으로 세우는 것은 쉽지 않다.³⁴⁾ 오히려 청년들을 전도하여 양육하면 오래지 않아 일꾼이 되고 교회에 활력을 준다. 청년목회는 교회 일꾼 양성의 지름길이며, 10년 후 교회 성장의 보증수표이다. 당장의 필요를 위해서 소모적 헌신을 강요하기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청년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면 반드시 일꾼이 된다. 한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바로, 청년목회를 시작하는 것이야 말로 시간을 아끼는 것이다. 지금은 청년목회를 통해서 일꾼을 양성해야 할 때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10년-20년 뒤의 교회를 살리게 되며, 미래 목회의 장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나. 청년들은 복음에 개방적임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익숙해진 장년들은 변화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청년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으며, 변화에 대해 수용적이다. 그래서 그들의

33) 홍정길, *청년대학부를 살려라*, (서울: 두란노, 2000), 25.

34) 임종학, *청년목자 청년사역 매뉴얼* (서울: 기독교대학인회 출판부(ESP), 2014), 33-34.

언어로 복음이 선포될 때 호기심을 갖고 다가온다. 장년들은 복음을 받아 드리려는 마음이 있을 때에도 직장, 친척, 가정, 친구 등 기존의 대인 관계의 압력과 타성으로 인해서 결단하기를 힘들어 한다. 그러나 청년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좋다고 느껴지는 일에는 남의 눈을 신경 쓰지 않고 소신 있게 때로는 무모할 정도로 뛰어드는 경향이 있다.³⁵⁾

그래서 장년보다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수월하며, 복음에 대한 반응과 결단 또한 더 수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청년사역자들은 요즘 청년들이 개인주의 문화에 젖어 있으며 진로준비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라고 말한다. 하지만 바꿔 생각해보면 개인주의 문화로 인한 외로움, 진로의 막막함으로 인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오늘날의 청년들은 과거 어느 청년 세대보다도 마음이 훨씬 더 가난해져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청년들을 전도하기가 적절한 때라고 할 수 있다.

다. 청년들은 교회 성장의 통로

청년부의 성장은 자연히 장년부의 성장으로 이어진다. 특히 청년이 결혼하여 배우자와 함께 오게 되면 두 배 성장이 일어난 셈이다. 청년들은 결혼할 때 자신들을 잘 이해해주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 자신들에게 의미와 비전을 줄 수 있는 교회를 함께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교회가 청년들에게 관심을 갖고 집중하게 되면 결혼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장년부로 올라가게 된다. 또한 결혼한 청년들이 자녀를 낳으면 교회학교가 자연스럽게 성장한다. 만약 청년들의 양가 부모들마저 출석하게 된다면 호박이 넝쿨 째 굴러오는 셈이다. 예전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 교회에 갔지만 요즘은 부모들이 자녀가 좋아하는 곳으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청년 사역이 활성화 될 때, 그것은 건강하고 자연스럽게 교회를 성장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다.³⁶⁾

오늘의 한국교회는 청년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요청된다. 한국교회가 교회의 허리부분이라 할 수 있는 청년들을 향후 10-20년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교회의 성장여부가 달라질 것이다. 한국교회가 청년들의 관심과 헌신을 유도할 수 있으면 한국교회의 질적, 양적 위기론은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리고 한국교회

35) 최영걸, “청년이 살아야 미래가 삽니다.” 교육목회, 2014년 가을호, 109.

36) Ibid., 109-110

가 청년들로 하여금 등진 교회를 통해 다시 돌아오게 하고 저들을 잘 품고 미래의 지도력으로 준비시키는 일에 성공한다면 한국교회의 역할은 새롭게 조명을 받을 것이다.³⁷⁾

37) 제 19회 젊은이를 깨운다, 청년대학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목회자 컨설팅 세미나 중, 2011.

제 3 장

청년 사역을 위한 목회적 비전과 실제적 준비

본 장에서는 청년 사역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목회 비전을 살펴볼 것이다. 이 목회 비전은 웨스턴호프와 엘리슨 넬슨의 신앙공동체 이론을 토대로 하였다. 또한 본 장에서는 청년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제적인 준비로서, 담임목사와 교회의 준비 및 청년 사역자 본인의 준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제 1 절 청년사역을 위한 목회 비전

본 절에서는 웨스턴호프와 넬슨의 신앙공동체 이론을 토대로 한 청년사역을 위한 목회 비전과 함께 청년사역을 위한 신앙공동체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려고 한다.

1. 청년 사역을 위한 목회비전

웨스턴호프와 넬슨의 신앙공동체 이론은 학교체제의 교수형 교육 속에 갇혀서 이원화된 구조를 예배와 교육, 목회와 교육의 분리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본 연구자가 이 이론을 바탕으로 큐티와 설교와 소그룹을 하나로 묶어서 사역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다. 두 번째로 신앙공동체 이론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개인의 수직적인 개인적인 신앙에만 머물렀던 신앙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신앙공동체 형성을 이루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의 삶의 사건과 상황 속에서 나눌 수 있도록 해주었다. 특히 봉사와 선교 부분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다. 세 번째로는 일방적인 교육과 예배에 익숙해져 있는 청년들에게 소그룹 공동체를 통하여 삶의 경험과 문제들을 나누는 법들을 배우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신앙공동체 이론은 담당 교역자가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의 교육을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데서 벗어나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

들이 그 책임과 권한을 함께 갖도록 촉구하고 있다. 특히 청년공동체 안에서 교사와 간사 임원 리더들과 함께 신앙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상호 교류를 배우게 되었다.³⁸⁾

웨스트 호프와 엘리슨 넬슨의 신앙공동체 이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의 청년사역의 목회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청년을 변화시키며 말씀으로 변화된 청년들이 새로운 변혁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하고 건강한 청년 공동체를 세우는 말씀목회이다. 승리교회 청년부는 말씀 목회를 목회철학으로 정하여 하우스 다이어그램을 통하여 3가지 성장을 핵심으로 삼았다. 개인적 성장으로는 매일 큐티와 예배일기와 성경읽기를 하고, 관계적 성장으로는 큐티와 연결된 주일 설교와 큐티와 설교를 중심으로 한 GQS를 통하여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고, 사역적 성장으로 말씀으로 변화된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과 가장 멀어지기 쉬운 20대 30대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

2. 청년사역을 위한 신앙공동체의 구성요소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받들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세상으로 보냄 받은 제자 공동체³⁹⁾이다. 이러한 교회는 다섯 가지의 목회적, 교육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이며 세상으로 보냄 받은 제자 공동체의 한 지체인 청년부의 교육 목회 내용 역시 교회의 다섯 가지 사명과 관련하여 설정해야 한다.

가. 예배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의를 말한다. 다음에 언급되는 기독교 예배의 본질은 타종교와 구별되는 기독교 예배의 독특성을 말해준다.⁴⁰⁾

첫째,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예배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배를 드

38) John H. Westerhoff III,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Harrisburg, PA: Morehouse Pub: 2000), C. E. Nelson, *Where Faith begins*, 신앙교육의 터전, 박원호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참조

39) 김명용, *열린 신학 바른 교회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13.

40) 학원 복음화 협의회, *청년 대학부 세우기 전략세미나* (서울: 학원복음화 협의회, 1998), 22.

리는 인간의 만남의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배 안에서 계시하시고, 예배자가 믿음으로 그 분 앞에 나아가고, 성령의 역사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둘째, 예배란 하나님께 대한 응답이다. 예배자는 하나님께 대한 응답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감사함으로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으로서 최상의 가치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행위 즉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리고, 그분을 칭송하고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⁴¹⁾ 따라서 청년부 신앙 교육에서 예배는 모든 사역에서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깨어졌던 인간관계가 회복된다. 죄를 회개하며 치유가 일어난다. 비전을 발견하고 성장한다. 그리고 다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고 원동력이 생긴다.

청년 예배는 두 가지 특징으로 요약 할 수 있다. 하나는 청년 예배도 진정한 의미의 예배라는 것이다. 따라서 예배의 본질이 부족함 없이 실현되는 예배여야 한다. 다른 하나는 청년들에 맞는 예배라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들이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즐겨 참여할 수 있는 예배여야 한다. 청년 예배가 이런 특징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예배이기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원리를 따라야 할 것이다. 첫째,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여야 한다. 둘째, 더불어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 셋째,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예배여야 한다. 넷째, 하나님과의 만남이 경험되는 예배여야 한다.

나. 봉사와 섬김

봉사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은 기독교 초기로부터 내려온 목회적 소명의 한 면이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하여 계속해서 봉사와 섬김을 모델로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한 후에 그를 따르는 공동체 역시 봉사와 섬김의 모습을 보여 준다. 신약에서 섬김에 대한 말, 디아코니아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진다. 때때로 그 말은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서 공동체의 모든 범위의 섬김과 봉사활동을 지칭한다. 다른 한편, 그 말은 특별한 의미로 식탁을 베풀고, 생활필수품을 제공하고 또는 남을 섬기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것과 같은 활동을 지칭한다.⁴²⁾

41) 주승중, *다시예배를 꿈꾸다* (서울: 두란노, 2014), 44.

42) Maria Harris, *교육목회 커리큘럼*, 고용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176.

한국교회는 아직도 디아코니아에 있어서 이론적 사고를 보인다. 가난한 이웃이나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것 자체를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내에 아무도 없다. 그러나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육체적 양식을 주는 것과 영적으로 굶주린 자에게 영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단히 많다. 전도는 영적인 것이고 이웃을 돕는 것은 세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구별하는 이원론은 시정되어야 한다.⁴³⁾

청년들은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간다. 청년들의 봉사와 섬김에는 사심이 없고 순수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손해를 보기도 하고, 희생을 하면서도 그 길을 가는 세대가 바로 청년 세대들이다.

다.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 오늘날 만연되어 있는 종교적 상대주의는 성서가 강조하고 있는 전도를 불필요하게 만드는 경향성이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사도들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전도하고자 했던 점을 깊이 생각하므로 극복할 수 있다. 사도들은 절박한 전도의 사명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 4:12)는 말씀은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복음전파에 대한 정신을 말해준다.⁴⁴⁾

청년은 세계 선교의 주역이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해외 선교의 비전을 찾고 선교지를 방문하는 이들은 청년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 도처로 나아가는 청년들은 선교지에서 봉사와 섬김을 감당하며 현지의 선교사들을 돕는다. 그리고 현지에서 선교사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맡으며 선교의 돌파구 역할을 한다. 그들 가운데 장기선교사가 일어나고, NGO 단체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청년들이 선교에 헌신하지 않는 교회에는 영적 생동감이 없다.

라. 공동체적 교제

신앙은 공동체를 통하여 성숙되어 간다. 오직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이는 생

43) 김명룡, *열린 신학 바른 교회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32.

44) Ibid., 29.

활로부터 가르침 또는 섬김에의 봉사행위를 위한 예배나 프로그램의 양식들이 이해될 수 있다. 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데 있어서 공통적인 요소들은 소속감을 강화시키는 자극제가 되고, 공통적인 유산, 신념과 삶의 방식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촉진하는 자극제가 되고 아울러 인간이 살아가는데 함께 나눔의 필요성을 진작시키는 촉진제가 된다. 비록 그러한 이상이 달성될 수 없을지라도 공동체에 구현되어 있는 이상은 다른 사람들과의 일치와 통일을 향한 움직임이 된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와 ‘교제’를 향한 움직임이 된다는 것이다.⁴⁵⁾

사람은 사랑이 그 뿌리가 되는 곳을 추구한다. 이것이 기독교 공동체의 과제이다. 즉,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엡 3:17-19) 되기를 하나님은 교회에 요구하신다. 사랑은 기독교 공동체의 과제이기 때문에 코이노니아의 핵심이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분열을 치유하게 하고 상처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는 온전함을 성취하도록 이끈다.⁴⁶⁾

청년들이 모이는 곳에는 활기가 넘친다. 대화도 활기차다. 그들의 표정, 대화주제, 목소리까지 활기와 아름다움을 풍긴다. 청년들은 함께 있을 때 더 큰 힘이 난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청년들은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갈망한다. 청년은 열린 모임에 참여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아픔을 나누고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 하면서 영적인 격려와 위로를 얻게 되고 서로 사랑하면 축복하게 된다. 이러한 필요에서 청년 공동체는 대그룹 중심의 공동체에서 소그룹 중심의 공동체로 빠른 변화가 필요하다.

마. 교육

교육은 하나님의 성령과 거룩한 교사와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방법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생활영역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모든 백성들을 제자로 만드는 일이다.⁴⁷⁾ 구원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45) Harris, *교육목회 커리큘럼*, 91.

46) Ibid., 29.

47) Lois E. LeBar, *사람에게 중점을 둔 교회교육*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2), 18.

의 자녀 된 자들은 두 번째로의 부르심 즉, 성숙과 성화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삶이 만나는 현장에서 신앙의 성장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구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며, 세우는 일을 위해 가르침은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의 교육의 핵심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지내는 것이었다. 사도 바울도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 스승으로서의 모범을 몸서 보였다. 오늘날의 청년 사역자들은 지식은 있으나 지혜가 없고 학위는 있으나 헌신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만큼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교육이 중요하다.

영적 군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옥한흠은 “주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몇 명의 양들을 놓고 그 자체가 완전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하며, 세상은 우리가 섬기는 작은 지역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라는 긍지를 가지라”⁴⁸⁾고 말한다. 동일하게 청년부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양육훈련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침체와 쇠퇴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제 2 절 균형잡힌 청년부 성장을 위한 실재적 준비

본 연구자는 균형잡힌 청년부 성장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첫 번째는 담임목사의 목회철학에 의해서 청년부의 성장이 이루어 질수 있다. 물론 담임목사는 청년 사역자에 비해서 많은 시간을 청년들과 보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목사의 목회철학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담임목사가 제시하는 철학에 따라서 교회의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청년 사역자 본인의 준비에 의해서 청년부의 성장이 결정되어진다. 아무리 담임목사와 교회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담당 사역자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청년부의 균형 잡힌 성장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본 절에서는 담임목사와 교회의 준비와 사역자의 실제적인 준비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논할 것이다.

48)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77.

1. 청년부 성장을 위한 담임목사와 교회의 준비

어느 교회이든지 청년 사역자와 담임목사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담임목사의 목회철학이 청년 사역을 담을 수 있으면 청년사역은 성장한다. 그러나 청년을 단지 교회에 필요한 일꾼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청년부의 성장은 어려울 것이다. 결국 청년 사역도 담임목사의 목회적 역량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⁴⁹⁾

젊은이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던 고직한은 삼일교회 청년부흥 보고서에서 청년사역과 목회자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랑의 교회 청년부나 대학부를 벤치마킹하려 한다면 옥한흠 목사님을 연구해야 한다. 온누리 교회 청년부를 모델로 하려면 하용조 목사님의 젊은이를 바라보는 관점과 신념을 알아야 한다. 한국교회 담임목회자의 99퍼센트가 청년목회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 다만 교회에 청년들이 필요할 뿐이다.⁵⁰⁾

담임목사의 목회의지에 청년이 담겨 있어야 청년사역이 성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 영역이 있겠으나 여기서는 3가지 영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독립적인 사역 제공

교회는 청년 사역의 독립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청년들이 하는 일을 신뢰하지 못하고 반대하면서 자꾸 간섭하기 시작하면 청년사역의 의지는 꺾이게 된다. 교회와 담임목사가 청년들을 조금만 인정해 주어도 청년들은 큰 격려를 받는다.

또한 청년사역자가 지속적으로 설교하도록 맡겨 주어야 한다. 청년사역자가 있지만 설교는 담임목사가 도맡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년사역자가 직접 청년들에게 설교한다는 것은 청년공동체 전체의 방향을 이끌어 가는데 커다란 동력이 된다. 또한 청년사역자의 권위가 선다.⁵¹⁾ 청년사역자가 단지 소그룹과 조직만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청년들을 향한 올바른

49) 양형주, *키워드로 풀어나가는 청년사역* (서울: 홍성사, 2005), 172

50) 황은우, *삼일교회 청년 부흥보고서* (서울: 규장문화사, 2002), 10

51) 양형주, *키워드로 풀어나가는 청년사역*, 172

른 권위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청년사역자는 단지 조직 관리자가 아니다. 청년사역자의 본질적 권위는 청년을 향한 뜨거운 말씀선포에서 나온다. 한 사람의 청년사역자로서 좋은 담임목사를 만나는 것은 커다란 복이다. 승리교회의 경우 본 연구자가 청년담당 목사로 사역하기 전까지는 매달 한 번씩 와서 청년부 설교를 하였는데 본 연구자의 부임과 함께 담임목사가 청년사역자에게 청년부 설교권을 보장해 주었다.

나. 예배, 장소, 재정, 부서의 독립 제공

청년부 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요청 중 한 가지는 청년들만의 특화된 예배이다. 갈수록 많은 교회가 청년부 예배의 독립을 인정해서 청년예배를 만들지만, 그 내부를 들어가면 장년예배를(대예배) 참석하고 난 후에 청년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된 예배가 형성되어야 한다. 다음 장에서 다룬 설문조사를 보면, 현재 일산지역 청년부 예배를 독립적으로 드리는 교회는 30.6퍼센트이다. 100여 명이 넘는 교회에서도 청년예배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청년부의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청년들의 문화에 어울리는 청년예배를 신설하여 독립된 예배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할 때에 청년들이 주인의식이 생기고 소속감과 친밀감이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년들의 필요에 맞는 문화가 음악을 사용해서 예배드리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⁵²⁾

또한 청년부서의 운영상의 독립이 필요하다. 교육부 안의 작은 부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 한 청년교구로서 독립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교회안의 성인 교구는 교구목사와 담임목사 그리고 당회로 사역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일반적인 청년부는 교육부 안의 한 부서로 존재하고 있기에 청년담당 목사와 청년부장 교육부장 그리고 타 교육부 부서의 교역자들 그리고 담임목사 당회 이런 식으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장점도 있지만 사역의 비효율적인 것들이 더 많을 때가 있다. 만약 청년교구로서의 독립이 이루어진다면 일반 성인 교구처럼 청년 담당 교역자와 청년담당 장로를 통해서 당회에 바로 보고가 되어서 사역의 효율성이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년부의 완전한 재정적인 독립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예산을 지원받되, 지출에 있어서는 청년부가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량

52) 최윤원, 최정성,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서울: 도서출판 예향, 2012), 50.

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청년들만의 독립된 장소가 있어야 한다. 청년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모여서 소그룹을 가지고 교제하고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 그러할 때에 청년들은 더 활발하게 눈치 보지 않고 모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청년목회를 위하여 청년예배의 독립, 청년부서의 독립, 청년예배의 장소와 청년부원들의 소그룹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자가 사역한 승리교회는 청년사역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상징으로 본 연구자가 사역 2년차가 되었을 때에 청년부 재정의 독립과 교육부 안의 청년부가 아니라 청년교구로서 독립을 보장해 주었다. 특히 재정 독립 전에는 이천만원의 예산을 교육부를 통해서 제공받다가 예산 독립 후에는 청년부 자체 현금과 이천만원의 예산을 플러스해서 재정을 사용하게 되었다. 또한 본당에서 성인예배와 함께 드리던 청년부 예배를, 라페스타 중심에 위치한 4층 건물 중 4층 전체 약 240평 되는 장소를 20억에 매입하여 그곳에서 청년부 예배를 독립적으로 드리게 되었다. 물론 이 공간은 청년부 자체만의 공간이 아니라 소년부 중, 고등부 청년부가 함께 예배드리는 공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교회의 제공으로 청년부 청년사역자로 하여금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 주었다.

다. 청년중심의 전문사역자 배치

한국 교회 청년목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청년 전문사역자의 부재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청년목회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사역자의 부재는 청년부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하게 만들었고, 단계적인 청년교육이 실시되지 못해서 청년들이 교회와 사회의 차이에 의한 혼동을 겪을 때 그들을 신앙으로 지도하지 못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부를 담당하는 사역자는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그들 중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청년기의 특성을 이해하며, 그들에게 적합한 기독교 교육학적 접근법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청년목회를 하고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이런 점을 고려해볼 때 청년목회 전문사역자의 부재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⁵³⁾

53) 김철한, *청년목회 활성화 방안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27.

청년목회를 담당할 전문가를 청년부에 배치하는 것은 청년목회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다. 왜냐하면 전문성의 시대에 청년들은 교회가 전문성을 가지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가운데 자란 신세대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중요시한다. 그들의 의상이나 사고의 표현에도 개성이 뚜렷하게 반영된다. 교회도 전문성을 가진 교회는 개성을 표현하고 자기표현을 할 수 있다.

높은뜻 연합 선교회 회장인 김동호 목사는 청년부의 활성화는 청년부를 담당하는 전문사역자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김동호 목사가 동안교회에 부임하던 당시 교회에는 장년 1000명과 청년 70여명이 출석하고 있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신념을 갖고 교구 목사가 청년부를 겸임하는 것에서 벗어나 청년 전담 사역자를 청년부에 배치시켰다. 교구사역, 교회의 일반적인 사역 이후 남은 시간 즉, 가외시간을 내서 짬짬이 청년부를 맡는 사역자가 아니라 오로지 청년만 생각하는 그런 전담 사역자를 배치시킨 것이다. 그런 그의 결단은 현재 동안교회의 청년부 재적 3000명을 웃도는 주목할 만한 성장을 가져왔다.⁵⁴⁾

동일하게 본 연구자가 승리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장년 2500명과 교육부 800여명 청년 7-80명이 출석을 하고 있었다. 본 연구자는 교육부와 청년부를 동시에 담당하는 교역자로 청빙을 받았다. 사역 1년을 하면서 교육부, 청년부 그리고 새벽기도 인도, 수요예배 설교, 주중 성경공부 인도 등 어느 것 하나에도 중점을 둘 수 없을 만큼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담임목사와 교회에서 청년부 전담 사역자로 청빙을 했는데 너무 많은 일을 맡기게 되었다고 하면서 다른 모든 사역을 내려놓게 하고 오직 청년부 사역에만 전념하게 해주었다. 그러자 사역 2년차에는 7-80명이 모였던 청년들이 130-14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3년차에는 160명까지 늘어나게 되었다.

청년들만을 위해 전적인 목회적 돌봄을 하는 전문사역자가 청년부에 배치된다면 전문사역자를 배치시키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볼 때 분명 달라지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직인 성장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청년목회를 청년들이 얼마나 모이는지 숫자에 주목하게 된다면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목회적 관심이나 배려보다

54) 김동호, "청년부 활성화 방안," *교회와 신학*, 1998년 봄호.

는 전임사역자의 성과를 위해서 모여야 하는 대상으로 청년들이 전략하고 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년목회에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의 소중함을 이해하는 철학을 가져야 한다. 한 젊은 청년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되기까지 기다리고 인내해야 한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역사가 바뀌지는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몇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청년사역자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청년을 양육해야만 한다. 또한 결코 서두르지 말고 인내해야 한다. 목회는 마라톤임을 기억해야만 한다.⁵⁵⁾

2. 청년부 활성을 위한 사역자의 준비

청년부 활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청년사역자의 준비이다. 아무리 담임목사의 훌륭한 목회철학과 교회의 준비가 되어 있을 지라도, 결국 현장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은 청년사역자이다. 교회가 어렵게 청년부 전담 사역자를 세워진다고 해도 사역자 자신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청년부의 성장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청년부 전담 사역자는 개인의 자리가 아니라 청년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의 생명을 책임지는 자리임을 한 순간도 잊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면 청년부 사역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가? 본 연구자가 준비하고 노력한 부분 위주로 나누고자 한다.

가. 성품의 준비

교역자가 기본적으로 청년들을 사랑하고, 청년들의 연약함을 품을 수 있는 인격적 넉넉함과 성숙함이 없다면 그 어떠한 방법도 무용지물이다. 가끔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교역자가 청년사역을 하다가 오히려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실망을 안겨주어 관계가 악화되고 사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본 적이 있다. 일부 청년 사역자들이 청년부를 다른 사역(교구, 거의 승진 개념)으로 넘어가는 중간단계로 생각하고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다가 보니 청년들을 향한 온전한 헌신도 약하게 되고, 사역을 종용하여 짧은 시간에 성과를 얻기를 원한다. 그래야만 다른 사역으로 승진하여 좀 더 편안한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교역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

55) 김철한, *청년목회 활성화 방안연구*, 28.

격적인 성숙함이다. 권위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선포하기 보다는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노력함으로 신뢰와 배려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들 앞에서는 “권위 없는 자처럼” 서 있어야 한다.

다음 장에서 다루겠지만, 청년들은 권위적이고 거리감 있는 교역자 보다는 함께 대화하고 친밀하게 상담해주며 삶과 인격을 나눌 수 있는 선배형의 교역자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즉, 목회자들이 먼저 부여된 권위를 해체하고 청년들에게 다가 갈 때에 청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자는 설교를 하고 난 후 주일 밤이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고 기대하는 시간이 있다. 그것은 바로 청년들이 내가 한 설교를 본인들 나름대로 은혜 받은 것들을 정리해서 페이스 북이나 이 메일로 나에게 보내주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자기의 은혜 받은 내용을 적지만 때로는 내가 설교한 부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충심어린 메일도 받기도 한다. 처음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어느 순간 권위 없는 자처럼, 그들에게 답장을 보낸다. “설교 잘 들어주어서 고맙다. 그리고 충심어린 조언해주어서 고맙다. 다음에 설교 할 때는 더 기도하고 더 준비해서 하도록 할게”라고 메일을 보낸다. 그러면 그 청년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자에서 이제는 나와 가장 가까운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만약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감히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다니 하고 화를 내었다면 과연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도하기 싫다.

청년 사역자는 청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려는 열정만 있다면 결국 진심이 통하게 될 것이다.

나. 관계의 준비

청년부 활성화의 문제점은 장기적인 연속성을 지닌 청년목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사역은 장기적인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한 파트에서 사역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이 현실이고, 1-2년 동안만 청년사역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사역자가 자주 바뀌는 문제는 우선 장기적 목회계획이 세워질 수 없는 것이고, 청년들에게는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전심으로 사역자를 믿고 따를 수 없게 만들고, 공동체의 통일성도 약화시키는 문제점이 있다.⁵⁶⁾

본 연구자가 승리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청년들과 성도들이 나에게 물어보는 질문 중 첫 번째가 “목사님은 언제 가세요.” 부임하는 첫 날에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다. 왜 그랬을까? 많은 청년 사역자들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떠났다는 것이다. 그만큼 청년들이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였다. 승리교회에 처음 부임해서 제일 비중을 둔 것은 바로 청년들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작업에 비중을 두었다. 특히 임원 리더들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사역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1년이 지났을 때에 조금씩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들과의 신뢰를 회복 할 수 있을까?

(1) 함께 시간을 보내주라

청년들이 좋아하고 즐겨하는 놀이문화를 잘 파악하여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종 pc게임, 운동(족구, 축구, 야구, 볼링 등), 영화, 차 마시며 담소하기, 함께 식사하기 등 평소에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고 친밀감이 형성된다. 특히 형제들의 경우에는 함께 땀을 흘려 운동한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여는 경향이 있으며, 자매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고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잘 여는 경향이 있다.⁵⁶⁾ 이러한 활동들이 설교나 기도회와는 달리 허송세월하는 것처럼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조금해 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 물론 청년사역자의 주머니가 두둑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사역이며 섬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수련회, 엠티, 아우리치 등의 시간을 활용해서 청년들과 밤늦게까지 함께 이야기 하고, 게임도 하고,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갖다보면 금방 마음이 열리고 친밀감이 형성된다.⁵⁸⁾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청년들과 더욱더 친밀하게 되고 그 이후 무엇이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동력자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연초가 되면 가장 먼저 새내기 리트릿을 통하여 기존 임원들과 고등부에서 방금 올라온 청년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면서 게임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임원, 리더 리트릿을 통하여 리더십들과의 관계 회복을 시작했고, 찬양팀

56) 이상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33가지 이유*, 229.

57) 최영걸, “청년이 살아야 미래가 삽니다.” 112.

58) Ibid., 112

앰티를 통해서 찬양팀과의 관계를 돈독히 했으며, 특히 아웃리치를 통해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밤새도록 이야기 하고 게임하면서 청년들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저녁 리더모임 전에는 임원들이랑 저녁식사를 함께 했고, 주일 소그룹 모임 후 임원들이랑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때에 임원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에게 다가왔고, 그때야 비로서 사역에 대한 부분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그 이후 나와 시간을 함께 보낸 청년들은 나를 이해하게 되었고 좋은 동력자로 걸어가게 되었다.

(2) 함께 울어주라

대한민국 전문 구인구직 포털 사이트인 알바몬이 자사 회원 대학생 1,1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대학생 대부분은 좋은 일이 있을 때 “이야기를 함께 나눌 사람이 있다”(93.7퍼센트)로 응답했고, 나쁜 일이 있을 때는 “고민을 함께 나눌 상대가 딱히 없다”(20.1퍼센트)로 응답했다.⁵⁹⁾

청년들은 청년들 나름의 고민과 아픔들이 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이 가슴 가득히 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또한 청년이기에 겪어야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다. 때로 어른들이 볼 때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청년들에게는 나름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과제일수도 있다. 그들의 고민과 고통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주고,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때로는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누군가가 그들을 향해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줄 때, 따뜻한 마음으로 등을 두드려주거나 손을 맞잡고 기도해 줄 때 그들은 교역자에게 마음을 열고 신뢰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청년들도 교역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열고 공감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자는 1년에 두 차례 대심방을 한다. 봄에는 개인 심방을 하고 가을에는 캠퍼스 직장심방을 한다. 내가 가서 하는 것은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냥 말없이 손잡아주고 울어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의아해 하는 청년들도 있었고, 심방 받기를 싫어하는 청년들도 있었다. 그런데 심방에 대한 좋은 소문이

59) “대학생 20퍼센트-고민을 함께 나눌 대화상대가 없다,” *크리스천투데이*, 2009년 1월 15일, Online: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00333/> 최순환, “청년목회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4), 76에서 재인용.

퍼지자 너도 나도 심방을 기다리는 분위기로 바뀌게 되었다. 주보에 한달 심방 계획을 미리 공고를 하고 리더와 임원들과 함께 청년들을 찾아가서 심방을 하였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평소에 아무런 고민이 없어 보이던 청년이 입을 열어서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과 자기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털어놓으면서 함께 평평 울기도 하였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난 것이었다. 내가 한 것은 그저 들어주고 함께 울어준 것이 전부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지기 시작한 것이다.

다. 사역능력의 준비

(1) 예배(말씀)에 목숨을 걸라

청년사역의 양대 사역이 있다면 첫째가 강단사역이고 둘째가 제자훈련이다. 하지만 강단사역 없이 제자훈련으로 청년사역을 감당할 수는 없다. 제자훈련 사역은 강력한 강단사역 아래 토양이 다져지고 동기가 고양되어 정신이 함양될 때 가능하다. 청년사역자에게 강단사역의 중요성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⁶⁰⁾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년기는 가장 종교적인 기간인 동시에 가장 종교적 갈등을 많이 경험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청년 사역자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또한 그 갈등이 어떤 형태로 종교와 관련되어 있는지 세심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청년들의 문화와 청년들의 삶과 청년들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들어야 한다. 그리고 청년들의 언어와 문화가 덧입혀진 설교 즉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준비된 특화된 설교를 준비해야 하고 그들에게 전달해야 한다.⁶¹⁾

본 연구자는 청년을 목표로 정한 후로는 옷도 청년처럼 입고, 청년들처럼 머리에 염색도 하려고 노력한다. 아니 그보다 더한 것도 한다. 삶 자체를 청년들에게 맞추다가 보니까 어느새 청년들과 친근하게 지낼 수 있게 되고 청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그들의 고민을 알게 되어서 설교가 쉬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본 연구자는 큐티를 통한 강해설교를 주로 한다. 한 주간동안 청년 공동체에서 함께 나눈 큐티 가운데 가장 도전이 되는 말씀을 선택해서 큐티와 설교와 소그룹이

60) 고직한, *청년 사역 맨땅에 헤딩하지 말자* (서울: 홍성사, 2003), 77.

61) 김철한, *청년목회 활성화 방안연구*, 29

하나가 된 큐티 설교를 한다. 월요일이 되면 설교 제목과 본문을 정하게 되고 정해진 본문을 소리 내어서 10번 이상 읽는다. 그리고 한글 본문과 여러 번역본들을 비교하면서 본문 해석을 한다. 본문만 잘 전해도 말씀 이해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화요일이 되면 주일에 선포될 설교를 토씨 하나 빼놓지 않고 10장 정도를 적는다. 그리고 하루에 10번씩 소리 내어서 읽고 또 읽는다. 그러다가보면 잘못된 부분이나 수정하고 또 수정해서 주일날이 되면 정확하게 4 페이지에서 5 페이지로 만들어서 말씀을 선포한다. 또한 금요일 리더 모임이 되면 주일 설교 말씀을 요약해서 리더들에게 먼저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제목을 요청한다. 토요일이 되면 가족 앞에서 주일에 선포할 말씀을 그대로 느낌을 가지고 선포한다. 때로는 주일이 되기 전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목소리가 엉망이 될 때도 있다. 토요일이 되면 설교 원고를 찬양인도자와 자막을 담당하는 방송실 간사에게 준다. 한 설교가 나오기 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고 단에 설 때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죽어도 좋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청년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다가 죽어도 좋다는 각오로 말씀을 전해야 하며, 항상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처럼 강단에서 외칠 때 청년들은 이러한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

(2) 청년을 향한 열정을 가지라

맛있는 음식점을 가면 두 사람을 생각한다. 가족과 청년들이다. 창조력은 집중력에서 생긴다. 어느 한 대상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창조력이 생긴다. 영향력도 집중력에서 생긴다. 어느 한 대상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 대상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열정을 가지면 영향력이 생긴다. 청년 목회자는 청년을 향한 열정을 가져야 한다. 청년들을 가슴에 품으면 눈물이 난다. 어떤 대상을 가슴에 품는다는 것은 그 대상을 위해 운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들 때문에 웃고 우리들 때문에 우셨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다.⁶²⁾

본 연구자는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장로님 권사님 교회 중직자들 앞에서 아부도 한다. 청년들을 위해 10만 원의 예산이라도 더 탈 수 있다면 그분들 앞에서 재롱이라

62) 고직한, 김동호 외 4인 청년목회자연합, *청년대학부 TNT 부흥* (서울: 규장, 2001), 104

도 피울 것이다. 아부도 계속하면 충성이라고 한다. 한번은 본 연구자가 청년부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여전도회 회장을 우연히 교회 로비에서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회장이 “목사님 전도축제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시죠?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여전도회에서 부족한 예산을 전액 채워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다. 청년을 가슴에 품으면 교인들도 알게 된다.

청년사역자들은 청년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처럼 사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청년들을 살리려면 청년이 되어야 한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언더우드 목사는 25세의 나이로 이 땅에서 눈을 감으셨다. 그러나 그 젊은 목사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졌다.⁶³⁾ 한 사람이 바로 서면 하나님은 그 한 명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신다. 청년을 가슴에 품고 열정을 가진 한 사람, 청년을 살리기 위해 청년이 된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 청년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본 연구자 또한 그렇게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있다.

라. 가정의 준비

청년들의 성적 방종은 교회에 큰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청년 사역자의 성적 방종은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파괴력을 갖는다. 영적 지도자의 성적 방종은 교회 전체를 뿌리째 뽑아낼 수 있고, 그 악성 파급효과는 수년에 걸쳐서 지속되는 것이다.⁶⁴⁾ 그런 의미에서 청년 사역자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정결함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젊은이들과 함께 사역을 하다보면, 자연히 여러 젊은 자매들과의 접촉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더욱더 조심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은 청년사역자의 길이다. 몇 해 전 교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목사의 스캔들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이러한 성적인 스캔들이 목회자라는 이유로 자행되어지고 있다. 부흥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 청년들은 성적인 유혹에 너무나 많이 노출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행복한 가정의 모델이 필요하다. 그 모델은 바로 청년사역자의 가정이어야 한다.

63) 고직한, 김동호 외 4인 청년목회자연합, *청년대학부 TNT 부흥*, 105.

64) 라준식, 전병욱 외, “성적 유혹을 이기는 청년 사역자,” *목회와 신학*, 1998년 8월호.

(1) 가정이 최고의 안식처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청년 사역을 하는 것은 거의 소모적인 사역이다. 그러다 보면 탈진상태에 빠질 때가 여러 번 있다.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가장 약할 때가 육체적인 고갈을 느낄 때라고 한다. 육체적 탈진은 많은 순간 도덕적 무장해제 상태를 낳곤 한다. 그러므로 청년 사역자들은 쉴 때에도 자신을 지킬 수 있을 정도의 영력은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완전 무장해제를 다 해버리면, 언제 유혹에 넘어갈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성적 범죄를 저지른 청년 사역자들을 보면, 대개 사역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으로 인하여 고갈되었을 때가 가장 많았다. 마귀는 성도의 틈을 노린다. 군인들은 휴식을 취할 때에도 적의 공격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처럼, 청년사역자도 언제나 성적 유혹의 굴레에 빠져들 것에 대해서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탈진 회복의 요양처로는 가정이 가장 안전하다. 가정에서 회복을 받아야 한다. 가정을 떠난 여행을 떠나서는 안 된다. 탈진 때의 여행은 회복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함정에 빠지게 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2) 공개적인 만남을 지속하라

남녀를 비교해 볼 때 형제들은 인정해줄 때 성장한다. 반면에 자매들은 사랑해줄 때 성장한다.⁶⁵⁾ 그러다 보니, 자매들은 개인적인 양육에 대한 욕구가 대단하다. 일반적으로 자매들은 3명을 모아놓고 2시간을 이야기해도, 자기는 목회자와 대화를 했다고 느끼지 않는다. 반면에 일대일로 단 10분만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대화는 깊은 교감이 있는 대화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자매들의 양육을 위해서는 개인적 대면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일대일 대면이라 하더라도 결코 폐쇄적인 밀실에서의 양육은 금물이다. 항상 모든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개방적 장소에서의 양육이 필요하다. 자매들의 양육을 위해서는 일대일로 하라. 그러나 햇빛 아래에서 해야 한다.

(3) 아내와의 사랑, 청년들에게도 확인시키라

아내를 사랑하라. 성적 유혹을 이기는 길은 아내를 깊이 사랑하는 길이 최선이

65) 라준석, 전병욱 외, “성적 유혹을 이기는 청년 사역자,” 8.

다. 교회 안에도 외로운 자매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항상 사역자 부부관계의 균열을 노리고 들어온다. 그리고 아내에게서 채워지지 않는 목회자의 공허감을 자신이 감히 메우겠다고 덤벼드는 맹랑한 자매들도 있다. 모든 유혹을 이기는 길은 가정을 안식의 베이스캠프로 삼는 것이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아내와의 깊은 사랑을 모든 청년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제 4 장

설문조사를 통한 청년 사역 활성화 방안 및 문제점

본 장에서는 일산지역 청년교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하여 청년사역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설문 조사방법 및 내용을 밝히고, 실태조사의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한 일산지역 청년부 활성화 방안과 함께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다.

제 1 절 조사방법 및 내용

1 조사의 방법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 조사의 대상으로는 경기 일산, 파주지역 교회 청년부원들을 대상으로 조사 하였다. 대상교회는 일산 파주지역에서 100명 이상 청년들이 출석하는 10개 교회이며 배포된 설문지는 약 1000매, 설문조사시점은 2012년 10월이다. 설문조사 시점의 청년부 집회에 참석한 청년들을 중심으로 설문지를 배부했으나 실제 설문에 응답해준 인원은 총 10개 교회 410 여명이었다. 또한 본 조사는 일산 지역 청년부 교회 일부를 조사했기에 한국교회 전체 청년부를 대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교회 대부분의 청년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풀어 갈수 있는 작은 대안은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교회는 <표 1>과 같다. 설문에 응해준 교회들의 요청으로 교회명의 한글 첫 자음으로만 표기하였다. 해당교회의 장년예배(주일 낮) 및 청년예배의 평균 출석인원으로서, 본 설문조사에 협조해준 목회자들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거했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장년대비 청년출석인원을 계산해보면 약 5.1퍼센트임. 회수된 설문지는 매 문항마다 남녀별로 구분하여 항목별 백분율로 비교 분석하였다. 단, 문항에

따라 무응답과 둘이상의 복수 응답으로 인해 총 응답수는 실제 설문지 응답자 수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표 1> 일산지역 청년 설문조사에 응답한 교회

교회소재지	소속교회	교회명	응답인원	장년 출석	청년출석
경기일산	서북교회	ㅅ교회	75	장년 3000명	청년 130명
경기일산	서북교회	ㅇ교회	35	장년 1500명	청년 100명
경기일산	서북교회	ㅎ교회	50	장년 5000명	청년 200명
경기일산	관악교회	ㄷ교회	35	장년 2000명	청년 110명
경기일산	서북교회	ㅈ교회	30	장년 1300명	청년 100명
경기일산	서북교회	ㅊ교회	50	장년 7000명	청년 350명
경기파주	서북교회	ㅅ교회	30	장년 1500명	청년 100명
서울은평	서북교회	ㅇ교회	20	장년 1500명	청년 100명
경기일산	고신	ㅂ교회	45	장년 8000명	청년 300명
경기파주	감리교	ㄱ교회	40	장년 8000명	청년 450명

2. 조사내용

설문의 내용은 크게 5개 영역에 2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은 부록 1에 게재되어 있다. <표 2>는 설문조사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제 2 절 실태조사의 내용 분석

본 절에서는 실태조사의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응답자에 대한 분석과 교회와 신앙생활 및 청년부 활동이 다루어질 것이다.

<표 2>설문조사 내용

영역	문항
응답자에 대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 -연령 -신급
교회/신앙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처음 교회에 나온 시기 -신앙생활 총 년수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 -성경통독 횟수 -가장 유익한(은혜받는) 시간 -교회 봉사 내용 -교회를 옮긴 적이 있는지 여부와 이유 -선교단체에서의 활동여부와 그 내용
청년부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집회(예배) 참석여부 -청년집회(예배)에의 참석/불참의 목적/이유 -청년부의 현재 상태 -교회 내에서의 청년부의 위치와 비중
청년부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성화 방안과 강조되어야 할 내용 -현재 청년부 활동에서의 취약점 -청년부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 -바람직한 청년부 교역자상
개인 문제와 교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장 관심 있는(고민하는) 문제 -인생/신앙문제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사람 -한국교회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

1. 응답자에 대한 분석

가. 응답자의 지역별 남녀 비율

응답자의 지역별 남녀 비율은 <표 3>과 같이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표 3> 응답자의 지역별 남녀 비율

성별		남	여	계
지역		인원	인원	총
서울	1	40	60	100
경기	9	140	170	310
합계	10	180	230	410

<표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총 응답자 410명 중에는 남자가 180명(47.2퍼센트), 여자가 230(52.8퍼센트)이다. 일반적으로 교회 청년부의 출석수나 활동상황에서 남자 보다는 여자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출석수가 그대로 성인예배 출석수나 교회활동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청년사역의 활성화야 말로 교회 부흥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입증하여 주는 지표이다.

나. 응답자의 연령

응답자의 연령은 <표 4>에 나와 있다.

<표 4> 응답자의 연령

성별	남		여		계	
	인원수	퍼센트	인원수	퍼센트	인원수	퍼센트
만 18-22세	70	17.1	103	25.2	173	42.3
23-26세	86	21.0	83	20.3	169	41.3
27-30세	28	6.8	25	6.1	53	13.0
31세 이상	11	2.4	4	1.0	14	3.4
합계	195	47.4	215	52.6	410	100

<표 4>를 보면, 총 응답자 410명중 만 18-22세 층이 42.3퍼센트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23-26세층(41.3퍼센트), 27세 이상은 16.4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또 여자는 18-22세가 가장 많았고, 남자는 오히려 23-26세가 더 많은 분포를 보인다. 일산이라는 지역적인 특색이 잘 나타나는 수치인 것 같다. 일산에 있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서울이나 수도권 지방으로 대학을 가고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27세 이상 직장인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가 상대적으로 대학생들 보다 적은 것 같다. 또한 27세 이상의 직장인들은 청년예배 참석보다 성인예배나 교육부에서 봉사를 하고 월요일 출근을 위해서 오후시간에 휴식을 한다던가, 직장 부근으로 이동하는 경우의 수가 많다.

다. 응답자의 신급

응답자의 신앙의 연륜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신급은 <표 5>에 나와 있다.

<표 5>를 보면, 세례교인이 79.8퍼센트, 유아세례교인이 12.7퍼센트고 학습교인과 원입교인은 7.4퍼센트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년부에 출석하거나 관심 있는 청년들은 거의 대부분(92.5퍼센트)이 세례를 받은 상태이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거나 교회 생활에 익숙지 못한 청년들이 청년부에서 활동하는 수는 극소수라는 것을 보여 준다. 본 연구자가 사역하는 교회도 예배는 참석하지만 아직 세례를 받지 않는 청년들이 있다. 그 청년들은 대부분 예배만 참석하고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있지 않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청년들은 거의 대부분 소그룹에 소속되어서 교제를 나누기에 청년예배 참석이 쉬워진다.

<표 5> 응답자의 신급

성별	남		여		계	
구분	인원수	퍼센트	인원수	퍼센트	인원수	퍼센트
유아세례	30	7.5	21	5.2	51	12.7
세례	146	36.4	174	43.4	320	79.8
학습	5	1.2	4	1.0	9	2.2
원입	19	2.5	11	2.1	21	5.2
합계	200	47.5	210	52.4	410	100

그러므로 청년들에게 끊임없이 세례의 중요성을 강조하여서 세례받고 세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례받은 청년들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2. 교회와 신앙생활

가. 교회에 처음 나온 시기

<표 6>은 청년들이 교회에 처음 나온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한 결과를 담고 있다. <표 6>을 보면, 초등학교 시절 이전부터 교회에 나온 사람이 68.5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혹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자라서도 청년부활동의 주축이 됨을 볼 수 있다.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다. 청년부에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청년들을 교회학교 교사로 잘 훈련시켜서 자연스럽게 교회학교에서 청년부로 올라올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고등부와 청년부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하여 고 3들이 청년부에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도록 더 많은 투자와 관심을 보여주어야 하겠다.

<표 6> 청년들이 교회에 처음 나온 시기

성별	남		여		계	
구 분	인원수	퍼센트	인원수	퍼센트	인원수	퍼센트
모태신앙	88	21.5	78	19.0	166	40.5
초등학교	49	12.0	66	16.1	115	28.0
중고등학교	33	8.0	43	10.5	76	18.5
고졸	12	2.9	12	2.9	24	5.9
기타	12	2.9	17	4.1	29	7.1
합계	194	47.3	216	52.7	410	100

나. 신앙생활 총 연수

<표 7>은 설문자들의 신앙생활 총 연수를 묻는 설문에 대한 결과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7> 신앙생활 총 연수

성별	남		여		계	
구분	인원수	퍼센트	인원수	퍼센트	인원수	퍼센트
1년 이내	4	1.0	1	0.2	5	1.2
1-3년	4	1.0	8	2.0	12	2.9
4-6년	21	5.1	16	3.9	37	9.0
7-9년	22	5.4	35	8.5	57	13.9
10년 이상	143	34.9	156	38.0	299	72.9
합계	194	47.3	216	52.7	410	100

<표 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총 연수에서 10년 이상이 72.9퍼센트로 압도적이었고, 7년 이상 된 청년은 모두 86.8퍼센트에 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청년부에 출석하거나 관심 있는 청년들의 대부분은 오랜 신앙생활로 교회에 익숙한 사람들이란 사실이다. 교회에 나온 지 7년 미만인 인원은 겨우 13.2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 교회가 전도와 새 신자 청년들의 양육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을 보여준다.

다.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

이를 묻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표 8>에 나와 있다. <표 8>에 나타나듯이,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부모님의 인도이다(54.3퍼센트). 이것은 앞의 <표 6>과 <표 7>에서 살펴 본 것처럼 어릴 적부터 기독교적 신앙배경에서 자란 청년들이 현재 청년부원들의 주류라는 것은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단지 위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온 청년들이 16.3퍼센트나 된다는 사실이다(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많다). 이것은 청년시기에 참된 진리와 신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8>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

성별	남		여		계	
구분	인원수	퍼센트	인원수	퍼센트	인원수	퍼센트
부모님의 인도	114	28.1	106	26.2	220	54.3
친구의 권유	42	10.4	44	10.9	86	21.2
친척/선생님의 권유	14	3.5	19	4.7	33	8.1
자발적으로	30	5.4	44	10.9	66	16.3
합계	201	47.4	213	52.6	410	100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느낄 수 있는 숫자이다. 본 연구자는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권면한다. 할 수 있다면 믿음의 형제자매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야만 다음 세대부터는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어릴 때부터 배운 믿음의 교육이 올바르게 대물림 될 때에 교회학교 부흥 뿐 아니라 청년부의 부흥, 그리고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좋은 이미지가 중요하다. 적지 않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다. 그들이 처음 와서 드리는 예배는 그들의 인생에서 교회를 결정짓는 소중한 시간이다. 그래서 매번 드리는 예배를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러할 때에 자발적으로 찾아온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배의 소중함을 새삼 느낄 수 있는 통계이다.

라. 성경통독 횟수

<표 9>는 성경통독 횟수에 설문에 대한 조사 결과를 표로 만들었다.

<표 9>를 보면, 신구약성경을 아직 한 번도 통독하지 못한 사람들이 50.7퍼센트나 되는데 이는 청년들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지 못하다는 증거이다.

<표 9> 성경통독횟수

성별	남		여		계	
구분	인원수	퍼센트	인원수	퍼센트	인원수	퍼센트
통독 못함	89	22.1	115	28.6	204	50.7
1번	39	9.7	52	12.9	91	22.5
2번	30	5.5	23	5.7	45	11.2
3번 이상	44	10.9	18	4.5	62	15.4
합계	202	48.3	208	51.7	410	100

앞의 <표 5>에서 세례교인(유아세례포함) 비율이 92.5퍼센트, <표 7>에서 신앙생활 7년 이상 된 사람이 86.8퍼센트인 것을 감안하면, 신앙생활의 길이와 성경 읽는 것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개신교가 특별히 말씀을 중시하는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과반수가 아직 성경을 한번 도 읽지 못한 것을 보면 앞으로 교회가 좀 더 체계적인 성경교육과 성경읽기를 강조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자는 일주일에 3번 이상 큐티 하기, 1년에 성경 1독을 목표로 청년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한 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는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세상이다. 교회는 청년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마. 신앙생활에서 가장 유익한(은혜 받는) 시간

신앙생활에서 가장 유익한 시간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는 <표 10>이 담고 있다.

<표 10>을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 교회 청년들은 주일예배를 가장 중요시하고 또 이를 통해 신앙적,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청년예배(혹은 집회)를 가장 유익하다고 응답한 인원은 30.6퍼센트로서 주일예배보다는 적지만 무시할 수 없는 비율이다. 특히 아직 많은 교회에서 청년들만의 예배가 독립되어 있지 못하고 장년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청년들이 자기들만의 예배(혹은 집회)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갖고 있음을 간접적이나마 확인해 볼 수 있다.

<표 10> 신앙생활에서 가장 유익한 시간

성 별	남		여		계	
구 분	인원수	퍼센트	인원수	퍼센트	인원수	퍼센트
주일예배	101	22.0	99	23.0	200	45.0
청년예배	61	14.2	71	16.5	132	30.6
수요예배	1	1.2	2	2.8	3	3.9
새벽기도회	10	2.6	5	1.9	15	4.4
기타	30	7.9	30	8.1	60	16.0
합계	206	47.8	225	52.2	410	100

이 점은 <표 16>의 분석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된다. 기타는 주로 수련회, 부흥회, 찬양집회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때 청년들의 삶은 변화가 일어난다. 그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특화된 예배가 더욱더 절실히 요청이 된다. 교회는 다시 한 번 청년들이 살아야 교회가 살 수 있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독립적인 청년 예배와 청년담당 사역자를 양성해야 할 것이다.

바. 청년들의 교회 봉사

<표 11>은 청년들의 봉사 여부를 묻는 질문조사에 대한 결과이다.

<표 11> 청년들의 교회 봉사 여부

성별	남		여		계	
구분	인원수	퍼센트	인원수	퍼센트	인원수	퍼센트
봉사하고 있다	163	39.7	201	48.9	364	88.6
있지 않다	31	7.5	16	3.9	47	11.4
합계	194	47.2	217	52.8	410	100

<표 11>을 보면, 청년부에 출석하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어떤 형태로든 (주로 교사와 성가대원) 교회 내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자청년의 경우는 92.6퍼센트가 봉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을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주일학교와 성가대에서 청년들의 봉사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다가 보니 교사나 성가대로 봉사하는 청년들이 청년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다. 대부분 청년부 예배가 오후 시간이다 보니 오전에 힘들게 봉사하고 다시 오후에 청년부에서 예배드리고 소그룹을 해야 하는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교회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형편일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자의 청년부에서는 최소 임원들은 교사나 성가대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지만 그것조차 잘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다가 보니 오전 봉사와 오후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저녁시간에는 거의 초죽음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청년들을 보게 된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학업과 직장생활을 해야 하기에 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가 된다. 교회에서는 청년들을 봉사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의 대상으로 생각해서 조금 늦더라도 훈련된 교사와 성가대원들로 봉사직분을 감당하게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되리라 생각된다. <표 12>는 청년들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봉사의 내용을 표로 만든 것이다.

<표 12> 교회 봉사의 내용

성별	남		여		계	
구분	인원수	퍼센트	인원수	퍼센트	인원수	퍼센트
교사	104	19.4	131	24.4	235	43.8
찬양대원	69	12.9	106	19.8	175	32.6
청년회임원	45	8.4	50	9.3	95	17.7
기타	13	2.4	18	3.4	31	5.8
합계	231	43.1	305	56.9	536	100

<표 11>과 <표 12>을 살펴보면, 봉사하고 있는 364명의 청년들이 봉사 직에 참

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와 찬양대원 수만을 합쳐도 410으로 총 봉사자 수를 넘어선다. 이를 분석하면, 결국 청년 한 명당 약 1.5군데의 봉사직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말해 준다. 심지어 한 명이 교사, 성가대, 청년회임원 등 3가지 모두를 다 맡고 있는 경우도 약 40여명 정도이다(청년 총수의 약 10퍼센트). 이것은 현재 청년들이 과중한 봉사에 동원되고 있다는 증거이며, 청년부 활동이 점점 쇠퇴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된다. 교사와 성가대등으로 열심히 뛰어야 하는 청년들이 청년부 활동에까지 힘을 쏟을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할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⁶⁶⁾

또 앞의 <표 9>에서 드러난 것처럼, 아직 성경통독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청년들의 상당수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다고 보면, 주일학교 교육의 질적 측면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요컨대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채 성숙되지 못한 청년들이 너무 빨리 과도한 봉사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교회와 본인 모두에게 유익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 교회를 옮긴 경험과 그 이유

교회를 옮긴 경험과 그 이유에 대한 설문 조사의 결과는 <표 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3> 교회를 옮겼던 경험

성별	남		여		계	
구분	인원수	퍼센트	인원수	퍼센트	인원수	퍼센트
있다	118	28.9	147	35.9	265	64.8
없다	76	18.6	69	16.6	145	35.2
합계	194	47.4	215	52.6	410	100

66) 본 연구자가 실제로 목회현장에서 청년부를 지도한 경험에 의하면, 청년 집회 때 지각과 조퇴자의 거의 대부분은 교사와 찬양대원들이다. 주일학교의 특별행사, 교사모임과 성가대 연습시간 등이 청년부집회시간과 중복되거나 겹치게 되는 현상이 매우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사와 성가대원들의 상당수는 주일학교와 성가대 행사로 인해 피치 못하게 청년부 집회에 자주 결석하게 된다. 또 교사와 성가대 활동을 마치고 청년집회에 참석하는 청년들은 이미 상당히 지쳐 있어 원활한 청년부 활동을 기대하기란 매우 힘이 드는 상황이다.

<표 13>을 보면, 청년들의 64.8퍼센트가 교회를 한 번 이상 옮긴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적게는 한번에서 많게는 7번까지 교회를 옮겨 다닌 청년들이 처음부터 한 교회에서 신앙 생활한 청년들의 약 2배인 것을 볼 수 있다. 또 여자가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교회를 옮겼던 경험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어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요즘 전도는 대부분 수평이동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새 가족이라는 개념조차 없어지는 것 같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옮기게 되는데 다시 교회에 적응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들이 걸리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또 다른 교회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표 14>는 교회를 옮긴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표로 담고 있다.

<표 14> 교회를 옮긴 이유

성별	남		여		계	
구분	인원수	퍼센트	인원수	퍼센트	인원수	퍼센트
친구의 권유	8	2.8	17	6.0	25	8.9
교제하기 위해	2	0.7	2	0.7	4	1.4
양육 받으려고	4	1.4	8	2.8	12	4.3
목사님의 설교	7	2.5	11	3.9	18	6.4
가족의 이사	40	14.2	51	18.1	91	32.3
청년부 활동 때문	6	2.1	5	1.8	11	3.9
기타	59	20.9	62	22.0	121	42.9
합계	126	44.7	156	55.3	282	100

<표 13>에서 교회를 옮겼던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교회를 옮긴 중요한 이유는 ‘기타’ 항목의 42.9퍼센트이다(이중 약 90퍼센트가 ‘이사’라고 대답했음). 그 다음으로 ‘온 가족이 옮기게 되어서’가 32.3퍼센트, ‘친구의 권유’가 8.9퍼센트이다. 위 표를 보면 대부분의 청년들이 자기개인의 취향이나 이유보다는 온 가족과 함께 혹은 이사의 이유로 교회를 옮긴 적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최근 많은 청년사역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청년부의 급격한 수평이동상황에 대한 설명⁶⁷⁾과는 약간 다른 결과를 보인 것으로

67) 두란노 편집팀, “청년들 왜 떠나나,” 빛과 소금, 1996년, 70-71.

주목된다. 결국 본 조사에서는 청년들이 교회를 옮기는 중요한 이유가 적극적/자발적 이유(친구의 권유, 보다 많은 사람들의 교제, 큰 교회에서 양육 받을 목적, 목사님의 설교, 활발한 청년부 활동)보다는 소극적/수동적 이유(온 가족이 옮겨서, 이사 기타)가 더 큰 것임을 보여 준다. 본 연구자가 사역한 교회에서는 처음 교회를 나온 청년들은 새가족 공부를 통해서 청년부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고, 수평이동으로 교회를 옮긴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본인이 원하면 새 가족 공부를 다시 하고 그렇지 않다면 바로 소그룹으로 이동하게 된다.

아.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거나 활동한 경험

<표 15>는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거나 활동한 경험에 대한 설문 조사의 결과이다.

<표 15> 선교단체에서 훈련 경험

성별	남		여		계	
	인원수	퍼센트	인원수	퍼센트	인원수	퍼센트
경험이 있다.	87	22.8	79	18.1	166	40.8
경험이 없다.	107	25.4	137	33.8	244	59.2
합계	184	48.2	198	51.8	410	100

<표 15>을 보면, 청년들 중 40.8퍼센트가 과거 또는 현재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거나 활동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 내용은 대부분이 성경공부, 순모임, 찬양활동 전도 등으로 주로 대학생시절 학원선교단체들(CCC, 예수 전도단, JOY, UBF, 네비게이토, IVF 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많은 청년부가 선교단체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소그룹을 한다든가 성경공부를 한다. 그리고 선교단체 출신들이 리더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빠른 성장을 보여주는 장점도 있지만 지속적인 성장은 보여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선교단체의 구성원들과 교회의 구성원들의 헌신도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연구자의 교회에서는 선교단체에서 사역하고 있는 청년들을 리더십에서 제외하고 사역을 한다. 왜냐하면 선교단체에서 사역하고 있는 청년들은 은연중에 본인이 소속된 선교단체의 비전과 활동들을 소그룹 원들에게 전달해서 교회에 대하여 좋지 않는 모습들을 부각해서 청년부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

었기 때문이다. 대개의 교회들에서 학생(청년) 선교단체들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문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조사결과는 향후 청년부활동에서 교회와 선교단체의 역할과 협력에 대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하겠다.

3. 청년부 활동

청년부활동(혹은 예배) 참석여부 <표 16>은 청년부활동(혹은 예배)의 참석여부를 묻는 설문에 대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표 16> 청년부활동(혹은 예배) 참석여부

성별	남		여		계	
구분	인원수	퍼센트	인원수	퍼센트	인원수	퍼센트
빠짐없이 참여	116	28.4	128	31.3	244	59.7
가끔 참여	49	12.0	69	16.9	118	28.9
참여하지 않음	23	5.6	16	3.9	39	9.5
참여할 예정	6	1.5	3	0.5	9	2.0
합계	194	47.4	215	52.6	410	100

<표 16>에서 보면, 본 조사에 응답한 청년의 88.5퍼센트는 청년부활동(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 청년부활동에 참여 않고 있거나 앞으로 참여하겠다고 대답한 사람은 11.5퍼센트에 불과했다. 특히 모든 청년활동에 빠짐없이 참여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무려 59.7퍼센트나 된다는 것은 청년들이 나름대로 청년부에 대한 애착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설문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청년들이 많음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청년부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을 잘 훈련하기만 하면 청년부 활성화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청년들을 바라보는 시야가 중요하다. 청년들을 그저 봉사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의 대상으로 생각해서 청년들만의 훈련 공간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청년부 모임에 참석하는 동기와 목적을 묻는 설문 조사 결과는 <표 17>에 있다.

<표 17>에 나타나듯이, 청년부 모임에 참석하는 동기와 목적을 교제, 찬양과 설

교, 성경공부 순으로 대답했다. 물론 이 부분에는 중복 응답한 경우가 많다.

교회 내에서 청년들이 참석하고 활동하는 행사나 프로그램은 예배,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각종 기도회, 제반 행사들이 많지만 청년들끼리 함께 교제하고 교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바로 청년부 모임뿐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청년모임이나 프로그램에는 청년들끼리의 사귄과 나눔을 강조하고 서로의 마음을 열수 있는 교제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표 17> 청년부 모임에 참석하는 동기와 목적

성별	남		여		계	
구분	인원수	퍼센트	인원수	퍼센트	인원수	퍼센트
교제	123	17.1	132	18.3	255	35.4
찬양과 선교	78	10.8	118	16.4	196	27.2
성경 공부	84	11.7	108	15.0	192	26.7
봉사	21	2.9	33	4.6	54	7.5
기타	14	1.9	9	1.3	23	3.2
합계	320	44.4	400	55.6	720	100

<표 18>은 청년부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결과 분석이다. <표 17>과는 반대로 청년들이 청년부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표 18>에서 보는 것처럼 ‘바빠서’가 32.1퍼센트, ‘청년들의 특성을 살리지 못해서’가 21.4퍼센트, ‘재미없어서’가 15.4퍼센트, ‘다른 봉사로 피곤해서’가 12퍼센트, ‘회원들 간의 갈등’이 8.9퍼센트를 점하고 있다. 요약하면, 바쁘고 피곤한 이유가 44.1퍼센트, 청년들의 취향을 살리지 못하고 재미없는 이유가 36.8퍼센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런 점들을 보완할 수 있으면 청년들의 참석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중한 봉사로 인한 바쁨과 피곤함을 완화해주고, 청년들끼리의 재미있는 사귄의 시간을 적절히 제공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특이한 것은 회원들 간의 갈등이 불참사유의 8.9퍼센트를 차지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여자들이 남자의 2배 가까이 된다. 이것도 결국 회원 간의 충분한 나눔과 이해의 시간을 통해 하나 됨을 추구한다면 해소되리라 본다. 본 조사에서는 미약하게 나

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교회와 교역자에 대한 실망으로 청년부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청년들도 많음을 보게 된다. 더욱 더 교역자들이 청년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신실한 종이 되어야 함을 다짐하게 되는 조사 결과이다.

<표 18> 청년부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

성별	남		여		계	
구분	인원수	퍼센트	인원수	퍼센트	인원수	퍼센트
바빠서(우선순위가 아님)	99	14.9	114	17.2	213	32.1
빈약한 내용	71	10.7	71	10.7	142	21.4
재미없다	47	7.1	55	8.3	102	15.4
다른 봉사로 피곤해서	39	5.9	41	6.2	80	12.0
교역자에 대한 실망	8	1.2	13	2.0	21	3.2
회원간의 갈등	19	2.9	40	6.0	59	8.9
기타	25	3.5	22	3.3	47	7.1
합계	308	46.4	356	53.6	664	100

라. 청년부의 현재 상태

<표 19>는 청년들이 실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청년부 활동(혹은 예배)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 19>를 보면, 12퍼센트의 청년들만이 자신이 속한 교회의 청년집회 참석율이 증가 추세라고 응답한 반면, 감소하고 있다는 대답은 증가한다는 응답의 무려 3배 가까이 되는 35.5퍼센트에 달하고 있다.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본 조사에 응답한 청년들이 청년부 활동에 상당히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것을 감안한다면 '현상 유지'라고 응답한 44.1퍼센트중에는 실제로는 감소추세인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⁶⁸⁾

68) 본 연구자가 최근(2014) 사역한 대구지역 대표 3개 교회(N, S, J)의 최근 6개월간의 청년부 출석율과 본 문항의 응답항목을 비교한 결과 현상유지라고 대답한 청년들이 속한 교회는 모두 통계상으로는 출석인원이 감소하고 있었다. 이것은 물론 청년들이 느끼는 감과 실제의 통계 숫자와의 괴리에서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19> 청년부의 현재 상태

성별	남		여		계	
구분	인원수	퍼센트	인원수	퍼센트	인원수	퍼센트
증가	19	4.7	30	7.4	49	12.0
현상유지	91	22.3	89	21.8	180	44.1
감소	66	16.2	79	19.4	145	35.5
모르겠다.	18	4.4	18	3.9	36	8.3
합계	194	47.5	216	52.5	410	100

최근 들어 청년사역에 관심 있는 목회자, 청년사역자는 물론 대부분의 교회에서 청년부서의 침체와 위축현상에 대해 공통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현실과 함께, 청년 자신들도 이러한 청년부 감소 추세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 위의 조사 결과를 통해 분명히 드러난다.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인 청년부서 침체현상 가운데서도 청년부원들이 증가하고 있는 교회들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표19>는 보여준다. 결국 청년부에 대한 관심과 이해, 지원이 있는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 사이에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현실화될 것이라는 생각이다.⁶⁹⁾

마. 교회 내에서의 청년부의 위치와 비중

<표 20>을 보면, 청년들 스스로가 교회 내에서의 청년부의 위치와 비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38.8퍼센트의 청년들이 자신들이 감당하는 역할에 비해 교회의 지원과 배려가 미약함을 토로하고 있고, 6.4퍼센트는 교회가 청년부에 대해 전혀 배려가 없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이것은 청년들의 열심 있는 봉사에 비해 교회가 그에 상응한 배려를 해주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결국 청년부에 대한 교회의 관심이 미약하다는 청년들의 생각을 담은 <표 20>에서 보면 67퍼센트가 <표 19>에서 나타난 청년부의 정체 및 감소현상(79.6퍼센트)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

69) 고석한,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복음과 상황, 2005년 11월호, 71.

다고 판단된다.

<표 20> 교회 내에서의 청년부의 위치와 비중

구분	남		여		계	
성별	인원수	퍼센트	인원수	퍼센트	인원수	퍼센트
매우중요 교회의 기대가 크다	55	13	56	13	111	26
청년이 감당하는 역할에 비해 교회의 지원이 미약하다	78	18	86	20.8	164	38.8
그저 그렇다	42	10	49	11.8	91	21.8
청년부에 대한 교회의 배려가 전혀 없다	16	3	14	3.4	30	6.4
기타	7	1	11	2.7	18	3.7
합계	198	45	216	51.7	414	96.7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 제목처럼 청년들은 인정받고 배려 받고 싶어 한다. 교회가 청년들을 지금보다 조금만 더 인정해주고 배려해준다면 청년들은 충성된 일꾼이 될 것이다. 단적인 예로 청년부 예배를 드릴 때 교회 중직자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격려해주는 것 자체만으로 청년들은 용기를 얻게 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청년부만의 독립된 예배를 신설하고 청년담당 교역자를 청빙해준다면 청년들은 더욱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교회는 앞으로 청년들에 대한 구체적 관심과 배려, 신앙적 양육, 비전제시 등에서 배려와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4. 청년들의 개인 문제와 교회관

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고민하는) 문제

<표 21>은 청년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혹은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는 질문이었는데, 응답결과는 남녀 모두 신앙과 교회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나타났다(29.1퍼센트). 그 뒤를 이어 이성, 결혼 문제 22.1퍼센트, 직장문제 16.9퍼센트, 학교문제 11.1퍼센트, 가족문제 8.8퍼센트 등이었다.

<표 21>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

구분	남		여		계	
성별	인원수	퍼센트	인원수	퍼센트	인원수	퍼센트
직장문제	37	7.9	42	9.0	79	16.9
학교문제	30	13.6	22	4.7	52	11.1
이성/결혼문제	44	9.4	59	12.6	103	22.1
신앙/교회문제	65	13.9	71	15.2	136	29.1
가족문제	13	2.8	28	6.0	41	8.8
건강문제	9	1.9	4	0.9	13	2.8
기타	22	4.7	21	4.5	43	9.2
합계	220	47.1	247	52.9	467	100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젊은 세대들의 현실주의 성향을 들어 이성, 결혼, 직장, 학교 진학 등의 문제가 가장 큰 고민거리일 것으로 생각했으나, 예상외로 신앙, 교회 문제가 제일 큰 관심, 고민거리라는 사실은 예외이면서도 놀랍다. 결국 오늘날 청년들이 갖는 신앙적 갈등이나 교회생활에서 느끼는 여러 문제들이 예상외로 심각하고 큰 부담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본 조사에 응답한 청년들의 86.8퍼센트가 7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고, 92.5퍼센트가 세례자들임을 고려할 때, 청년들이 세상 속에서 가지는 신앙적 갈등이 매우 크고, 또는 교회의 교회답지 못함으로 인해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부정적, 비판적 교회관이 작용했을 수 있겠다고 보인다. 민감한 청년시기에 갖게 되는 이런

어려움들을 교회와 목회자들은 더 큰 관심과 사랑으로 해소시켜주기 위해 애써야 할 것이다.

나. 인생, 신앙문제로 고민할 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사람

<표 22>은 인생, 신앙문제로 고민할 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사람에 관한 조사 결과인데, 청년들은 자신들의 인생, 신앙문제에서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은 친구라고 대답하고 있다(33퍼센트). 그 다음이 목회자 22퍼센트, 부모 15퍼센트, 교사 5퍼센트로 나타났고, 기타에 있어서는 선택으로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결국 청년들의 77퍼센트는 목회자 이외의 사람들과 신앙, 인생문제에 대해 고민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다.

<표 22> 인생, 신앙문제로 고민할 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사람

구분	남		여		계	
성별	인원수	퍼센트	인원수	퍼센트	인원수	퍼센트
친구	58	14	81	19	139	33
부모	28	6	36	8	64	15
교사	18	4	6	1	24	5
목회자	47	11	45	10	92	22
기타	46	11	45	11	91	22
합계	197	47	213	52	410	100

뒷부분의 <표 28>에서 살펴보겠지만, 청년의 거의 대부분이 자기들을 이해하고 상담해 줄 수 있는 목회자를 원하는 것과 비교하면, 현재의 목회자들이 청년들의 이런 바램들을 잘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은 관계형성이 되지 않으면 삶을 나누지 않는다. 그냥 곁들 뿐이다. 그래서 청년목회자들이 3년 이상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할 때에 조금씩 청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목회자들에게 다가오게 된다. 이것을 위해서는 교회에서는 제도적으로 청년 목회자들의 사역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 청년목회자들도 다른 사역의 중간단계가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다. 한국교회에서 시급히 개혁, 개선되어야 할 점들

<표 23>은 청년들이 보고 있는 한국교회의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다. 사실 청년부 침체의 원인을 단순히 교회 청년부의 내적 문제로만 파악하기 보다는, 오늘날 한국교회 전체의 비성경적, 비윤리적인 모습에서 불가피하게 생겨난 결과로 봐야한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그런 점에서 청년들이 보는 한국교회의 부정적 인식들을 분석해보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표 23>에서 보면, 청년들이 보는 한국교회의 개선점들 중 1위는 단연 ‘신앙과 삶의 불일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본 문항이 복수 응답임을 감안하면, 5명 중 3명의 청년들이 이점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난다. 교회에서는 정의를 위해 기도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자고 외치지만, 실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온갖 비리와 물의를 빚는 사건에는 교회나 신자들이 상당수 연루된 것을 보면서 청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결국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오늘의 기성신자들이 고백하는 신앙이 삶의 현장에서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데서 오는 반발이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늘 하나님을 들먹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언급하지만, 그런 신앙의 열심이 실생활과는 아무런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기성세대들에 대해 젊은이들은 바리새인적 위선이라고 외치며 교회를 등지고 있는 것이다.

대학생들의 교회관을 조사한 연구⁷⁰⁾에 의하면, 대학생들이 신앙과 교회 생활에서 가장 회의를 느끼는 경우는 44.5퍼센트가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하고 세속화된 모습을 보였을 때라고 응답하였다.

청년들이 보는 한국교회의 두 번째 문제점은 공동체성과 사랑의 상실이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다. 성경에는 분명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39, 롬 13:9, 레 19:18)고 하셨건만, 오늘날 교회공동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순수하고 참된 사랑보다는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상처받고 깨어진 관계로 인해 아파하는

70) 유해옥 외, “대학생들의 교회관에 관한 소고,” *신학전망* (1999), 61.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한다.

<표 23> 청년들이 생각하는 한국교회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들

구분	남		여		계	
성별	인원수	퍼센트	인원수	퍼센트	인원수	퍼센트
교파주의	36	4	37	4	73	9
개교회주의	8	1	7	0	15	1
대형교회/물량주의	50	6	33	4	83	10
기복신앙	24	3	27	3	51	6
미약한 사회적 책임	37	4	21	2	58	7
독선/편견/이기주의	67	8	62	8	129	16
공동체성/사랑의상실	61	7	76	9	137	17
신앙과 삶의 불일치	91	11	133	17	224	28
기타	2	0	2	0	4	0
합계	376	48	398	51	774	100

같은 신앙인에서 한 하나님과 한 주, 한 성령(엡 4:4-6)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형제들끼리 마치 원수처럼 싸우고 화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잘못된 것이다. 신앙은 영성뿐 아니라 공동체적 삶의 아름다움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⁷¹⁾

이런 부서진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3명 중 1명의 청년들은 교회의 공동체성과 사랑의 회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들이 갖는 부정적 교회관의 세 번째는 독선과 편견, 이기주의에 물든 교회의 모습이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지독한 배타성과 독선을 지적한다. 자신의 종교, 신앙만을 절대시하고 타인의 신앙관, 성서관, 교회관이 나와 다를 때는 여지없이 매도하고 모든 교류를 단절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이러한 폐쇄성과 편견은 교파주의, 개 교회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과 연합을 불가능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교회는 열린 교회로 거

71) 이상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33가지 이유* (서울: 브니엘, 2007), 87.

듭나야 하고 나눔의 철학이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하나 될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을 향해, 불신자들을 향해, 또 타 교파나 타 교회에 대해서 좀 더 포용적이고 열린 교회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청년들이 보는 교회의 과제이다.

청년들은 이외에도 대형교회, 물량주의 10퍼센트, 교파주의 9퍼센트 등의 순으로 한국교회의 아픈 점을 지적하고 있다. 청년들의 때 묻지 않은 순수한 눈이 우리 교회의 약점들을 정확히 지적했다는 생각이며 교회는 청년들의 이런 지적들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제 3 절 설문조사를 통한 일산지역 청년부 활성화 방안내용

1. 청년부 집회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내용

청년집회에서 강조되어야 할 내용을 순서대로 적어 달라는 질문에 대해 최우선 순위로 응답한 항목을 분석한 결과는 <표 24>에서 보는 것처럼, 예배(설교) 37.1퍼센트, 성경공부 32.4퍼센트, 친교활동 15.6퍼센트, 찬양 9.5퍼센트로 나타났다. 앞의 <표 17>에서는 청년집회 참석의 동기와 목적으로 교제를 가장 앞세웠는데 그렇다면 <표 24>의 응답결과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표 24> 청년부 집회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내용

성별	남		여		계	
구분	인원수	퍼센트	인원수	퍼센트	인원수	퍼센트
예배 설교	74	18	78	19.1	152	37.1
성경공부	68	16	65	15.4	133	32.4
찬양	16	4.5	23	5	39	9.5
친교활동	24	5	40	9.6	64	15.6
봉사	12	2	8	2	20	4
기타	1	0.4	2	0.5	2	0.9
합계	195	44	216	50.5	411	94.5

아마 <표 17>에서는 복수로 응답했고 <표 24>는 최우선 순위를 뽑아 분석한 결과라고 본다. 결국 둘을 종합하여 보면 청년들이 청년예배에 나오는 중요한 동기와 목적은 교제와 설교, 찬양, 성경공부 등이지만 이중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것은 예배(설교)라는 것이다. 청년들은 모임을 통해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은 욕구가 강렬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예배와 성경공부라는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년목회자들은 예배와 말씀에 사명을 자기고 준비하고 감당해야 한다.

2. 현재 청년부 활동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

<표 25>는 청년들이 현재 청년부 활동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청년부 활동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으로 첫째는 교제로 29.6퍼센트, 둘째는 선교 28.4퍼센트, 셋째는 말씀 23.4퍼센트 그다음이 봉사8.4퍼센트, 찬양5.7퍼센트 등이었다.

이것은 청년들이 집회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교제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고, 또한 말씀도 지금보다 더욱 잘 가르치고 능력 있게 선포 될 수 있어야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선교가 가장 부족하다는 대답이 28.4퍼센트나 된다는 사실이다.

<표 25> 청년부 활동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

성별	남		여		계	
구분	인원수	퍼센트	인원수	퍼센트	인원수	퍼센트
말씀	48	10.9	55	12.5	103	23.4
찬양	13	3	12	2.7	25	5.7
교제	61	13.9	69	15.7	130	29.6
선교	61	13.9	64	14.5	125	28.4
봉사	15	3.4	22	5.0	37	8.4
기타	14	3.2	6	1.4	20	4.5
합계	212	48.2	228	51.8	440	100

2000년대 이후로부터 한국교회 전체의 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특히 청년부서의 위축이 심해진 것과 관련하여 청년들 스스로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청년시기에는 선교에 대한 비전과 소명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르는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큰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자가 청년사역을 한 결과 봉사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청년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매년 여름과 겨울 단기선교와 봉사활동을 하면 절반 이상의 청년들이 참석을 하고 대부분의 청년들이 기도로 물질로 동참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신교의 청년들이 요즘은 천주교로 이동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봉사와 선교가 개신교에서 약해지기에 청년들은 봉사할 수 있는 자리를 찾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3. 청년부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청년부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담고 있는 <표 26>을 보면, 청년부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소그룹활동의 강화 31퍼센트, 교역자와 청년들 간에 좋은 인간관계유지 24퍼센트, 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20퍼센트, 활발한 행사 11퍼센트, 임원들의 헌신 8퍼센트 등으로 나타났다.

<표 26> 청년부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구분	남		여		계	
성별	인원수	퍼센트	인원수	퍼센트	인원수	퍼센트
교역자와 청년 좋은 인간관계	66	10	94	14	161	24
부서(소그룹)활동의 강화	109	16	99	15	208	31
교회의 적극적인 지원/관심	62	9	70	10	132	20
임원 리더들의 헌신	34	5	22	3	56	8
활발한 행사	31	4	41	6	72	11
기타	13	2	12	1	25	3
합계	315	48	339	51	654	100

이중에서 부서(소그룹)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다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일반적으로 한국교회에 소그룹 활동이 본격 소개된 것은 1990년대 이후 대학생 선교단체들의 성경공부 모임, 교회 청년부들의 조별 모임과 몇몇 교회의 제자훈련 프로그램들이다.⁷²⁾ 그러나 소그룹 형태의 활동구조는 훨씬 오래 전부터 한국교회에서 구역 모임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청년부 활동에서도 조별성경공부, 그룹 기도회, 부서별 활동 등의 효과적인 소그룹활동을 통해 양육과 교제, 전도와 봉사의 영역을 넓혀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청년들이 교역자와의 좋은 인간관계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청년들은 권위적이고 거리감 있는 교역자 보다는 함께 대화하고 친밀하게 상담해주며 삶과 인격을 나눌 수 있는 선배형의 교역자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 위의 표에서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교회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도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담임 목회자의 청년사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거의 필수적이다. 담임 목회자의 젊은이 선교에 대한 소원의 깊이와 안목이 그 교회 청년부의 모습을 결정한다⁷³⁾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닌 것이다.

4. 청년부의 미래에 대한 생각

<표 27>는 청년부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묻는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표로 만든 것이다.

향후 청년부의 미래를 보는 눈은 <표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한 기대와 낙관적 전망이 우세함을 알 수 있다. 점차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24퍼센트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의 16퍼센트보다 훨씬 높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숫자와 상관없이 청년부의 미래를 기대한다는 응답이 27퍼센트에 달해, 청년부활동에 대한 청년자신들의 애착과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년부의 현재 추세는 감소경향이 뚜렷한데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은 결코 비관적이지 않다는 사실이다. 결국 현재 한국교회 청년부의 전반적 침체 현상의 주된 이유는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무관심과 지원 부족 때문이지, 청년들이 청년부 자체를 외면한 때문은

72) 양형주, *키워드로 풀이가는 청년사역* (서울: 홍성사, 2005), 145.

73) 고직한, “목회자가 변화면 청년 목회가 산다,” *목회와 신학*, 2003년 6월호.

아니란 것이 뚜렷해진다. 다시 말해, 교회와 지도자들이 청년부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충분한 배려와 새로운 소프트웨어들을 제공할 수 있다면 교회 청년부는 다시금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청년들이 바라는 예배의 갱신, 공동체성의 회복, 새로운 비전의 제시 등 성서적이고도 신선한 바른 목회의 모습이 회복되면, 구태의연하고 고루한 폐쇄적 교회에 실망하여 교회를 등졌던 청년들은 다시 교회 안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표 27> 청년부의 미래에 대한 생각

성별	남		여		계	
구분	인원수	퍼센트	인원수	퍼센트	인원수	퍼센트
점점 늘어난다	49	12	48	12	97	24
현상 유지	36	9	31	7	67	16
점차 줄어든다	36	13	56	14	110	27
숫자와 상관없이 기대가 된다	54	13	56	14	110	27
전혀 기대할 것이 없다	1	0	1	0	2	0
모르겠다	12	3	28	7	40	10
기타	6	1	4	1	10	2
합계	194	48	203	51	397	100

5. 바람직한 청년부 교역자(지도자)상

<표 28>은 바람직한 청년부 교역자(지도자)상의 설문 조사 결과이다.

<표 28>을 보면, 청년들이 바라는 교역자상으로는 청년들을 사랑하는 사람 36퍼센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28.6퍼센트, 기도의 능력자 12.3퍼센트, 좋은 상담자 10.5퍼센트 등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설교와 성경공부를 잘 가르치는 사람은 합해서 겨우 9.9퍼센트, 음악/찬양인도자는 0.9퍼센트에 불과했다.

이것은 <표 26>에 나타난 것처럼, 교역자와 청년들의 좋은 인간관계가 청년부 활성화의 중요한 요소라는 응답과는 매우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28>바람직한 청년부 교역자(지도자)상

성별	남		여		계	
구분	인원수	퍼센트	인원수	퍼센트	인원수	퍼센트
설교를 잘 하는 사람	19	2	15	2	34	4.6
성경공부를 잘 가르치는 사람	23	3	18	2	41	5.3
기도의 능력자	37	5	54	7	91	12.3
청년들을 사랑하는 사람	119	16	148	20	267	36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	109	14	103	13	212	28.6
음악/찬양 인도자	3	0.4	4	0	7	0.9
좋은 상담자	33	4.5	45	6	78	10.5
기타	6	0.8	5	0	11	1.5
	34.9	47.1	392	52	741	100

청년들은 설교를 잘 하는 것보다도 먼저 자신들을 이해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제 1순위로 꼽았다는 사실을 볼 때, 청년부 교역자들은 우선 청년들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 마음을 열고 인격적인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표 28>에서 자신들을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상담자를 원하는 청년들이 무려 46.6퍼센트나 된다는 것은 대부분의 응답자가 이런 교역자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28.6퍼센트를 차지했다는 것은 응답자의 과반수가 비전제시능력을 바람직한 교역자 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교회는 ‘열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영감’이 부족하다는 말이 있다. 비전의 빈곤이 젊은이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만든다. 청년들을 제도와 조직으로 얹어매는 것이 아니라 꿈과 비전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청년부 부흥의 또 하나의 열쇠이다.⁷⁴⁾

74) 이상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33가지 이유*, 121.

제 5 장

청년 사역 활성화를 위한 목회 방안

앞 장에서는 일산지역 청년교회 설문조사를 통한 청년 사역의 실태와 문제점들을 파악해보았다. 이제 본 장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토대로 균형 잡힌 청년 사역 성장을 위한 목회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별히 본 연구자가 사역했던 일산의 승리교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먼저, 일산승리교회 목회 현황을 파악할 것이며, 이후에 일산승리교회 청년대학부 성장을 위한 목회 방안을 구체적으로 도모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산승리교회의 청년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내릴 것이다.

제 1 절 일산 승리 교회 목회 현황

본 절에서는 일산승리교회의 간략한 역사와 승리교회 청년대학부의 전반적인 소개를 하게 될 것이다.

1. 일산 승리교회 소개

일산 승리교회는 1980년에 설립되어 2014년 기준으로 34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이다. 1대 담임 목사였던 장향희 목사의 뒤를 이어 현재 2대 담임 목사인 진희근 목사께서 15년째 아름답게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행복한 교회이다. 승리교회는 일산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는 일산서구 호수공원 앞에 위치한 아름다운 교회이며, 일산 복음화를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있는 교회이다.

특히 승리교회는 신앙의 명가를 세우는 교회, 선교의 역군을 키우는 교회,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라는 3대 비전을 중심으로 1980년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하

나눔 나라 구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승리 다문화 비전센터를 건립하여 이 땅에 찾아온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외국인유학생, 전문인력 등에 대한 다문화선교의 비전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승리교회의 2014년 현재 출석 교인은 장년 3000명, 교육부 1200명, 청년 160명 외국인 노동자 200명 총 4560여명이 출석하고 있다. 출석인원에 비해 본당 건물의 제한성 때문에 매주 예배를 본당 바로 옆 영상과학 고등학교 강당을 대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교육부 건물은 본당에서 가까운 건물을 구입해서 승리 비전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은 다문화 센터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정이다.

승리교회는 1대 담임목사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잠시 침체기가 있었지만 2대 담임목사인 진희근 목사의 인격적이고 화평을 추구하는 목회적 마인드와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 전도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다.

2. 일산 승리교회 청년대학부 소개

승리교회는 2000년대 중반까지 교회 성인 출석이 2000여명 정도이고 청년이 교회 전체 재적 인원의 250여명인 것에 비하여 순수청년 예배 출석은 50명 미만이었다. 예배는 본당에서 4부예배로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그러다가 성인 출석인원의 증가로 본당에서 분리되어서 승리 비전 센터에서 청년부 단독으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본 연구자가 2010년에 부임할 당시까지 60-70여명 정도가 모여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셀(소그룹) 모임, 및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2013년 본 연구자가 사역을 내려놓을 때쯤 재적 200명 중에서 매주 150여명의 청년들이 예배에 출석하고 있었으며 100여명의 청년들이 소그룹 모이고 있었다. 현재는 160여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승리교회 청년부는 본 연구자가 사역할 당시에는 철저하게 하우스다이어그램에 근거해서 한 개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예배자로 회복되어 강한용사가 되어 내가 있는 그곳이 땅 끝임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양육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특히 큐티와 성경 읽기 예배일기를 기초로 하여 다윗처럼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꿈꾸며 큐티와 설교 소그룹을 하나로 연결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고, 금요기도회와, 수련회,

전도축제, 아우리치를 통하여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의 꿈을 품고 달려가고 있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주중에는 서울이나 인근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다가 주중이 되면 베드타운 개념으로 교회를 오고 있다. 또한 청년담당 목회자가 청년부와 교육부 사역을 겸하기 때문에 청년부 사역에 올인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승리교회 청년부는 청년담당 목사 1명과 찬양전도사님 1명, 청년담당 장로와 부장집사로 청년부를 섬기고 있으며, 청년부 리더 그룹은 새 가족부와, 고등부를 졸업 후 26세까지 청년모임을 아랫마을이라고 명칭하고, 27세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청년모임을 윗마을이라고 명칭하고 있다. 아랫마을에는 두 명의 마을장과 8명의 셀장들이 있고, 윗마을에는 한명의 마을장과 4명의 셀장들이 있으며, 새 가족에는 한명의 마을장과 2명의 셀장들이 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본 연구자는 나름대로 청년대학부 성장과 부흥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으며, 앞에서 열거한 청년대학부 성장과 부흥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부흥과 성장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목회 방안을 일산승리교회를 중심으로 다음 절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제 2 절 일산승리교회 청년부 활성화를 위한 목회 방안

본 절에서는 균형잡힌 청년부 성장을 위한 일산승리교회 청년대학부 활성화를 위한 목회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청년대학부의 핵심가치를 담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은 'young2080 청년목회자 연합 선교단체'에서 제시하는 하우스 다이어그램을 참고하며, 승리교회 청년대학부 상황과 대상에 맞게 현재 운영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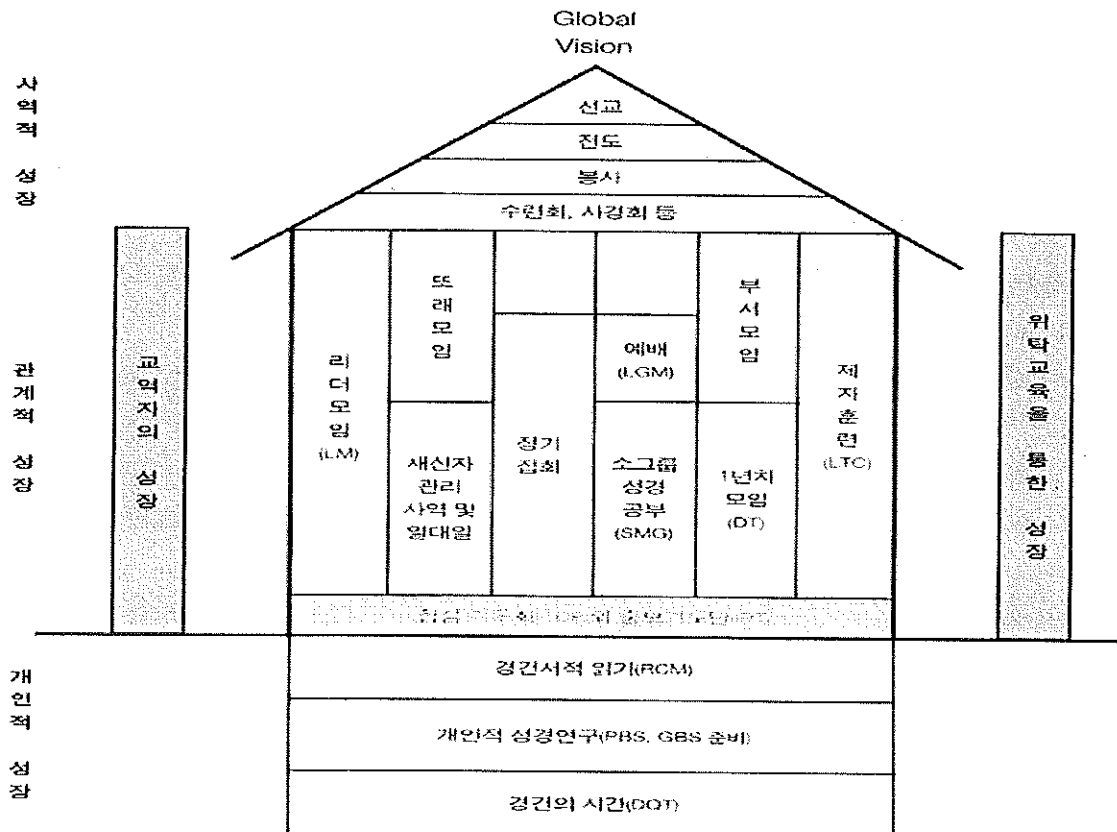
1. 일산승리교회 청년부 조직(하우스 다이어그램)과 목회철학(비전)

<표 29>의 하우스 다이어그램이란 청년사역 전문가인 고직한 선교사가 균형 있는 청년사역을 위해서 있어야 할 조직적인 요소들을 도식화한 그림이다. 이 청사진은 비단 큰 규모의 청년 대학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중소 규모의 청년 대학부를 세우는 데도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척 단계에 있는 청년대학부라 하더라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일단 제대로 된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청사진을 바탕으로 집을 짓듯이 단계를 밟아 점진적으로 각 부분을 쌓은 것이 중요하다.

우선 이 하우스 다이어그램은 청년대학부의 존재론에 입각하여 공동체를 통해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고 청년대학부가 교회의 한 지체로서 역할과 사회와 세계를 위한 복음적인 대안적 공동체로 자라가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청년대학부의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사용할 소프트웨어를 집어넣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도구들을 개발 또는 적합한 것을 개량하는 것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휴먼웨어를 준비시켜서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기름 부으시도록 스피릿웨어를 만들어 가는 데 중요한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한다.⁷⁵⁾

<표 29> 하우스 다이어그램(young2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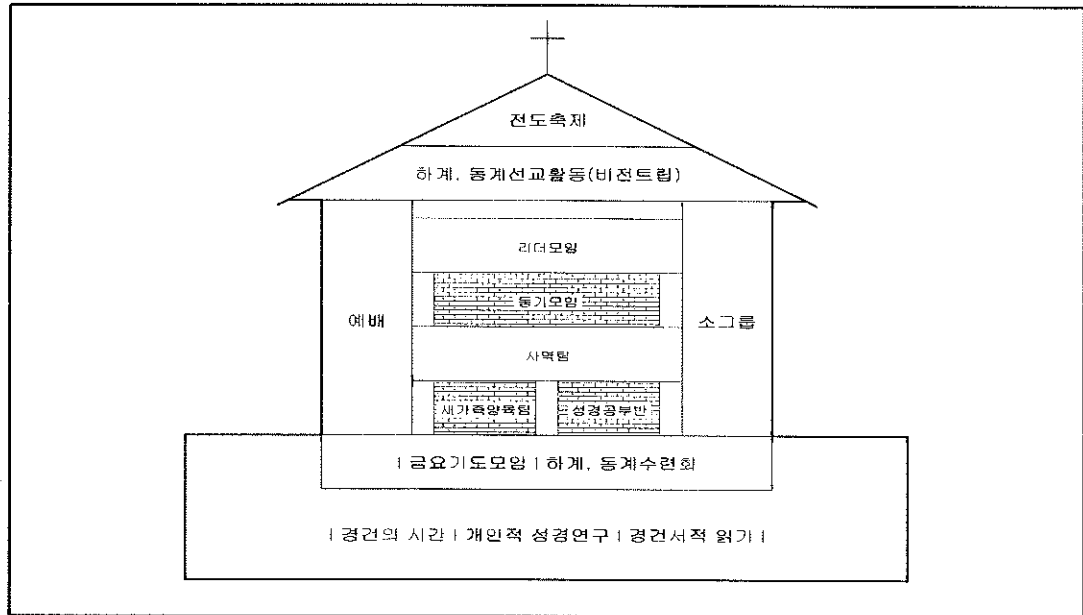


75) 고직환, *청년사역 맨땅에 헤딩하지 말자*, (서울: 홍성사, 2003), 14-15.

가. 조직(하우스 다이어그램) 소개

승리교회 청년부는 <표 29>의 하우스 다이어그램을 참고로 해서 승리교회 청년부 조직을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다.

<표 30> 승리교회 청년부 하우스 다이어그램



(1) 개인적 성장

(가) 경건의 시간(큐티), 개인적 성경연구(성경읽기), 경건서적 읽기

청년들이 개인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가장 기초는 바로 큐티이다. 큐티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며, 주의 형상을 닮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분주한 삶의 현장을 뒤로하고 조용히 하나님과 만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개인예배 시간이자 개인영성 훈련의 시간이다. 단순히 습관적으로 하는 종교행위가 아니라 실생활에 필요한 활력을 얻는 인격적인 교류인 것이다. 그러나 큐티는 하나님과 단 둘이 만나 교제하는 시간이지 성경 읽기나 성경연구 또는 기도회 시간이 아니며, 공동예배는 더더욱 아니다. 따라서 큐티가 공동예배를 대신할 수는 없다. 청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돕기 위해서는 교역자가 큐티 지도를 직접 해야 한다. 청년들이 개인적으로 회복되며 그리스도의 형

상을 닦아 가고 그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교역자는 자신이 먼저 매일의 큐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고, 청년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혹은 모임 중에 큐티를 나누는 시간들을 통하여 모범을 보여야 한다. 또 설교를 준비할 때는 큐티를 통해 설교를 구상하고, 큐티 본문으로 설교 혹은 강의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큐티는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지속적인 훈련과 인내가 필요하므로 교역자가 끊임없이 격려해야 한다.

(나) 개인적 성경연구

큐티와 성경연구는 기도와 더불어 개인의 영적 성장과 경건 생활을 풍성하게 해주는 자원이 된다. 그리고 소그룹 성경공부와 병행하여 개인 성경 연구를 하게 되면 그 효과는 배가 된다.

개인 성경연구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한 것이 성경 읽기이다. 앞 장의 <표 9>에 보면 청년들의 통독횟수가 나와 있는데, 그 표를 보면 한 번도 성경을 통독하지 못한 청년들이 50.7퍼센트나 된다. 3번 이상이 15.4퍼센트이다. 절반이상의 청년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경읽기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 이면서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는, 연애편지를 읽는 것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몇 번씩 읽으며 무슨 의미인지 곱씹어야 한다. 그리고 관찰하고 해석한 뒤 적용해야 한다.

(다) 신앙서적 읽기

경건서적 읽기는 큐티와 개인 성경공부와 함께 균형잡힌 청년부를 세우는 기초에 해당한다. 좋은 책 한 권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경건서적을 읽고 토론하는 것은 청년대학부의 토대를 세우는 일에 해당한다. 독서 지도는 대상과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 질 수 있지만,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영적 각성과 부흥, 지상명령의 성취, 선교한국, 성서한국, 통일한국을 주제로 한 필독서 목록을 제시해야 한다.⁷⁶⁾

76) 고직한, *청년사역 맨땅에 헤딩하지 말자*, 46.

(2) 관계적 성장

(가) 양대 기둥으로서 예배와 소그룹 모임

청년공동체에서 예배와 소그룹은 전체 조직을 떠받치는 가장 기본적인 조직이다. 예배는 소그룹과 더불어 전체 청년부의 조직의 기둥 역할을 한다. 예배는 청년부의 모든 조직을 살어나게 하는 영적 전력발전소이다. 소그룹은 예배와 더불어 청년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조직의 또 다른 기둥이다. 소그룹 조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 가운데 구체적으로 구현하도록 돕고 지원하는 조직이다. 예배와 소그룹 모임이 청년부의 양대 조직인 만큼, 가능한 이 둘이 균형있게 자라 가도록 힘써야 한다.

(나) 리더모임과 동기모임

청년사역 조직에서 예배와 셀을 든든하게 도와주는 버팀목으로 리더모임과 동기모임이 있다.

리더모임: 청년사역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좋은 리더들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 리더모임은 교역자가 직접 인도하고, 리더만큼은 교역자가 직접 관심을 갖고 점검해야 한다.

동기모임: 청년대학부를 수평적으로 지지해 주는 모임으로 동기모임, 즉 또래모임이 있다. 장년조직으로 말하면 남전도회 여전회에 해당할 것이다. 동기모임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 새로 들어오는 동기들을 환영하는 것이다. 새신자가 처음 와서 정착할 때 동기들이 있으면 동기라는 이유로 동기모임에서 서로를 챙겨 주고 관심을 가져준다. 이러한 관심과 친근함이 동기모임을 더욱 끈끈하게 만든다.

(다) 성경공부반, 새 가족반, 사역팀

이 조직들은 예배와 소그룹을 지탱하고, 외부의 바람을 막아 주기 위한 여러 벽돌이다. 성경공부반은 초신자의 경우, 6주간의 신앙 기초 공부로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기존신자의 경우, 12-16주의 성경공부를 통하여 기본적인 사함을 공부한다. 성경공부반은 소그룹 나눔과 같이 모두 참여하지 않고, 희망자에 한해 공부한다. 이러한 성경공부는 선택적이기는 하지만 예배와 셀 모임을 더욱 풍성하게 하며, 잠재적인 리더 형성에 기여한다.

새 가족팀: 새 가족을 양육하고 셀에 배치하여 적응할 때까지 도와주는 새 가족팀이 있다. 새 가족팀의 리더는 10-15명으로 구성된다. 새 가족팀의 양육과정은 원래 6주였는데 새 가족이 많이 와서 기존의 양육 리더만으로는 교육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양육과정을 4주과정의 새 가족 교재를 새롭게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

새내기 모임: 매년 초, 고등부로부터 새내기들이 올라온다. 이때 이들을 집중적으로 붙잡고 지도하지 않으면 자칫 흩어질 수 있다. 그래서 매년 초 고3이 청년부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새내기 모임을 구성하여 이끌어 간다.

사역팀: 기존 소그룹 조직이 아니라, 은사에 따라 다양하게 섬기는 사역팀이 있다. 사역팀에서는 청년부와 대학부의 구분 없이 함께 모여 어울리며 사역한다. 각 사역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내모섬 찬양팀: 청년예배 및 기타 찬양집회 때 찬양을 인도하며, 청년공동체에 다양하고 깊이 있는 찬양 문화를 보급한다.

주보, 영상팀: 주일예배 때 예배 순서와, 한 주간의 따뜻한 소식들을 주보에 남기고, 모든 행사를 문서로 영상 기록으로 남기며, 영상 홍보물을 편집하는 선교팀이다.

워십댄스팀: 주일예배와 각종 행사에 댄스로 섬긴다.

중보기도팀: 매주 금요일 리더모임전, 주일 예배 전에 모여서 청년부를 위해서 중보하는 팀.

밥퍼팀: 매주 토요일 새벽에 서울역에 나가서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밥과 국을 대접하는 봉사팀

새 노래 찬양대: 아름다운 영혼의 화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팀

(라) 금요 중보기도, 하계, 동계수련회

금요 중보기도: 청년 대학부의 폭발적인 영성의 근원지다. 청년부의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주 금요일 1시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다.

하계, 동계수련회: 새 해에 새로운 조직들을 견고하게 하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여, 예배를 더욱 든든하게 세우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하계 수련회를 통하여 후반기 사역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 나가는 원동력을 가지는 역할을 한다.

(3) 사역적 성장

(가) 전도축제, 비전트립

청년대학부를 세우는 과정은 야구장과 비교할 수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청년대학부들은 홈에서 출발하여 1루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 과정에서는 복음전도와 기초양육, 즉 새 가족반을 운영하고 교육프로그램들을 실시해 회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1루 진출까지라도 잘 도와주는 공동체는 성장한다. 그리고 이 1루 진출에 성공한 청년대학부는 제자훈련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2루로 달려가야 한다. 훈련된 소그룹 리더들을 배출해서 소그룹을 정착시키면서 공동체 전체가 다양한 전도방법으로 생명을 낳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⁷⁷⁾

그리하여 공동체가 전도자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2루에 진출한 공동체는 영혼이 변화된 간증이 있고 영혼을 낳은 기쁨이 있으며 영혼을 귀히 여기는 소중한 관계들이 있다. 그다음엔 3루로 진출하여 모든 회원들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과정에는 어떤 기초적인 세계선교 훈련프로그램이나 세계선교 체험의 장이 있어야 하며, 모든 회원들이 글로벌비전과 관련해서 일종의 비전을 품은 사람이 될 것을 강조해야 한다.⁷⁸⁾

모든 사람들이 직업적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지에 갈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선교에서 제외 될 수는 없다. 청년대학부 전체가 세계선교의 비전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 세계선교를 위해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무릎 선교사가 되어서 골방에서 열방을 품고 미전도 부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⁷⁹⁾ 그러면서 세계선교 쪽에 더욱 소명이 있고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킨 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홈까지 들어온 공동체의 결과적인 모습은 1퍼센트의 선교하는 사람과 나머지 99퍼센트의 선교를 후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77) 황규복, *준비된 선교사*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2009), 101.

78) 고직환, *청년사역 맨땅에 헤딩하지 말자*, 244.

79) 이재환, *미전과서블* (서울: 두란노, 2003), 333.

나. 청년부의 특성 및 목표

(1) 특성

첫째, 20, 30대를 감동시키는 문화적 예배를 드리기

둘째,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케 하는 제자양육을 하기

셋째, 생명을 나누는 현장중심의 전도 공동체를 만들기

(2) 목표

첫째, 신 사도행전의 비전 - 사도행전 29장을 함께 써내려가는 공동체

200명이 모이는 청년 예배 공동체를 만들자.

100명 이상 비전트립(국내 국외)에 참석하는 공동체를 만들자.

30명의 훈련된 소그룹 리더를 양성하자.

둘째, 옥토 비전 - 좋은 마음밭이 되는 공동체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에 3장 이상 말씀 읽고, 저녁에는 예배일기를 쓰는 말씀공동체가 되자.

매년 신구약 일독 하는 공동체가 되자.

모든 청년들이 가르치던지 배우던지 둘 중 하나를 하는 공동체가 되자.

셋째, 무지개 비전 - 다양한 은사로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

모든 청년들이 각 팀에 소속되어서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자.

건강한 30개의 소그룹 및 10개의 팀 사역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교회, 세상) 영향력 있는 아름다운 청년들이 되자.

2. 청년대학부 활성화를 위한 목회 방안

본 항에서는 실제적인 일산승리교회 청년대학부의 균형잡힌 목회 방안으로 복음 선포와 이해, 개인 성경공부 발전, 대그룹 사역과 소그룹 사역의 발전, 청년 전도의 발전을 하는 것으로 나누어서 논의하고자 한다.

가. 복음 선포와 이해

구원을 받으려면 정확한 복음을 들어야 한다. 내가 필요한 예수, 소원성취를 위

한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예수를 만나야 한다. 그리고 복음을 들었다면 죽은 지식이 아닌 살아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정말 믿는다면 그 내용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교회의 시작은 복음으로 시작해야 한다. 복음이 바로 선포되어야 하고 복음을 바로 받아드려야 한다. 왜 교회가 힘이 없는가? 많은 사역이 있고 소리는 요란한데 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가짜를 만났기 때문이다. 진짜를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고 진짜를 만나면 살아나게 된다.

본 연구자도 사역 초기에는 이러한 복음에 대한 이해와 선포가 매우 약하였다. 그래서 사역을 하면 할수록 힘들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말은 많이 하는데, 감동은 있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었고, 사역 후에는 곤고하고 때마침 나의 모습이였다. 그러나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고부터는 목회 스타일과 말씀 선포양식이 바뀌게 되었다. 그것은 그 무엇보다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었다. 풀러신학대학원 원로교수인 김세윤은 복음이란 무엇인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이 약속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거나 또는 그 한 측면만을 왜곡한 채로 이해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하여 복음이 주는 실재를 누리지 못하며 올바른 제자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⁸⁰⁾

복음이란 무엇인가? 성경의 언어로 한 마디로 표현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일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로 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 소식이 기쁨소식이요, 위대한 “복음”이다.⁸¹⁾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의 사건으로 선포하며 그것을 ‘복음’이라고 한다. 다른 것보다 가장 두드러진 공통점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모두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죄인

80)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11), 8.

81) Ibid., 212

들을 불러 모으고 적대자와 논쟁하고 그들에게 체포되고 재판받고 십자가에 처형되고, 부활하는 것이 같다는 말이다. 이러한 복음의 인식이 전제 되지 않은 잘못된 복음, 즉 유사 복음이 한국교회를 멍들게 했고, 맘몬 우상에 빠지게 했음을 부인 할 수 없다.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는 교회의 시작이며, 청년사역의 기초인 것이다.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정말 값비싼 복음의 대가를 치루고 온 것이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열정과 희생과 믿음은 발 벗고 뛰어도 따라갈 수 없다. 기성세대의 신앙에 대해 비난도 있지만 집을 팔아서 교회를 짓는 헌신이 기성세대에는 있었다. 청년들은 뜨겁기는 하지만 이런 헌신은 못 따라가고 있다. 지금 청년사역자들이 해야 될 것은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을 가진 청년들에게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해서 완전히 복음으로 깨버리고 체질개선을 하는 것이다. 더욱 철저히 복음에 입각한 희생과 헌신, 공동체적인 삶,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좀 더 순전한 복음과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해야 한다.

본 연구자가 사역한 지역은 일산 신도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일산에서 가장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고 백화점과 쇼핑몰 식당, 특히 중 대형 교회가 밀집해있는 지역이다. 올해 35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50주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대형교회이다. 특히 승리교회는 교회라는 이름도 유명하지만 승리 비전센터, 승리 다문화센터가 더 유명한 교회이다. 승리교회의 역사는 바로 다문화센터의 역사라고 해도 무방한다. 교인들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대졸 학력 이상의 고학력자인 부모와 자녀로 구성되어있고, 의사, 정치인, 교사, 사업등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출석하고 있으며, 자녀교육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타 지역으로 대학을 가는 추세에 있다. 그러다가 보니까 대형교회에 대한 감사와 기쁨도 있지만 복음에 대한 안주함과 만족감이 너무 큰 것 같다. 그래서 원색적인 십자가와 부활, 예수를 온전히 생명을 걸고 전하고 따르는 복음의 기본이 약한 것이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승리교회를 출석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편하다는 것이다. 좋은 말일수도 있지만 복음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고도 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승리교회에 부임하자 말자 첫 설교부터 “복음의 능력과 축복” 시리즈 설교를 10회에 걸쳐서 전하였다. 처음에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왜 저렇게 길게 설교하는지 의아해 하고 힘들어했지만 시리즈 설교가 진행될수록 청년들이 변화

기 시작했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새 가족 들이 처음 오면 하는 새 가족 성경공부 교재를 복음중심 교재로 새롭게 바꾸어서 다시 한 번 복음을 점검하게 하였다.

(1) 새 가족을 복음으로 가르치라

새 가족반은 청년대학부에 처음 온 사람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다. 처음 오는 이가 많다면 담당리더를 두고, 그렇지 않다면 담당교역자가 새 가족반을 맡는다. 본 연구자가 일산승리교회에 처음 부임한 첫 해에는 4명의 새 가족 리더들과 함께 새 가족반을 함께 맡아서 운영을 하였다. 교역자가 함께 있으면 처음 온 청년들이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본인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정착률이 더 높은 것 같았다.

새 가족을 처음 맞은 주에는 청년대학부를 살펴보고 그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마련해 마음 문을 열게 하고 회원등록카드 등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을 파악한다. 둘째, 셋째 주는 복음에 대한 성경공부나 강의를 하고 넷째 주에는 둘째 주와 같이 공부한 뒤 등반 축하를 해 주는 시간을 갖는다.⁸²⁾

특히 일산승리교회 새 가족의 독특한 특징은 새 가족이 처음 오면 등반할 소그룹 원들 중에 부리더급이 되는 소그룹 원이 4주 동안 함께 새 가족모임을 하게 한다. 그렇게 하면 새 가족을 졸업하고 난 후 소그룹에 올라갔을 때 어색함도 없어지고 쉽게 소그룹에 정착하게 된다. 본 연구자가 처음 청년부에 부임해서 한 작업이 바로 복음을 중심으로 한 새 가족 성경공부 교재이다. <표 31>은 일산승리교회의 새 가족 교재 구성을 표로 만든 것이다.

새 가족반을 마친 후에도 1-2개월 동안 새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사람과 일대일로 연결시켜 도와주도록 한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서 큐티 또는 신앙서적을 읽은 소감 또는 기도제목을 나눔으로써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2) 고 3을 복음으로 맞이하라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고등부와 청년대학부의 연계성 문

82) 고직한, *청년사역 맨땅에 헤딩하지 말자*, 199.

제이다. 아동부에서 고등부까지는 교육의 연계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지만, 고등부를 졸업하고 청년대학부로 올라가는 것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20퍼센트를 넘지 못하고 있다.⁸³⁾

<표 31> 일산승리교회 새 가족 교재 구성

1	첫째걸음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나는 누구인가요?
2	둘째걸음 -믿음이란 무엇인가?
3	셋째걸음 -신앙의 공동체는 왜 중요한가요?
4	넷째걸음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수능이 끝나고 새로운 세계에 입문할 준비를 하는 고 3학생들을 잘 잡아 주는 것은 여러 면에서 중요하다. 해방감으로 인해 방종하기 쉽고 수능의 결과 때문에 여러모로 불안해 할 수 있으므로 이 시기에 학생들을 잘 끌어 주면 그들이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성숙될 수 있다.

청년대학부는 고 3 학생들이 청년대학부의 관심을 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고, 학교나 직장이 결정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격려하여 고 고 3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세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청년대학부에 대해 마음을 열게 된다. 하지만 고 3학생들은 아직까지 고등부 소속이므로 고등부와 잘 협의하여 일을 준비한다.⁸⁴⁾

일산승리교회는 청년부에 올라오기 1년 전부터 고등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고등부 사역에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청년부 사역에 고등학교 3학년을 초대해서 친교의 시간을 가지고 청년들 또한 고등부 사역에(수련회와 여러 행사)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청년들이 고등부의 교사와 멘토로 섬길 수 있도록 고등부와 잘 협의하고 있다. 그래서 청년부와 고등부는 지속적인 연합된 사역을 통해서 친근한 부서로 발전하여 자연스런 연계성 구축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청년대학부 1년차 모임은 교역자뿐만 아니라 교역자가 가장 신뢰

83) 고직한, 김동호 외 4인 청년목회자연합. *청년대학부 TNT 부흥*, 109.

84) Ibid., 203.

하는 리더(2대 선배 2명)에게 맡겨서 1년 동안 양육을 한다. 특히 1년차 모임에서 가장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은 교역자와 함께 하는 복음 새 가족 성경공부 시간이다. 새 가족 리더들에게 맡기지 않고 교역자가 직접 6주 동안 1년차들과 함께 성경공부와 교제를 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전달한다. 또 한 가지는 1박2일 리트릿 시간이다. 이 시간에는 교역자, 부장(장로 포함), 임원 리더들이 모두 참석해서 1년차들과 친하게 지내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복음에 대한 집중적인 성경공부 시간을 가진다.

이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청년부에 정착시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포기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1년차 들을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는 것이다. 이 사역을 위해서는 최소 1년 전부터 미리 고등부와 연계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청년부의 정착을 이루어야 한다.

나. 개인 성경공부의 발전

(1) 청년대학부의 큐티훈련

청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돕기 위해서는 교역자가 큐티 지도를 직접 해야 한다. 청년들이 개인적으로 회복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가고 그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교역자는 자신이 먼저 매일의 큐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고, 청년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혹은 모임 중에 큐티를 나누는 시간들을 통하여 모범을 보여야 한다. 또 설교를 준비할 때는 큐티를 통해 설교를 구상하고, 큐티 본문으로 설교 혹은 강의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큐티는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지속적인 훈련 과 인내가 필요하므로 교역자가 끊임없이 격려해야 한다.

큐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상황에 맞는 큐티교재를 선택하여 모든 회원이 같은 교재로 큐티하는 것이 좋다. 승리 교회에서는 Young2080에서 만들어지는 *큐티진*이라는 교재를 통해서 큐티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큐티를 나눌 수 있게 되고, 개개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서 듣게 됨으로써 은혜를 맛볼 수 있다. 또 교역자는 공동체를 동일한 정신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을 제공받을 수 있다.

개인 큐티 후에는 서로 나눌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청년대학

부 모임(정기집회, 기도회, 제자반, 리더모임)에서 큐티를 나누는 장을 마련하고 설교 중에는 큐티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이 좋다. 또 리더들은 소그룹성경공부를 할 때 큐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자연스럽게 상호점검을 할 수 있다. 또한 큐티는 일주일에 7회를 의무로 하기보다는 3-4회 정도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주보나 회지가 나올 경우에는 큐티에 관한 글이나 큐티 샘플을 제시하여 함께 은혜를 나눌 수도 있다.

본 연구자가 사역한 청년부는 여름과 겨울 방학이 되면 매일 새벽기도 후 1시간에서 2시간정도 큐티모임과 큐티 훈련을 했다. 직장인들은 큐티모임 후에 출근을 했으며 대학생들은 공동 큐티 모임 후에 개인적인 큐티훈련을 교역자와 함께 하였다. 그리고 학기 중에는 교역자가 큐티한 내용을 SNS에 개설된 큐티방에 올리면 소그룹 리더들도 일정한 시간에 올리게 해서 검사를 하고, 각 소그룹별로 큐티방을 만들어서 리더가 큐티를 올리면 모든 소그룹 원들이 큐티를 서로 확인하고 나누게 하여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고 나눔으로 하루를 마무리 하는 청년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큐티훈련을 위하여 큐티학교나 일일세미나를 수시로 개설하여 회원들의 큐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교역자 혹은 리더 중에 한 사람이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외부 강사를 초빙하거나 외부에서 개설하는 큐티 세미나에 참석할 수도 있다. 승리교회에서는 매달 마지막 주에는 소그룹 모이지 않고 큐티의 날로 정해서 교역자가 큐티 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하고, 각 소그룹 별로 큐티간증을 하며, 한달동안 가장 큐티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 다음 달 큐티 교제비를 면제 해주는 시간도 가진다. 그리하여 끊임없이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큐티에 대해서 강조한다.

이러한 청년부 안에서의 큐티의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큐티를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다. 공부에 왕도가 없는 것처럼 큐티에도 왕도가 없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25년 이상 큐티를 했지만 때로는 한 달 동안 큐티를 하지 못한 적도 있고, 율법적으로 할 때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큐티맨이라고 자부하는 이유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난 시간 하지 못한 것은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했기에 오늘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다시 시작하는 것이 큐티를 활성화 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2) 청년대학부의 예배일기

큐티라는 단어는 한국교회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진 단어이지만 예배일기라는 단어는 다소 생소할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배는 주일 공식 예배를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예배 때 들려지는 말씀을 듣고 기록한다. 그러나 이내 잊어버린다. 예배는 삶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주일예배의 능력으로 한주동안 그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 주일 하루만 예배자이고 주중에는 그리스도인이 향기가 없다면 과연 크리스천일까 고민이 된다. 예배가 삶이 되기 위해서는 죄와 싸우며 피 흘리기 까지 싸우는 훈련이 필요하다. 사도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라고 말하고 있다. 동일하게 우리도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 뿐 아니라 매일 매일 큐티와 개인 경건시간을 가져야 한다.

예배일기는 개인 경건훈련의 한 종류이지만 큐티와 더불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소중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매일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인 연습을 위해서 하루의 삶을 일기로 기록을 한다. 예배일기는 우리의 영을 훈련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일기이다. 다시 말하면, 삶이 예배가 되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자가 사역한 승리교회에서는 복음설교, 성경공부, 큐티와 동시에 예배일기를 가르치고 있다. 하루의 시작을 큐티로 시작한다면 하루의 마지막을 예배일기로 마무리 할 수 있다. 승리교회에서는 모든 청년들이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먼저 임원 리더들이 의무적으로 큐티와 예배일기를 기록해서 교역자에게 매주 리더모임 때 제출하고 있다. 물론 교역자도 제출을 해서 나눔을 가지고 있다. 처음에는 모두 부끄러워서 숨기고 나눔이 쉽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큐티와 예배일기 나눔을 통하여 정직한 삶이 회복되었고 서로를 신뢰하게 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게 되었다.

예배일기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기록하는 일기이다. 큐티나눔과 비슷하지만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대학노트 수준의 일기장이 필요하다. 처음에 기록할 때는 1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기록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록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직함이다. 많이 기록할 필요는 없다. 정직하게 하루의 삶을 기록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배일기를 돕기 위해서 아래의 6가지 순서로

기록하면 더 좋다.

- 오늘 하루 중에 일어난 감사를 기록한다.
 - 내가 부른 찬양을 기록한다. 제목도 괜찮고 가사전체도 괜찮다.
 - 선포를 한다. 하나님을 향하여 힘 있게 선포하는 마음으로 기록한다. 마치 시편에 기록된 내용처럼 선포 한다
 - 회개를 한다. 중요한 것은 생각나는 것만 기록을 한다.
 - 중보기도를 한다. 매일 중보기도 할 대상을 정해서 기록을 한다.
 - 마지막 결단을 한다.
- 위의 6가지 순서에 맞추어서 하루의 일과를 기록하는 것이다.

예배일기 예)

① 감사-하루 동안 일어났던 감사내용을 기록한다.

ex)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 할 수 있도록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내와 함께 찬양하고 산책할 수 여유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을 주셔서 하루의 피곤을 가정에서 풀 수 있는 여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주셔서 하나님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감사제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② 찬양 -오늘 하루 동안 내가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제목이나 가사를 기록한다.

ex)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소서

③ 선포 - 강하고 담대히 소리 지르는 마음으로 기록한다.

ex)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역과 관계로 힘 빠지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회개- 하루 중, 예전에는 죄로 느껴지지 않았던 모든 사소한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무 죄를 생각해서 기록하지 말라. 그냥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면 된다.

ex) 육체의 연약함으로 짜증내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고 두려워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들이 컴퓨터를 고장 내어서 나도 모르게 화를 심하게 필요이상으로 혼내었습니다.

⑤ 중보- 월-일로 날짜를 나누어서 하루한가지 이상씩 기도제목을 정하여 기록하면서 기도한다.

ex) 월: 가정을 위해서, 화: 학교와 직장을 위하여 수: 전도대상자를 위하여

목: 선교사님을 위하여 금: 청년부를 위하여 토: 교회를 위하여

주일: 나 자신을 위하여

⑥ 결단 - 예수님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ex)예 제가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부터 기록하면 된다. 그리고 반드시 소그룹 원들과 나누어야 한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난다. 물론, 처음에는 힘들고 매번 빼먹는 일도 많겠지만, 계속적으로 이 일을 하게 되어 진다면, 수년 후에는 놀라운 자기 자신의 변화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3) 청년대학부의 성경읽기

개인성경공부의 가장 기초는 바로 성경읽기이다. 앞 장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았듯이, 청년들 50.7퍼센트, 즉 절반이상의 청년들이 성경을 한 번도 통독하지 않고 있다. 성경읽기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면서 전부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경을 설명해주는 책은 많지만 정작 성경을 읽는 사람은 너무 없다는 것이다. 성경은 읽고 선포 할 때에 능력이 나타난다.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서 율법책을 읽고 해석해 줄때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승리교회 청년부 비전에도 있지만 1년에 성경 1독을 목표로 성경을 통독하고 있

다. 무작정 읽으라고 하면 청년들은 성경을 잘 읽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하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성경 읽기 그룹을 만들었다. 팀장을 세우고 그 팀장을 중심으로 성경 읽기를 자원하는 자원자를 모집하게 했다. 한 달 정도 홍보 후에 20여명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성경통독 그룹이 시작하게 되었다. 운영방법은 매일 매주 성경읽기 범위를 정해주었다. 또한 SNS를 활용하여 매일 본인이 읽은 분량과 짧은 간증을 기록하게 했다. 그리고 매 주일 소그룹 모임 이후 교역자와 팀원들이 모여서 한주동안 읽었던 성경 중에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나 간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 팀장의 아이디어로 성경통독 오디오 파일을 활용해서 성경읽기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운영된 성경읽기 모임은 3개월이 되지 않아서 신약을 통독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모임은 소문이 나서 자원해서 또 다른 팀원들이 가입하게 되었다.

또한 사 복음서를 통독하면 큐티 책 일개월분을 무료로 제공했고, 신약을 통독하면 3개월분을 무료로 제공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했다.

두 번째 운영방법은 동계수련회와 청년 부흥집회를 활용하여 청년들 전체 성경통독 시간을 가졌다.

-운영계획안 예-

주제: 성경 속으로

장소: 초등부 예배실

기간: 5월 7일(월) - 11일(금)

시간: 오후 6시부터 저녁 10시 까지

대상: 일산승리교회 청년부

인도자: 청년 담당 교역자

방법: 각 소그룹 별로 남녀 1명 대표로 통독, 5분개요 설명, 1시간 진행, 10분 휴식

준비물: 성경책, 필기도구 등

진행한 결과 청년들 50퍼센트 정도가 참석해서 신약일독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읽고 힘들어했지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읽을 때는 많은 청년들이 눈시울을 붉히면서 감동받는 일들이 일어났다. 1년에 한차례 공식적으로 성

경통독 시간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큐티 예배일기 성경읽기 및 개인 성경공부에는 한계가 있다. 요즘 세대 청년들은 시간이 없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공부를 할 만큼 열정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대안으로서는 개인 큐티(성경공부)와 소그룹 성경공부 와 설교를 하나의 본문으로 해서 개인 성경공부를 하는 것이다. 또한 지도자가 정기적으로 성경 본문을 선택해서 암송하게 하면서 제시한 본문을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야기 성경책을 통해서 내용을 먼저 이해한 후 성경본문을 연구하는 방법도 있다. 이 부분은 ‘라’ 부분에서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다.

다. 대그룹 사역의 발전

(1) 기도예 승리하라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에 자랑할 수 있는 신앙 유산 중 하나가 기도이다. 기도 중에서 한국 성도들이 모이면 주로 하는 것이 통성기도이다. 한이 많아서 그런지 고난이 많아서 그런지 한국 성도들은 참 열심히 기도한다. 그리고 일단 기도하면 참 애절하게 기도한다. 애절하다 못해 울부짖어 기도한다. 그 어느 나라 성도들도 한국성도들처럼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는 것 같다.⁸⁵⁾

간혹 부르짖는 기도예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듣기도 한다. 먼저는 ‘꼭 기도를 외적으로 소리 내어 기도해야 하는가?’이다. 하나님이 귀 먹은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느냐는 것이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직 신앙이 성숙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둘째는 기도의 내용 면에서 부정적인 견해이다. 날마다 그렇게 부르짖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도 가운데 사권의 기도, 감사의 기도도 있어야 하는데 청년들은 너무 요란하게 부르짖으려고만 한다는 것이다.

기도는 청년사역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요소이다. 기도가 청년사역을 능력 있게 한다. 기도는 청년사역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뚫고 평지를 만들어낸다. 한국교회의 많은 청년들은 어떻게 기도할까? 청년들이 모인 집회나 예배에는 뜨거운 통성기도가 주를 이룬다. 어느 교회나 소속 청년부에 가보면 그 가운데 뜨겁게

85) 양형주, 키워드로 풀어나가는 청년사역, 134

기도하는 무리가 있다. 본 교회의 청년들도 그렇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더해 갈수록 청년들은 더 뜨겁게 기도한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다. 때로는 기도할 때 부르짖는 소리가 너무 커서 거슬리게 들릴 때도 있을 정도다. 무슨 내용을 기도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부르짖고 애타게 갈망하며 기도한다.

청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 무엇을 위하여 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단순히 억눌린 마음을 풀기 위해 기도하는 것인지? 분위기에 이끌려서 기도하는 것인지? 그러나 청년부에서의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중에서 중보기도는 더더욱 중요하다.

미국의 위대한 선교 동원가였던 존 R. 모토(John R. Mott)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능력임을 깨달은 사람 중의 하나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추수하라는 명령(마 9:38)⁸⁶⁾ 상기시키면서, “우리 보다 추수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우리가 기도로 그분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⁸⁷⁾이라고 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활동뿐만 아니라 기도를 요구하신다.

일산승리교회에 부임했을 때는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중보하는 중보기도 모임이 없었다. 일산이라는 특징이 있기에 청년들이 주중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많이 힘든 현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청년들은 어른들이 모이는 금요기도회에 모여서 청년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였다. 그 청년들을 중심으로 매주 금요일 7시에서 9시까지 청년부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을 가졌다. 처음에는 소수의 청년들이 모였지만 3년이 지난 지금은 50여명 이상이 매주 금요일이면 함께 모여서 청년부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임으로 바뀌게 되었다.⁸⁸⁾

86)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개역개정판 성경).

87) 존 R. 모트(1865-1955)는 열심 있는 미국 감리교 가정에서 태어나 무디(D. L. Moody) 부흥사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그는 평신도로서 20세기 상반기 동안 에큐메니칼 운동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그는 1915-1928년까지 기독교청년 연려회(YMCA: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의 총무로 있었으며, 1910년 세계선교대회를 대부분 주재 진행하였다. 또한 1948년 W.C.C. 창립 총회시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었다. 그는 전 세계를 순회하며 기독교청년연려회와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C)를 조직하는 일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이었다.

88) 일산 승리교회 기도합주회 콘티 샘플은 부록 3을 참조

금요기도 모임을 통해서 기도 할 때에 몇 가지 열매들이 있었다. 첫째는 공동체의 체질이 변화되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열망이 더욱 커지게 되었고, 주일 청년 예배를 더욱 깊은 임재가 있는 예배로 축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둘째는 잠재적 리더가 드러나게 되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나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기대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기에, 기도모임에 참석하면서 기도하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을 갖게 되었다. 곧 이들이 차기 리더의 자질을 발견하게 되었다.

(2) 예배에 승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적으로 청년들에게 선포되고 청년들이 공동체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대그룹 사역을 통해서 가능하다. 대그룹 사역은 청년부 주일예배와 청년부 하계, 동계 수련회, 국내외 단기선교, 말씀집회, 특별 새벽기도회, 전도축제, 청년부 토요모임, 금요집회 등이 있다.

승리교회 청년부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가 되면 교역자와 임원, 예배담당자 찬양팀이 모여서 한 시간 동안 내일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주일예배 기획모임을 가진다. 그리고 리더 모임을 2시간 정도 가지고, 리더모임이 끝나면 예배 찬양팀과 함께 주일예배 리허설을 하고 있다. 주일예배를 드리기 한 시간 전에는 셀장 예배팀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일예배에 대하여 한번 더 확인을 하고 합심기도와 함께 예배 준비에 들어간다.

승리교회 청년부 예배는 매주 오후 1시 30분 130여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30분 동안 전심을 다해서 찬양을 드린다. 승리 청년부가 활성화가 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전문적인 찬양전도사가 있어 뜨겁게 찬양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리고 큐티를 중심으로 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 후 뜨겁게 회개하고 중보 기도를 드리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예배에 목숨을 건 청년부이다. 특히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예배에 불필요한 형식을 가감하게 정리하였다. 특히 주보를 단순하고 보기 편하게 만들었다. 또한 광고를 설교 후에서 설교 전으로 순서를 바꾸었다. 설교 후에 광고를 하는 장점이 있지만 설교를 듣고 난후 받은 은혜를 광고시간에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설교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설교 전으로 바꾸었다. 그 결과 청년들이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고 설교 후 바로 소그룹으로

이동해서 설교의 감동을 더 나누게 되었다. 특히 승리교회 청년부 예배는 분기별로 열린 예배 형식으로 예배를(전도축제) 드린다. 여기에서는 성찬식과 함께 드리는 청년부 예배에 대해서 나누고자 한다.

(가) 성찬식과 함께 드리는 청년부 예배 현장

아래의 예배는 분기별로 드리는 성찬식과 함께 드리는 청년부 예배 순서이다. 말씀을 강조하면서 현대인들의 정서를 고려해서 찬양시간을 많이 두고 있는 형태이다.

(1) 예배 시간

예배 시간은 80분(1시간20분)정도이다. 예배시간에는 제한이 없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들로 인해서 제약이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제약이 없다. 1시간이라는 시간에 대부분 매여 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했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시간 보낼 때 가 많다.

예배는 철저하게 예배 큐시트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예배는 반드시 리허설을 통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한다. 예배 리허설은 토요일 오후 1시에 시작을 한다. 이때 모든 예배준비 위원들이 참석을 한다. 기도하고 실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진행을 한다. 음향 확인, 찬양팀 확인, 찬양대 확인, 안내 등등.

확신한다. 성령님의 강한역사는 100퍼센트, 나의 노력과 100퍼센트 성령님의 역사가 임할 때 나타난다. 예배드리기 20분 전부터 모든 예배위원들은 준비된 자리에서 준비를 한다. 잔잔한 음악과 함께 기도를 한다. 예배 중 가장 시간이 많은 부분은 바로 설교와 찬양 성찬식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간이 많다고 해서 그것만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예배는 모든 것이 중요하다.

설교는 약 30-40분, 찬양 15-20분, 성찬식은 10분 정도이다. 철저하게 큐시트를 준비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다.

(2) 청년 예배 순서 및 설명

주일 청년 예배이며 성만찬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자 한다. 이 예배의 특징은 다음 순서로 넘어 갈 때에 자연스럽게 넘어간다.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예배에 고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순서 전환시 3초를 공백을 두지 말아야 한다. 강대상에는 찬양대원들이 백 코러스로 뒤쪽에 서고 찬양팀과 인도하는 목사님이 예배 인도를 한다.

예배시간이 되면 오르간이 연주를 한다.

예배시간이 다 되었다는 의미로 미리 준비 할 수 있다.

*개회의 선언 및 예배의 부름 - 담당 목사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모두 함께 일어서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입례 찬송 - 찬양대

“하늘의 문을 여소서 후렴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경배와 찬양 - 담당 교역자와 경배와 찬양 팀

입례 찬송과 함께 자연스럽게 경배와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한다. 이때 찬양대는 그 자리에 서서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인도한다. 찬양인도자는 멘트를 하지 않고 찬양으로 예배를 인도한다.

찬양팀은 매주 금요일 저녁 금요 기도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한다. 만약 기도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찬양팀원들은 주일예배 찬양인도에 서지 않고 회중의 자리에서 찬양을 한다. 뿐만 아니라 찬양팀원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30분까지 주일 예배 찬양인도 연습을 한다. 동일하게 3시부터 4시까지 찬양팀원들과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모임을 하고 30분간 한 주간 드린 큐티 나눔을 하고 2시간정도 찬양 연습을 하는데 찬양연습이라기 보다는 연습도 예배처럼 이라는 찬양철학에 맞추어서 주일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찬양 연습을 한다.

그래서 찬양팀은 무엇보다도 철저한 기도로 준비된 영성과 훈련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토요일 찬양팀원들만을 위한 기도모임 때는 한주간 찬양팀원들의 생활과 생각들을 돌이켜 보면서 거룩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회개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진다.

왜냐하면 찬양팀원들은 거룩함을 무기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 상황이 허락이 되어 지면 찬양인도는 교역자가 인도를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회중들과 동일한 청년이 인도를 하면 회중들이 잘 따라하지 않고 찬양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나이가 어린 청년이 찬양 인도를 하면 나이가 많은 청년들이나 그 청년의 사생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회중들이 반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찬양인도는 교역자의 인도로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되면 찬양실력에 상관없이, 인도의 권위가 서게 된다.

만약 그러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교역자가 직접 찬양인도를 하지 않더라도 찬양인도자 옆자리에 같이 서서 찬양을 드린다면 회중들이 드리는 찬양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찬양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인도 예)

-하늘의 문을 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의 영광 나타 나셨네

다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곡은 복음성가와 찬송가를 골고루 배분해서 선곡을 한다. 그래야만 청년들이 함께 따라 부를 수가 있다.

*대표기도 - 000 형제, 자매

주일 대표기도는 반드시 쓰게 한다. 왜냐하면 기도를 쓰게 되면 더 많은 준비를 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영상으로 기도를 보여준다.

왜냐하면 기도는 꼭 눈을 감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구도자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시도해볼만 하다.

*찬양대 기도송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찬양대 찬양

대부분 교회의 특징이 성도들과 찬양대원들의 교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찬양대 찬양 전에 찬양대 지휘자가 인도하는 성도들 간의 교제 시간을 짧게 가진다. 예) 찬양대 찬양 전에 “축복의 통로”찬양을 부르면서 지휘자가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면 옆 성도들과 인사를 먼저 나누고 두 손을 내밀어 찬양대원들과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서로 찬양을 부른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바로 이어서 찬양대 지휘자가 찬양대 찬양을 지휘한다.

이때 찬양은 모든 회중들에게 익숙한 곡을 편곡해서 찬양을 드린다. 예) 찬송가를 선곡했다면 3절까지는 찬양대가 부르고 4절에는 지휘자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4절 찬양을 함께 하자고 인도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도들도 함께 찬양을 드리게 된다. 그러면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다.

*성도의 교제 및 새 가족 환영 - 담당 목사

“평화 하나님의 평화” 찬양을 드리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교제하며 새 가족을 환영한다. 새 가족들은 그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면 미리 준비된 꽃을 받고 예배 후 지정된 장소에서 담당목사를 만나고 교육을 위한 안내를 받는다.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의 가장 큰 부담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일어난 분들과 앉아 있는 분들의 교회 출석률은 확연히 다르다. 부끄러워도 일어나게 해야 한다. 한번 일어나게 하면 성도가 될 수 있다. 물론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성경봉독 - 담당 청년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성도들과 예배 인도자가 한 목소리로 교독한다. 또한 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게 하는 이유는 서로 한 마음이 되기를 소원함으로 함께 읽는다. 한 마음이 되는 예배 문화, 예배시간에 서로를 배려하여 각자 조금 빠르게 하거나 조금 느리게 읽는 훈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성만찬⁸⁹⁾ - 담당 목사

성찬선언: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임재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고백과 함께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소원합니다. 다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

89) 총회예식서수정위원회, 표준 예식서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116-124

겠습니다.

-사도신경

-성찬찬양 -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이때 성찬위원들이 나와서 미리 준비하고 떡을 나누어 준다. 성도들은 떡을 먹지 않고 가지고 찬양을 드린다.

-성찬을 위한 말씀과 기도1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며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해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몸입니다. 떼어서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만 참여할수 있습니다.

- 성찬 찬양2 -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때에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성찬위원들은 미리 준비된 잔을 나눈다)

-성찬을 위한 말씀과 기도2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함께 잔을 참여하겠습니다.

-성찬 결단 찬양3 - 나 무엇과도 주님을

*광고 - 담당목사

설교 후에 은혜 받은 마음 그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광고를 설교 앞쪽으로 배치한다. 그리고 광고는 담당목사님이 해야 한다. 왜냐하면 청년부 총무나 청년들이 하면 다른 분들이 하면 광고의 효과가 많이 있지 않다. 중요한 내용은 담당 목사가 구두로 광고를 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영상이나 주보를 활용해서 보도록 한다.

*설교

설교는 큐티식 설교를 한다. 다시 말하면 큐티식 강해설교를 한다. 설교를 행복하게 듣게 하기 위해서는 입 이 움직이게 해야 한다. 성도들이 먼저 입을 열어 찬양함으로 기쁨이 충만해지면 그 심령에 말씀이 떨어지면 은혜 받게 된다. 그래서 찬양을 충분히 드려야 한다. 반드시 설교시간에 봉독하는 성경은 한 목소리로 읽게 한다.

성도들과 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이다. 성경을 읽을 때는 ‘시작’ 하고 회중들과 함께 읽는다. 설교는 강해설교를 하되 쉬운 설교 이해 중심의 설교를 해야 한다.

설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나야 한다. 눈물 있는 감동이 있어야 한다. 설교는 설교자 본인에게 하는 메시지여야 한다. 그리고 설교 후 마무리 기도는 설교의 핵심만 가지고 매우 짧게 한다. 설교 마무리 기도는 짧을수록 감동적이다. 그럴 때 그날 설교 말씀이 가슴에 더 남는다.⁹⁰⁾

*합심기도

설교에서 받은 도전을 가지고 5분 정도 통성으로 혹은 침묵으로 기도를 한다.

이때 설교 때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고, 죄를 회개 할 수도 있고, 새롭게 결단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설교를 끝나자 말자 설교자의 기도로만 끝난다. 그러면 무언가 모르게 2퍼센트 부족한 것 같다. 함께 기도함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목회기도

청년들을 위탁받아 섬기고 살피는 책임을 가진 목양자로서 청년들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죄와 허물의 용서를 구함은 물론 치유와 해방을 간구하는 것 까지 구하는 기도이다. 목회기도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 목회기도를 합심기도 후에 드리면 자연스럽게 해결 할 수 있다.

*봉헌 찬양을 드리면서 봉헌 - 담당 목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봉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온 맘 다해”

미리 준비된 헌금을 가지고 헌금 위원이 앞으로 나온다.

단순히 예물을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앞에 성도들이 드리는 응답적 행위이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린다.

*축도 - 담당 목사

축도는 예배의 마무리지만 사실 성도들을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고 세상으로 파송하는 선언이다. 그러므로 담당 목사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대하게 선언하고 성도들은 믿음으로 받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90) 하용조,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서울: 두란노, 2007), 215-235

*폐회송 - 찬양대 및 경배와 찬양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축도 후 자연스럽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을 드림으로 한 주간 승리를 다짐함으로 떠나게 한다.

균형이 잡힌 예배는 철저한 준비와 주의 깊은 인도 하에 이루어는 예배이며, 신학적, 역사적 구조를 포용하는 예배이며, 창의력과 에너지, 열정, 영감, 송축, 탁월함을 표현할 수 있는 예배이어야 한다.⁹¹⁾

A. W. 토저는 “예배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 곧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보느냐 작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 교회가 앓고 있는 가장 무서운 질병이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⁹²⁾라고 말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실 것이다.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예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청년부 주일 예배의 Cue-Sheet 예는 부록 2에 수록되어 있다.

라. 소그룹 사역의 발전

(1) 소그룹 큐티 나눔(Group Qt sharing, 이하 GQS)⁹³⁾

소그룹에서 주 1회 정도 큐티 나눔을 중심으로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개인의 큐티를 생활화하고 소그룹 활동을 역동적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오랫동안 GBS를 잘 해 온 사람 중에도 큐티가 생활화된 사람은 극히 드물다. GBS와 큐티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다. 큐티의 생활화를 위해서는 함께 나누는 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큐티와 GBS를 함께 붙잡는 통합적인 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GQS는 한 본문에 대한 깊이 있는 성경연구보다는 큐티 말씀을 바탕으로 관한 주제에 대한 멤버들의 생각과 경험들을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소그룹의 멤버들 대부분이 큐티를 거의 못해

91) John R. W Stott, *균형잡힌 기독교*, 정지영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1), 67

92) A. W. Tozer, *What Ever Happened to Worship?* (Cam Hill: Christian Publications, 1985), 21.

93) GQS 용어는 Young 2080에서 사용하는 소그룹 인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왔거나 주 1-2회 정도 했어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고, 리더도 이를 감안해서 진행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설령 다른 큐티 교재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함께 나누는데 무리가 없다. 이 경우 GQS를 인도하는 소그룹 리더는 오랫동안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어도 믿음에 본이 되고 주 4-5회 정도 큐티하는 어느 정도의 소그룹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가) GQS를 나눌 때 주의점

절대 큐티 한 횟수를 묻지 말아야 한다. 큐티를 몇 번 못했어도 참여하면 유익이 있음을 강조하고, 율법주의 분위기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또한 리더가 모델링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리더가 우선 교재의 흐름에 따라 은혜 받은 것을 진솔하게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큐티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 줄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눔의 분위기가 활성화되지 못할 땐 리더가 교재에 나와 있는 해설을 읽음으로써 미니 설교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런 다음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

(나) 일산승리교회 청년부 소그룹 인도 방법 가이드⁹⁴⁾

- 찬양 2곡정도 드린다.
- 인도자가 대표기도를 한다.
- 마지막 기도는 소그룹 팀원들이 돌아가면서 한다.(미리 정한다.) 모든 기도는 즉흥적으로 하지 않고 종이에 미리 써서 한다.
- 목사님의 설교가운데 은혜 받은 것이나 기억나는 것을 한 가지씩 나눈다.(긍정적으로)
- 서로 한주간의 삶을 짧게 나누도록 한다.(15분-20분) 이 때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기를 바란다. 모든 내용들은 긍정적인 말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공평한 시간을 준다. 억지로 묻지 말고 기다려 주고 혹시나 삶 나눔이 힘든 사람은 소그룹 후 개인적으로 만나서 묻거나 목사님에게 연락을 취한다. 꼭 나누어야 하는 법은 없다.
- 짧은 찬양 한곡을 다시 드리고,

94) 일산승리교회 청년부 소그룹 인도 참고

- 준비된 성경공부를 한다(GQS).
- 기도제목을 나누고 마무리를 한다.

이렇게 함께 매주일 소그룹 시간에 큐티를 하면 아직 큐티가 생활화되지 못했거나 이제 갓 큐티를 배우기 시작하는 멤버들에게는 함께 하는 큐티 실습이 아주 유익하다. 일주일에 단 한번 이라도 큐티의 맛을 보게 되면 큐티하는 깊이가 점진적으로 깊어지기 때문이다. 또 큐티를 잘하는 사람들도 주일에는 예배가 있어 큐티를 거르는 경향이 있는데, 큐티를 갓 배우는 이와 함께 큐티 실습시간을 가지면 큐티도 거르지 않게 되고 GBS를 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된다.

공동의 큐티 실습시간은 조원 모두가 큐티맨이 되고 공동체 전체를 큐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데 아주 유익하게 되고, 특히 GBS인도법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라면 GBS 대신에 큐티 실습시간을 통해 풍성한 소그룹활동과 공동체 전체가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본 교회 청년부에서도 주일 소그룹 시간에 함께 큐티 실습을 하고 난 소그룹과 실습을 하지 않고 나눔을 가지는 소그룹은 나눔과 기도에서 엄청난 차이를 느끼게 된다. 큐티 실습을 한 소그룹 원들은 기도제목이 생기고 풍성한 나눔이 있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소그룹은 매주 동일한 기도제목과 단순한 나눔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앞 장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나, 개인적으로 성경공부를 하는 사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청년전체에 50퍼센트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큐티까지 하는 사람은 10퍼센트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예배는 참석하지만 소그룹에 참석을 잘 하지 않고 있다.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공부에 대한 부담감으로 한 주동안 성경이나 기도하지 못했던 죄책감으로 교회에 오기 때문에 소그룹 참석률이 줄어들고 있다. GQS가 이 모든 해결점은 되지 않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함께 큐티 실습을 한다면 청년들에게 말씀에 대하는데 용기를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 DGM(Dynamic Group Meeting) 방식의 설교 샘플⁹⁵⁾

DGM은 큐티 소그룹 나눔과 설교를 혼합한 모임이다. 일반적으로 세미나에서나

95) DGM 용어는 Young 2080에서 대그룹 인도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특강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일방적인 설교시간이 아니라 교역자가 예배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소그룹 별로 GBS 문제를 풀면서 나눔을 하고, 중간 중간에 설교의 요소를 첨가해서 모임을 이끌어 가는 방식이다.

일산 승리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방적인 설교방식을 벗어나서 DGM 방식으로 설교와 나눔을 진행하였다. 아래 부분은 진행되어진 설교와 소그룹 내용을 하나의 예로 보여주는 것이다.

제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본문: 이사야 42:1-9

서론

성도들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진실한 성도라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겠다.

나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은 과연 어떠해야 할지 자신의 생각을 나누어 보라.

본론

첫째, 겸손하신 여호와의 종

하나님은 “내가 불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라고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소개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소개하시는 종의 정체성(Identity)이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신적 기원과 권위를 밝히는 장면이다. 메시아는 하나님이 불드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이시며, 택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분이시고, 이방에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 종의 길을 걸어가야 할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또한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드신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계실 뿐 아

니라, 우리를 바라보며 마음으로 기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방에 하나님의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신다. 2절부터는 부정어(not)를 사용해서 메시아의 성품을 강조한다. 메시아의 성품은 ‘…아니하며 … 아니하며 … 아니하며’ 로 반복적으로 표현된다(2-3절).

여호와와 종은 외치지 않는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신다.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으신다.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아니하신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정의를 시행하실 것이다.

사실, 외치고, 목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고, 상한 갈대를 꺾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는 것. 이것은 세상의 군왕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조금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돈과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와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신다. 부정어(not)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이유는 종으로서 예수님의 겸손한 자세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아니하며’ 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이 세상과 사회의 리더와 권위자들과는 다른 모습의 여호와와 종의 모습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마땅히 왕으로서 영광을 취할 자격과 능력도 있고, 힘으로 압제할 수 있는 권세도 있으나 오히려 이 땅에 연약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 분은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났으며, 변두리 시골인 나사렛에서 목수로 젊은 시절을 보내셨다. 그 분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으며, 십자가에 달리시어 죽으셨다. 권위와 기득권을 친히 포기하시고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된 우리도 이러한 겸손과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하겠다.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인격에 녹아져야만 할 것이다.

나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가장 큰 특징은 겸손과 온유이다. 당신에게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있는가?

둘째, 포기하지 않는 여호와와 종

그분은 또한, 죄하지 아니하시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실 것이다(3절). 사실, 선한 일을 하거나 공의를 세우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곤 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만나는 많은 방해 요인 때문에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행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 마음에 상처를 입고 쉽게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예수님은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결국 세상에 공의를 세우신다. 그 분은 운명하기 직전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명을 다하셨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다. 예수님의 이런 성품은 인스턴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낙심하고 바뀌버리는 경향이 있다. 때로는 이런 모습도 필요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거센 핍박이 찾아올 때에도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 애쓰는 분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나눔) 여호와와 종에게는 끝까지 사명을 다하는 인내와 충성스러운 모습이 있다. 당신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는가?

셋째, 종과 함께하시는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는 종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6절). 여호와와 종의 손을 잡고 보호하시며 그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의로 부르셨기에 끝까지 그의 손을 잡아 보호하시고 세워주신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진리가 된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의 손을 꼭 잡아 이끌어 주실 것이다. 우리를 보호하며 세워주실 것이다.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메시아는 영적 맹인 된 사람들의 눈을 열어 구원의 진리를 보게 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힌 자를 해방시켜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이러한 사명이 있다.

종을 통해 이루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성취된다(8-9절).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라고 칭하시며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자신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 분은 여호와와 종을 통해 새 일을 시작하신다. 예전에 예언한 일(바벨론을 통한 포로 생활)이 그대로 성취되었듯이 메시아를 통한 백성의 구원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에 대한 약속과 연결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다.

결론

하나님은 오늘도 소명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여호와와 종과 같은 온유와 겸손, 그리고 끈기와 순종의 성품이 내면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그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며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나눔) 당신은 오늘 다루었던 여호와와 종의 성품 중 어떠한 부분을 가장 본받고 싶은가? 당신이 여호와와 종으로 살기 위해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일주일 동안 묵상한 본문 중에서 그룹성경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게 된다면 그 말씀의 깊이는 더 해 질것이다. 그리고 개인 묵상하는 데도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서는 청년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큐티와 설교와 청년 공동체에서 매주 진행되어지고 소그룹 모임을 하나로 묶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현장을 나누었다.

마. 청년 전도의 발전

본 연구자가 일산 승리교회 2010년에 부임할 당시에 청년부 예배 출석 평균 인원이 60-70여명 정도가 모여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셀(소그룹) 모임, 및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2012년 본 연구자가 사역을 내려놓을 때쯤 매주 150여명의 청년들이 출석하여 예배와 소그룹 모임 을하고 있었으면 지금은 160여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러한 청년부의 성장배경과 원인은 청년부의 독립예배와 소그룹을 통하여 청년부 회원들의 자립심이 생겼고, 청년부를 대상으로 하는 집회 중심적인 예배, 일 년에 2차례의 전도축제, 국내와 국외 단기선교, 그리고 셀 모임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중에서도 청년부의 성장과 역동성을 가져다주고 부흥 성장케 하는 원동력은 전도축제 라고 할 수 있다.

앞부분에도 나누었지만, 일산승리교회 청년들은 일산지역의 특성상 대부분 서울이나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래서 주중에 모이고 사역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많지 않다. 본당에 출석하는 성도님들은 3000명이 넘고 있는데 청년들은 10분의 1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본 연구자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이 전도축제였다. 특히 일산승리교회 비전센터는 일산유흥가의 중심인 라페스타와 웨스턴동에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래서 매일 저녁만 되면 청년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었다.

특히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이 되면 라페스타와 웨스턴돔의 거리가 가득 차게 젊은이들이 몰려들었다. 술집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왜 교회에는 왜 몰려들지 않을까 기도하면서 고민하였다. 청년들과 의논하고 사정이 비슷한 교회를 리서치 하는 도중에 온양비전교회에서 특별한 행사를 발견하게 되었다. 바로 “성령님과 함께 하는 불금”이라는 프로그램이었다. 임원들과 리더들과 함께 온양으로 달려가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승리교회 청년부만의 전도축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다. 일명 “오늘은 좋은날”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다. 또 한 가지는 분기별로 전도축제를 기획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오늘은 좋은날 I (성령님과 함께 하는 불금)⁹⁶⁾

요즘 젊은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불금, 황토라는 말이 있다. 불금은 불타는 금요일이라는 뜻이고, 황토는 황금 같은 토요일이라는 말의 줄임말이다. 금요일은 불이 나도록 신나게 놀고 토요일은 폭 쉴 수 있기 때문에 사용되는 단어이다. 본 연구자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은 교회에 다니는 소위 신앙이 좋다는 청년들도 너무나 쉽게 불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리더모임이 끝나고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가자라고 했더니 청년들이 목사님 오늘은 불금인데 나이트에 가서 썸을 타야 하기에 시간이 없다고 했다. 솔직히 처음에는 충격이었다. 어떻게 하면 이 불타는 금요일을 불타는 기도회, 불타는 성령의 밤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거듭하다가 온양비전교회 불금 프로그램을 참고로 해서 “오늘은 좋은날”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다. 사실 오늘은 좋은날이라는 프로그램은 일산 승리교회 전도축제 프로그램 명칭이었다. 그 명칭 그대로 세상에서는 불타는 금요일이 좋은날이지만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불금이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행복하고 좋은날이기에 “오늘은 좋은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승리교회 청년부가 위치한 라페스타 거리는 금요일 오후만 되면 청년들로 넘쳐나는 거리이다. 밤이 새도록 현란한 조명 아래에서 술 마시며 취하고 새벽시간을 보내는 술 취한 거리이다. 그래서 먼저 교회 다니는 청년들만이라도 이들의 무리 속에

96) 김성권, “성령님과 함께 하는 불금.”, 교회교육, 2014년 봄호, 9-12.

들지 않게 해야겠다는 취지로 “오늘은 좋은날”이라는 1박2일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청년부의 단합과 서로간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청년회가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 “불금”의 목적이다. 또한 교회는 등록하였으나 장기적인 결석으로 인해 선뜻 다가오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관심을 갖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작은 장을 마련하고자 불금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부에 신입생으로 올라온 학생들과의 자리도 갖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고자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다.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오늘은 좋은날로 통해 세상과 구별된 청년부를 만들자.

오늘은 좋은날로 통해 단 하루라도 일산승리교회 청년부를 소개하자.

오늘은 좋은날로 통해 새 가족들과 새내기들과 화합을 이루자.

오늘은 좋은날로 통해 사 복음서를 통독하자.

<표 32>는 오늘은 좋은날 불금 교육 프로그램을 표로 만든 것이다.

<표 32> 오늘은 좋은날 불금 교육 프로그램

시간	진행내용	준비물
오후 8:00-10:00	불타는 기도회 (금요기도회 특송)	본당 금요기도회 참가 (특송 준비)
10:00-11:00	간식 타임 & 초대	치킨/피자
11:00-오전 1:00	동고동락	이불, 방석
2:00-2:30	간식	커피타임
2:30-4:00	사복음서 통독 타임 런닝맨	노트북 PPT제작, 호루라기
4:00-5:00	앞사람을 믿어(그림 맞추기) 타임 런닝맨	스케치북 4개, 사인펜(인원수대로) 호루라기
5:00-5:30	캔들파이어 회개 및 기도	촛불, 플래시 등
6:00	집에서 푹 쉬어요	

(가) 오늘은 좋은날을 위한 준비 및 진행

오늘은 좋은날(불금)을 위한 준비로 한 달 전부터 기도회를 가졌으며, 매주 주보

에 광고를 하였고, 3주전부터는 본당 주보에 광고를 하였다. 일산송리교회 특성상 본당예배에 참석하는 청년들이 많기에 주보를 활용하였고, 2주전부터는 라페스타에 현수막과 포스터를 통해서 광고를 하였고 1주전에는 식당과 술집을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행사광고와 참석을 권유하였다. 처음 시작하는 행사여서 참석여부가 미약할 줄 알았는데 1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참석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행사를 진행하면 부담을 가져서 잘 오지 않는데, 청년부 예배실이 라페스타 건물 4층에 있었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지 않고 청년들이 참석을 하였던 것이다.

행사가 진행함에 따라서 처음에 가졌던 어색함과 거리감은 어디론가 사라진 채 승부욕과 열정으로 한 겨울에 땀으로 모두가 흠뻑 젖어있었다. 특히 동고동락이라는 프로그램과 런닝맨 프로그램은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기에 충분하였다. 그리고 끊이지 않고 제공 되어지는 간식과 음료는 프로그램의 긴장감을 풀어주었다.

중간 중간 성경(사복음)읽기 순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온 청년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고 모두가 잘 참석해주었다. 특히 성경읽기는 조별로 나누어서 모두가 동참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을 하였다.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다가 지루하거나 글자가 틀리면 바로 다른 조가 이어받아서 성경을 읽어서 재미있게 진행이 된 것 같았다. 마지막 순서로 캔들 파이어 순서를 가지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복음으로 초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결과는 대만족이었다. 다음날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청년들도 있었고 서로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나) 오늘은 좋은날의 평가

놀토가 된 후 토요일 휴무의 시간 동안 젊은 세대에 맞추고자 “불타는 금요일, 오늘은 좋은날”이라는 프로그램명과 기간을 정했다. 하지만 금요기도회 이후의 너무 늦은 시간과 부담스러운 일정 속에 참여하지 못한 청년들도 많았다. 청년들이 서로 마음문을 열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진행한 게임 형식은 지루하지 않고 팀워크도 좋은 반면, 먹고 마시고 재미있던 기억만 남게 되는 것 같아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앞으로는 2-30대가 경험하지 못한 것, 결혼(배우자)에 대한 이야기, 성공에 대한 이야기 등 명사초청을 통해 진술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다. 명사초빙은 교회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재능을 가진 어른을 초빙하여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강의 형식이 아닌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토크형식이 좋다. 각자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방향도 잡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할 예정이었지만 부담스러운 재정의 문제, 일부 청년들과 성도의 부정적인 인식들은 앞으로 넘어서야 할 문제인 것 같다. 가장 아쉬웠던 것은 본 연구자가 일산 승리교회에 지속적으로 사역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 연구자가 사역할 때에는 일회적인 행사로 끝나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어느 교회에서든지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한다면 행복하고 아름다운 행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오늘은 좋은날 II

전도가 어렵다. 사실이다. 라페스타 앞을 다니면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 열이면 열 명 모두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버린다. 간혹 홍보지라도 받아주면 감사할 뿐이다. 예전 같은 노방전도는 점점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 더구나 이런 방식은 이단들이 매주 때 지어 돌며 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전도를 하러 가면 우리를 이단 단체와 같은 극성 단체나 광신자중 하나로 오해하며 도망을 간다. 그러나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교회의 존재이유가 바로 전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이기 때문이다. 어느 한 통계에 따르면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기까지 주변에서 권유하는 사람이 평균 여덟 명이라고 한다. 여덟 명의 권면을 받을 때 어느 순간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된다.⁹⁷⁾ 그래서 지금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 나도 그 여덟 명 중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겨두리라”(갈 6:9).

본 연구자가 일산승리교회에 부임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은 좋은날 II’ 전도축제였다. 다시 말하면, 예배가 전도, 전도가 예배여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부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전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런데 본 연구자가 부임한 일산 승리교회는 이미 본당에 3000여명이 넘는 성도들이 출석하고 있어서 그런지 청년부에서 전도를 강조하지 않았던 것 같다. 자연스럽게 본당에 출석하는 청년들이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이미 예배를 드린 청년들이 다시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기에는 청년부에

97) 양형주, 키워드로 풀어나가는 청년사역, 62.

배가 식상해 있었다. 물론 이미 본 연구자가 오기 전에도 다양한 청년부만의 전도를 했다. 그러나 열매를 얻기에는 부족한 면들이 있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은 바로 “예배를 통한 전도”였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것이 가장 멋진 전도라고 생각했다.

(가) 오늘을 좋은날 II(예배를 통한 전도)

본 연구자는 경배와 찬양(현ANM)에서 10년 이상 사역을 통하여 예배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았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때 수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였다. 물론 불신자들이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들에게 다가 갈 수 있는 프로그램과 게스트 등을 준비하지만 메인 프로그램은 예배라는 것이다. 가장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더 열정적으로 하고 설교시간에도 구원과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확신하기는 불신자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좋은 관람을 보러 오는 것도,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지루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정말 느끼고 만나고 싶은 것은 사람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너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나도 좀 만나주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세상은 소문에 아주 민감하다.

인터넷에 광고하지 않아도, 현수막을 걸지 않아도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의 빵이 생겼다는 사실이 진짜라면 이 소문은 광속도보다 더 빠르게 세상 사람들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퍼지게 될 것이다. 마치 배고픈 사람들은 빵집에 빵이 생겼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오는 것처럼 청년들은 예배가 예배다와 질 때에 교회로 오게 된다.⁹⁸⁾

예배를 통한 전도⁹⁹⁾는 관계전도와 대면전도를 통합한 전도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관계전도와 대면전도를 통해서 청년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청년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관계전도와 대면전도를 활용한다. 그러나 예배에서 살아있는 영적 실체에 대한 무언가를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 그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소문만 그럴듯했고 별것 없다고 도리어 적대적인 그룹이 된다는 것이다.

98) 토미 테니, 윤정석 역, *하나님 당신을 감동합니다* (서울: 두란노, 2011), 42

99) Sally Morgenthaler, *이것이 예배다*, 임하나 역 (서울: 하늘사다리, 1998), 이 책에서 빌려온 용어이다.

(나) 오늘은 좋은날 전도체험기

우리 청년대학부가 70명에서 2년 사이에 150여명으로 부흥한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예배를 통한 전도'였다. 기존 청년들이 예배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자, 자발적으로 동기가 부여되어 주변의 아는 친구들을 데려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열정은 SNS를 통해서 수많은 친구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마치 좋은 음식점에서 맛있는 요리를 먹고 나서 친구를 데려오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이 손을 잡고 교회로 데리고 왔다. 한 청년은 예수를 믿은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예배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후 1년 안에 25명이 넘는 청년을 전도했고, 전도축제가 있는 날에는 30여명이 넘는 청년들을 데리고 온 적도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청년은 캠퍼스에 자칭 타칭 전도자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있다. 그리고 주일날이 되면 교사들의 차를 동원해서 청년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고 있다.

(다) 오늘은 좋은날 프로그램 소개

오늘은 좋은날 전도축제 프로그램은 연 4차례 분기별로 진행이 된다. 3월(대학교 입학시즌에 맞추어서 진행) 6월(여름 방학이 끝나는 지점에 진행) 9월(방학이 끝나고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면서 진행) 12월(크리스마스와 송년을 맞이하여 진행) 일정은 이틀 일정으로 진행된다. 토요일 '오늘은 좋은날' 초대일, 주일 오늘은 좋은날 '결신일'로 해서 진행이 된다. 토요일은 게스트를 초대해서 불신자 위주의 열린 예배를 드리고 주일은 토요일에 초대된 인원들을 재 초청해서 청년부 예배를 함께 드리는 시간을 가진다. 아래의 내용은 교회 성도님에게 소개하는 전단지 내용이다.

- '오늘은 좋은날(Today is good day)' 전도축제 소개 -

승리교회 청년부에서 "오늘은 좋은날"이라는 주제로 문화축제(전도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제목

2012년 6월 30일(토) 오후 6시-9시 : "이선영"과 함께 하는 토크 콘서트

2012년 7월 1일(주) 오후 1시 30분-4시 : 청년부 전도 축제

* 장소: 비전센터 4층 비전홀

* 목적

첫째, 승리교회 30주년을 맞이하여 승리교회가 일산지역 청년문화를 선도함
둘째, 친구, 동료, 선·후배를 전도함으로 잃어버린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책임
있는 돌봄과 정착을 통해 청년공동체의 부흥을 이룸.

셋째, 청년 공동체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 확장의 전기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림.

* 주제: 오늘은 좋은날(Today is good Day)

* 주요 프로그램

30일(토) - 내모섬 찬양, 이선영 아나운서 간증, 챔버 공연, 결단(열린예배형식)

1일(주) - 내모섬 찬양, 말씀, 교제, 뮤지컬, 워십, 다과 등(기존예배형식)

* 전도 축제 준비 청년 부흥회 및 새벽기도회

청년 부흥회: 6월 15일(금), 22일(금), 29일(금) 오후7시 본당

청년부와 온 교인들이 참석해서 전도축제와 단기선교를 위한 기도

새벽기도회: 6월 25일(월) - 29일(금)

오늘은 좋은날은 행사 40일 선포주일을 시작으로 준비를 시작한다. 각 분과별 준비조직이 있는데, 분과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획 및 예배분과는 행사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준비일정을 계획한다. 각 팀별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협력하기 위한 리더들의 회의를 준비 및 진행 한다. 각 프로그램과 행사기획 및 팀의 업무를 지원 한다. 행사 준비팀 들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 한다. 당일행사를 위한 강사 및 게스트들을 섭외한다.

둘째, 전도분과는 행사 2달 전 부터 전도대상자를 매주 작성 보고한다. 행사 3주 전 부터 당일에 참석하게 될 실제 참석자들에 한해 전도대상 예상자를 작성하도록 한다. SNS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전도대상자를 작성한 청년들에게 매주 격려 및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다. 40일 선포주일 이후 전도 선물 및 행사 당일 선물준비

셋째, 홍보 및 인쇄분과는 홍보영상과 초대장 등을 제작한다. 40일 선포주일부터 시작하여 매주 주보를 전도축제 주보로 제작하고 예배 때마다 영상을 제작 방영한다. 행사 3주전부터 포스터, 배너, 현수막을 통해 교회 내외로 홍보한다.

넷째, 새 가족 등록 분과는 40일 선포주일부터 매주 전도대상자 작성서를 제작하여 배부 및 점검한다. 매주 작성서를 받아서 FIVE 전도 운동을 통하여 전도할수 있도록 동기부여 하고 매주 소그룹 모임 리더를 통하여 전도대상자를 확인한다. 행사를 마친 후 정착에 관련된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기획 준비한다.

다섯째, 디자인 데코팀 및 지원팀은 포스트, 영상, 결신카드 등의 실제적인 디자인을 홍보팀과 연합하여 제작한다. ‘오늘은 좋은날’에 관련 이미지와 로고 등 모든 제작물이 통일성이 있도록 데코한다. 당일 예배당 장식 및 간식을 준비한다.

* 40일 선포주일

오늘은 좋은날 전도축제 40일 전 주부터 전도축제를 준비하기 위하여 전도축제 준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모든 청년들에게 알리는 행사를 진행한다.¹⁰⁰⁾

* Five 전도운동

파이브 생명 운동의 핵심 - 매일 기도, 방문(관계), 섬김

<표 33> 구체적인 전도방법¹⁰¹⁾

무릎으로 기도하는 전도	발로 찾아가는 전도	손으로 섬기는 전도	마음을 이어주는 전도	입술로 전하는 전도
매일 중보기도	다섯 번 만남	선물, 식사대접	사랑의 마음으로 관계맺음	교회자랑, 전도지·초청 장 전달
방문		편지	전화	초청
지속성 전술		개별화 전술		'인간화 전술

어떤 식으로 전도해야 할지 모르는 청년들이 파이브 전도수첩을 통하여 전도하는 방법을 알게 되어서 보다 손쉽게 전도하게 되었다. 매주 소그룹에서 점검해서 새 가족 분과에 보고를 하고 새 가족 분과에서는 교역자와 기획팀 전도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전도를 하게 된다. 실제로 많은 열매들이 있게 되었다.

아래의 내용은 오늘은 좋은날 토요일 6월30일 초대의 날 당일 진행 프로그램내

100) 40일 선포주일 4부예배 Cue-Sheet는 부록 4에 수록되어 있음

101) 주안장로교회 파이브 생명 운동 참고

용 소개이다. 제목은 ‘이선영과 함께 하는 오늘은 좋은날’이다.

- ‘이선영과 함께 하는 오늘은 좋은날 초대의 날’ -

토요일 오후 7시-10시 진행

<표 34> 오늘은 좋은날 토요일 행사 진행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시간	담당	비고
환영의 날	환영 및 찬양	20분	찬양팀 및 진행자	위트있는 환영과 뜨거운 찬양
	연주	10분	오르간 및 트럼펫	경건함과 웅장함
	선 강의	90분	소개 및 강의	
	질의응답	10분	진행자 선	미리 준비된 질문
	결단과 축도	10분	청년부 담당 목사	준비된 결단지 사용
	축복	2분	청년부 담당 목사	
	내일 예배 광고 및 초대장 배부 및 선물 나눔			

토요일 환영의 날은 아나운서 이선영을 초대하여 이선영이 만난 하나님을 소개 받고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다음날 주일예배 재 초청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토요일 이선영과 함께 하는 오늘은 좋은날 행사 때 참여한 인원은 200여명 참여하여 은혜롭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표 35>는 오늘은 좋은날 결신의 날 7월1일 주일 예배 프로그램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주일 결단의 날은 예배를 통한 전도에 중점을 두었다. 평소와 동일하게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찬양대가 성가를 하고 말씀 시간도 가졌다. 앞부분에도 나누었지만 가장 예배다운 예배가 가장 강력한 전도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결단의 날 재 초청된 인원은 모두 기존 청년들과 함께 200여명이 참석을 하였다. 놀라운 역사였다. 어제 환영의 날에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주위 교회에 사람들도 오게 되었는데, 결단의 날은 순수 청년들만으로 드리는 예배에 200여명의 청년들이 참

석했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들이었다.

- ‘이선영과 함께 하는 오늘은 좋은날 결신의 날’ -

주일 오후 1시30-3시 진행

<표 35> 오늘은 좋은날 주일 예배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시간	담당	비고
결단의 날	환영 및 찬양	20분	내모섬 찬양	기존예배와 동일
	위십 찬송	5분	위십팀	멈출수 없네
	찬양대 찬양	5분	찬양대	경건하게
	드라마	5분	드라마팀	주제에 맞는
	주제영상	5분	영상팀	초대영상
	말씀	25분	청년담당목사	오늘은 좋은날
	결단의 시간	5분	청년담당목사	
	축복	2분	찬양팀 목사	아주먼 옛날
	나눔 및 친교	30분	각 그룹장	기념품 및 간식제공

이들 중 40여명 이상이 결단하게 되었고 30여명 이상이 꾸준히 예배에 참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예배 후 교회에 처음 온 새 가족과 인사를 할 때 한 사람이 감격하여 “오늘 제가, 제 친구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난 것 같아요.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물론 일회적인 감동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예배에 초점을 친구에서 하나님으로 바꿀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승리교회 청년부가 60여명에서 150여명으로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단연 전도축제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1년 4월에는 ‘스마일 어게인’이라는 제목으로 전도 축제를 하여서 200여명이 참석했고 30여명이 결신하는 역사가 있었고, 12월에는 ‘바로 너야’라는 제목으로 축제를 했고, 150여명이 참석해서 20여명이 결신하였다. 또한 2012년 6월에는 ‘오늘은 좋은날’이라는 제목으로 축제를 해서 30명

이 결신하는 놀라운 결과가 있었다. 참석하고 결신한 숫자 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전도는 어렵다.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다. 부끄럽다. 이런 생각에서 나도 전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전도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 더 큰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제 3 절 일산승리교회 청년사역에 대한 평가

본 절에서는 그동안 본 연구자가 일산승리교회 청년대학부 사역을 하면서 성장과 부흥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들을 극복하고, 시도한 사역들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1. 긍정적인 평가

가. 청년대학부 수적 성장 면에서의 평가

‘하우스 다이어그램’을 통하여 얻어진 사역의 결과물이 출석 통계로 연결되어 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표 36>은 일산승리교회의 청년대학부 출석 변화 통계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36> 승리교회 청년대학부 변화 통계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인원	70명	100명	130명

3년 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진 사역의 결과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청년부 부흥과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요인들을 제거하는 데는 수년에 걸쳐 이루어진 결과이다. 이러한 청년부의 성장배경과 원인은 청년부의 독립예배와 소그룹을 통하여 청년부 회원들의 자립심이 생겼고, 청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경배와 찬양과 열린 예배 중심의 예배, 년 4차례의 전도축제, 국내 국외 아웃리치, 그리고 셀 모임의 활성화라고 볼 수 있다. 이중에서도 청년부 활성화와 역동성을 가져다주고 부흥 성장케 하는 원동력은 단연코 어느 것 하나에 치중하지 않는 하우스 다이어그램을 통한 균형

잡힌 목회가 청년부 출석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년사역의 활성화의 결과물은 비단 출석율이 높아지고, 인원이 많아지는 부흥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청년들이 삶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청년들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매년 여름과 겨울이 되면 아웃리치를 떠나게 되는데 그전까지만 해도 참석률이 10퍼센트 미만이었었는데 30퍼센트 이상이 참석하게 되었고 30퍼센트 이상이 재정으로 기도로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청년부의 성장은 교회전체의 성장을 이루어내는 기초가 되었다. 그동안 무거운 짐으로만 여겨졌던 교회학교 봉사를 이제는 자원해서 지원하는 청년들이 생기게 되었고 말씀을 사모하는 청년들이 청년예배 뿐 아니라 장년예배와 금요기도회까지 참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에도 청년대학부의 부흥과 성장은 교회성장과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100퍼센트 만족 할 수는 없지만 지난 3년 동안의 일산승리교회 청년부 사역은 매우 효과적이고 긍정적이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나. 목회 선교적 평가

첫째, 일산승리교회 청년부는 담임목사와 교회의 전폭적인 지지로 소명의식이 확고한 청년담당 목회자가 세워지면서 청년부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기틀을 감당하게 되었다. 물론 두세 가지 다른 분야에 일도 감당을 했지만 많은 시간을 청년들에게만 쏟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기에 목회자가 청년들의 영혼을 돌보기 위해 힘썼으며,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을 잘 감당하였다. 본 연구자는 지난 교역자와 달리 청년담당 목회자가 교구로 편입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에 청년들과 함께 열정을 다해서 사역할 수 있었으며, 교역자의 단기간 이동을 통해 실망하거나 상처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둘째, 일산승리교회 청년부 예배는 철저하게 기도와 리허설로 준비된 예배였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전심을 다해서 주일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토요일 오후가 되면 예배팀이 철저하게 콘티를 구성해서 예배리허설을 가졌다. 그리고 예배의 방법은 경배와 찬양과 열린예배 기존의 예배가 다양하게 접목이 되어 어떤 청년들이 와도 쉽게 예배에 집중하게 되었다. 그리고 예배는 가장 강력한 전도라는

구호를 통해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였으며, 예배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청년들이 체험하게 되어, 많은 청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되었다.

2. 개선방안

일산승리교회의 청년부 부흥과 성장의 활성화된 측면 이면에는 또한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다. 그것은 장년 출석에 비해서 청년부가 균형 있게 성장했다고 볼 수는 없다. 가장 균형 있는 청년부의 성장은 적어도 장년 출석의 10퍼센트는 출석해야 하는데, 앞의 조사에도 나와 있지만 5.1퍼센트 정도만 청년부에 출석하고 있다.

승리교회 청년예배 숫자가 성인 예배에 비해서 적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일산지역에는 교회 가까이 위치한 대학교가 많이 없다.¹⁰²⁾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중에는 서울로 지방으로 학교를 갔다가 주말이 되면 돌아오게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학교 부근의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학이 아닌 평소에 출석인원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방학 때도 동일하게 본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부근 교회에서 섬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위의 문제점과 동일하게 승리교회도 청년들 중 절반 이상이 교육부 교사로 오전시간 전체를 섬기고 있다. 그래서 청년들이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면 모두 넉 다운이 되어서 예배에 참석하기 보다는 휴식을 취하기를 원하고, 지방에 대학이 있는 학생들은 교육부 예배만 드리고 대부분 학교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승리교회 자체만의 문제는 본당과 비전 센터에서 드리는 예배시간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현재 승리교회는 저녁예배를 합쳐서 총 7부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리고 5부 예배 시간은 청년부 예배 시간과 같은 시간에 드리고 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비전센터에서 드리는 청년부 자체 예배보다는 본당에서 부담 없이 드리는 장년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이 지금 승리교회 청년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전담사역자가 청년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는 못했다. 본 연구자

102) 한국항공대학교(고양시 덕양구 위치), 동국대학교 바이오메디캠퍼스, 열린사이버대학교가 있지만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임으로 본교회 대학생들이 거의 다니지 않고 있음. 앞으로는 일산지역의 캠퍼스 선교의 교두보로 삼아야 할 필요성 있음.

도 청년담당 사역자로 청빙 받았지만 실제적으로는 4개의 부서를 맡고 있었다. 그러다가 보니 청년담당 목회자는 청년부와 동시에 전교회적인 행사에 배치하여 사역을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청년목회에 있어서 능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뿐만 아니라 청년사역자들을 바라보는 타 교역자들과 성도들의 시선들의 문제가 있었다. 대부분 청년 사역자들은 낮 시간대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할 일 없이 노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밤 시간대에도 청년들과 매일 놀고먹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다가 보니 낮 시간에는 다른 부서의 일로 시간을 보낼 때가 많다. 분명한 것은 청년사역자가 할 일이 없어서 노는 일이 있어도, 노는 것처럼 보여도 다른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 청년 사역자는 오로지 청년들만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머리와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한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교회도 그런 부분의 청년사역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청년사역자를 믿어주고 배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은 사역자가 아니라 양육자로 인식해야 한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교회 내에서 한두 개의 봉사를 하고 있다. 그러다가 보니 교회에서는 청년들을 사역하는 도구로 생각 할 때가 있다. 심지어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청년부에 올라오기도 전에 교육부나 타 부서에 교사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는 이들이 청년부를 통하여 스스로 자라고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인내하고 기다려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역자의 모습이 아니라 양육자의 모습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교육부서중에 한 부서로 취급하여 청년들의 요구가 묵살되어 상처가 생기면 안 되는 것이다. 청년들이 교회의 허리고, 미래라면 그에 합당한 배려와 기다림으로 과감하게 투자 되어야 한다.

청년사역의 성패는 결국 인내함으로 투자해야 한다. 눈물을 흘리면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처럼 청년들이 교회의 소중한 일꾼으로 자라기까지 기다려주고 투자해준다면 일산승리교회 청년대학부는 다시 한 번 부흥으로 보답하리라 믿는다.

제 6 장

결 론

제 1 절 요약

본 논문은 침체와 사역의 위기 속에 있는 청년대학부 사역을 진단하고 청년대학부의 균형 잡힌 성장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로서 청년들의 이해를 위한 기초를 중심으로 방안을 모색했으며 본 연구자가 사역했던 일산승리교회 청년대학부의 사역을 중심으로 하여, 그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고 균형 잡힌 부흥과 성장을 계속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기독교에 대한 젊은이들의 신뢰도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타종교에 심취하여 개종하는 사례들도 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 청년부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힘이 들고 어렵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공동체로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고 선포했던 것처럼 다시 한 번 교회 안에 청년들의 기도모임이 불처럼 일어나고, 큐티와 성경읽기 모임이 일어나고, 다윗처럼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예배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또한 열매가 없고 출세의 길이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이 땅의 청년들을 작은 예수로 세우기 위해 청년목회에 헌신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제 2 절 제언

지금까지 한국교회 청년부의 실상과 문제점, 그리고 이에 따른 대책과 균형잡힌

청년부 성장 방안들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회수된 응답지를 분류 분석하면서 아직도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순수하고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청년부를 사랑하며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청년부의 현재의 상황이 그리 희망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교회의 지도자들과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에 대해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청년들의 감춰진 가슴속에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과 역사,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와 무한한 열정이 엄청난 가능성으로 잠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 감사와 소망을 갖게 된 것이다.

교회와 기성세대들은 사회에 대한 청년들의 개혁정신과 더 나은 것들을 추구하기 위한 그들의 비판적 태도를 무시하거나 백안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우리 교회가 갖고 있었던 구조적 문제점들을 겸손하고 진지하게 점검해 나가야 한다. 청년의 새롭고 순수한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과 교회는 타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모순투성이이긴 하지만 털어내고 닦아내면 더욱 더 영롱하게 빛을 발할 수 있는 보석과 같은 것이다. 한국교회의 어두운 모습들을 감추고 부끄러워만 하기 보다는 청년으로 사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의 원리로 다시 한 번 갱신시켜 나가야 한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청년들은 에스겔처럼 느헤미야처럼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젊은이들로 교회의 회복과 복음의 확장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게 될 것이다.

최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의 노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 가운데서도 청년대학부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은, 청년부 침체의 원인이 단순히 청년 자신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청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지도자들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변화하는 세상구조를 따라가지 못하는 당회중심의 낡은 사고는 언제나 청년들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다. 영적 권위와 함께 열린 마음으로 청년들을 포용할 수 있는 목회자가 있는 곳에는 지금도 청년들이 몰려오고 있다.¹⁰³⁾

하나님께서도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 것을 참으로 즐거워하신다. 이제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배려, 정책적 지원들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의 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청년목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출발선이다. 청년들의 고민과 현실적인 아픔을 이해하려는

103) “의지 전략 겸비해야 부흥,” 국민일보, 2006년 2월 7일, 13.

노력 없이도 청년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아무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교회와 기성세대들은 먼저 청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야 하며, 청년부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지금 당장 투자한 만큼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더라도, 미래교회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설사 열심히 양육해 놓은 청년들이 타 교회로 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 교회의 손실이라는 생각은 좁은 생각이다. 그들은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해 놓기만 하면 그들은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들로 쓰임 받을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의 군사들로 승리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한국적 상황에서 교회의 부흥은 어떻게 해야 가능할 것인가? 대답은 바로 청년대학부의 부흥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지금 곳곳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한 청년부의 부흥을 통해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교회의 지도자들과 청년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부흥의 원년을 기대해야 한다. 예배와 교제와 봉사라는 세 수레바퀴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라는 세 축을 튼튼히 하면서 신앙의 내실과 선교의 비전을 세워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겠다.

인간의 힘으로는 성취될 수 없으되 하나님의 은총으로서는 가능한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 그 비전을 품고 기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록한 꿈을 이루어 나가는 한국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한다. 끝으로, 본 논문이 미력하나마 청년대학부의 부흥과 성장을 갈구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사역자들에게 좋은 자료로 활용되기를 소망하며 본 연구를 맺는다.

부록 1

교회 청년부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들어 많은 교회에서 대학, 청년부의 정체 및 위축 현상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족하지만 교회 청년, 대학부서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 보고자 본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한국교회 청년부의 앞날을 기대하는 심정으로 본 설문에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 10

아래의 질문을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하기거나 ()속에 알맞은 말을 써 주십시오.

1. 응답자의 성별: ① 남 ② 여
2. 응답자의 연령: ① 만 18-22세 ② 23세-26세 ③ 27세-30세 ④ 31세 이상
3. 응답자의 신급: ① 유아세례 ② 세례 ③ 학습 ④ 원입 교인
4. 언제부터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① 모태신앙 ② 초등학교 시절 ③ 중학교시절 ④ 고등학교 졸업후 ⑤기타
5. 현재까지의 신앙생활 총 연수는 얼마나 됩니까?
① 1년 이내 ② 1-3년 ③ 4-6년 ④ 7-9년 ⑤ 10년 이상
6. 처음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① 부모님의 인도 ② 친구의 권유 ③ 친척, 선생님의 권유 ④ 자발적으로
7.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통독 횟수)
① 1번 ② 2번 ③ 3번 이상 ④ 아직 한 번도 통독하지 못했음
8. 현재 여러분의 교회의 출석 성도는 얼마나 됩니까?

장년()명 청년()명

9. 본인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유익한(은혜 받는)시간은 언제입니까?

① 주일예배 ② 청년예배 ③ 개인 큐티 ④ 새벽기도회 ⑤ 기타()

10. 귀하는 교회 내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① 교사 ② 찬양대 ③ 청년회 임원 ④ 기타() ⑤ 봉사하지 않음

11. 현재 출석하는 교회 이전에 다른 교회에 다닌 적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예수 믿은 후 ()번 옮겼다.)

12. 교회를 옮기셨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친구의 권유 ② 보다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
③ 큰 교회에서 양육 받으려고 ④ 목사님의 설교 ⑤ 가족이 옮기게 되어서
⑥ 활발한 청년부 활동 때문
⑦ 상처받아서 ⑧ 기타()

13. 현재 청년부 예배나 활동에 잘 참석하고 있습니까?

① 빠짐없이 참여 ② 가끔 참여 ③ 참여 하지 않음 ④ 앞으로 참여할 예정

14. 현재 다니는 교회의 청년부는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현상유지 ② 증가 ③ 감소 ④ 모르겠다.

15. 현재 여러분의 교회 내에서 청년부의 위치와 비중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중요, 교회의 기대가 크다
② 청년이 감당하는 역할에 비해 교회의 지원이 미비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청년부에 대한 교회의 배려가 없다.

16. 청년부 집회에 참여하는 동기/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청년들과의 교제 ② 찬양, 설교 ③ 성경공부 ④ 봉사 ⑤ 기타()

17. 청년들이 청년부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① 바빠서(우선순위가 아니다) ② 청년들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빈약한 내용
③ 재미없다 ④ 다른 봉사로 피곤해서 ⑤ 교역자와 리더들에 대한 실망
⑥ 회원간의 갈등 ⑦ 기타()

18. 어떻게 하면 청년부 집회의 참여률을 높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 ① 모임 시간대를 바꾸어야 한다. ② 집회의 운영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③ 기타의견()
19. 청년부 집회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부분을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① 예배(설교) ② 성경공부 ③ 찬양 ④ 친교활동 ⑤ 봉사 ⑥ 기타()
20. 청년부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① 교역자와 청년의 좋은 인간관계 ② 소그룹활동의 강화
 ③ 교회의 적극적인 관심, 지원 ④ 임원들의 헌신 ⑤ 활발한 행사
21. 현재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① 직장문제 ② 학교문제 ③ 이성문제/결혼 ④ 신앙/교회 ⑤ 가족문제 ⑥ 건강
22. 인생/신앙문제로 고민할 때 누가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① 친구 ② 부모 ③ 교사 ④ 목회자 ⑤ 기타()
23. 교회 이외의 선교 단체에서 훈련받거나 활동에 참여해 본적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선교단체명:)
24. 현재 여러분의 교회 청년부 활동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말씀 ② 찬양 ③ 교제 ④ 선교 ⑤ 봉사 ⑥ 기타
25. 앞으로 본인의 교회 청년부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① 점점 늘어난다 ② 현상유지 ③ 점차 줄어든다 ④ 숫자와 상관없이 기대 된다.
 ⑤ 전혀 기대할 것이 없다 ⑥ 모르겠다 ⑦ 기타()
26. 가장 바람직한 청년부 교역자상을 두 가지만 골라 보세요.
 ① 설교를 잘 하는 사람 ② 성경공부를 잘 가르치는 사람 ③ 기도의 사람
 ④ 청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⑤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 ⑥ 찬양인도자
 ⑦ 좋은 상담자 ⑧ 기타()
27. 한국교회에서 시급히 개혁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골라 보세요?
 ① 교파주의 ② 개교회주의 ③ 대형교회/물량주의 ④ 기복신앙 ⑤ 사회적인 책임
 ⑥ 이기주의 ⑦ 공동체성/사랑의 상실 ⑧ 신앙과 삶의 불일치 ⑨ 기타

부록 2

일산승리교회 청년부 주일 예배 Cue-Sheet 예

■ 음향, 영상 장비	
무대 마이크1, 보조 마이크 5, 각종 악기, 편조명 1 프로젝트 2, 대형 벽면 스크린 2, 무대 스크린2	

시간	프로그램	출연자	내용	음향	영상	조명	비 고
11:00 11:03	예배 선포	찬양대 담당목사 오르간 피아노 오케스트라	개회 선언 오르간 개회선언 담당목사 입례찬양 찬양대	무대 마이크 ON	무대 스크린 1	전체 조명 ON	개회 선언 오르간 개회선언 담당목사 입례찬양 찬양대 찬양인도자 찬양대원 6명
11:03 11:30	찬양 찬양대 찬양	경배와 찬양팀 마하나임 워십 미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예수 우리왕이여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내 안에 주를 향한 나의영원하신기업 찬양대 찬양	무대 마이크 ON 보조 마이크 5개 ON	무대 스크린 1	전체 조명 ON	악기 연주자 (드럼 베이스 신디 기타 등) 찬양인도자 찬양팀원들 (마지막 찬양 후 찬양팀 퇴장 대표기도 그 후 찬양대 찬양
11:30 12:10	성찬식 말씀선 포	담당 목사	성찬식 영상 상영 설교	강대 상 마이크	무대 스크린	전체 조명 ON	도입부: ① 성찬식(10분) ② 영상 상영

				크 ON 무선 핀 마이 크	크 린 1	후 영상 off 핀 조명 ON	(설교 주제와 관련 3분) ③ 담당목사설교(27분) 설교 기도문 제시 후 통성기도 때 찬양팀 및 찬양대 자리에 선다.
12:10 12:20	헌금 & 축도 찬양	담당 목사 찬양인도 팀 찬양대	봉헌 위원 봉헌 기도 축도 파송의 노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무대 마이 크 ON	무 대 스 크 린 1	전체 조명 ON	봉헌 기도 후 바로 축도한다. 축도 후 담임목사 퇴장 찬양대 후주 와 연이어서 찬양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로 파송을 한다.

부록 3

일산 승리교회 기도합주회 콘티 샘플

1. 경배와 찬양(20분) 찬양인도자
2. 말씀(시 139:1-3)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라”-설교자
 - 1) 모든 종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 2) 손을 들고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 3) 시온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3. 개인 참회기도: 내가 기도를 게을리 함으로써, 여호와와 열심히 이루어질 나와 나의 공동체의 각성과 부흥을 막아 온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기도
4. 합심 중보기도 내용

가. 오늘 우리 기도회 위에 성령님 임하셔서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영을 우리위에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나. 예배를 위하여 중보 하겠습니다.

4부 청년부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청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청년들이 치유와 회복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다. 찬양팀(내모섬, 새 노래 찬양대) 을 위하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모든 팀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다른 어떤 청년들 보다, 기도하는 팀이 되게 하시고, 기능적으로 영적으로 준비된 팀이 되게 하소서. 찬양팀이 연주하고 노래할 때에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온 회중들이 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찬양 할 수 있는 강력한 팀이 되게 하소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라.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예배담당자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예배 순서를 담당하며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 선포자, 대표기도자, 헌금봉헌자, 성경봉독, 광고, 안내, 음향, 영상으로 섬기는 모든 청년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소서. 선생님들이 목사님과 함께 청년부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시작하는 일대일 제자양육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 소그룹 모임을 위하여

소그룹 리더들과 임원들이 목사님과 함께 청년들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치고 힘들 때 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눈물의 기도와 사랑이 있는 영적 리더십들이 다 되게 하소서.(소그룹 리더들과 각자 맡은 소그룹 원들이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바. 전도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을 한해 2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릴수 있도록 모든 청년들 위에 전도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소서. 한 사람이 5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3명이상 전도할수 있도록, 그 영혼을 위하여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할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이 전도가 되게 하소서,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 새 신자와 1년차 새내기들을 위하여

매주 마다 청년부 예배를 사모하는 새 가족 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복음자리에

서 잘 배우고 잘 적응하여 청년부의 소중한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또한 이들을 섬기는 복음자리 리더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이들의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그리고 1년차 새내기들이 청년부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기존 청년들이 사랑으로 잘 보살펴 줄 수 있게 하시고, 청년부에 잘 적응할수 있게 하소서.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 선교지에 계시는 분들과 군대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유학을 간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사역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온 가족들이 한 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일에 동력하게 하시고, 사역의 열매들이 30 60 100배 맺히게 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자. 마지막으로 특별한 기도제목과 개인 기도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으로 기도모임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4

40일 선포주일 4부 예배 Cue-Sheet

시간	내용	담당자	조명	무대자막	비고
12:00	선포주일 준비	담당자 및 기획팀			-배너 및 포스터 붙이기 -선포주일 글씨 준비 -폭죽 준비 -전도 깃발 용품 준비
1:30	예배시작	내모섬 등			
2:00	목사님 설교	목사님			
(2')	D-40 선포	목사님			-폭죽 담당자 맨 앞자리(5명정도) -내모섬 웅장한 땅파르
(3')	영상	담당자			-방송실 리허설 해보기
(5')	찬양	내모섬		찬양하세	-찬양하세 ppt 준비
(3')	구호		<div>인도자</div> <div>6월30일</div> <div>7월1일</div> <div>하나님/</div> <div>나도 꼭/</div> <div>전도 하겠습니다/</div> <div>할렐루야/</div> <div>회중</div> <div>축제의 날!</div> <div>좋은날</div> <div>하나님.</div> <div>나도 꼭/</div> <div>전도하겠습니다.</div> <div>할렐루야</div>		
(3')	중보 기도	다같이			
	파이브 전도	목사님			ppt 준비, 파이브 전도지

	운동 설명				나누어줌 (들어올 때에 후보와 함께 나누어 준다)
	전도대상자 적는 시간	조용한 음향 피아노			필기도구 준비
<p>'준비물 - 파이프 전도지, 폭죽이나 시작을 알리는 도구, 소그룹 시간에 각 소그룹별로 전도축제 깃발을 만든다.(오늘은 좋은날) 소그룹 이름과 각자의 각오를 적을 필기도구나 도화지 등등.... 후보에 전도축제 한 달 준비일정을 넣도록 한다.</p>					

참고 문헌

1. 국내서적

- 고직한. “목회자가 변화면 청년 목회가 산다.” *목회와 신학*. 2003년 6월호.
- _____.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복음과 상황*. 2005년 11월호.
- _____. *청년 사역 맨땅에 헤딩하지 말자*. 서울: 홍성사, 2003.
- 고직한, 김동호 외 4인. *청년목회자연합. 청년대학부 TNT 부흥*. 서울: 규장, 2001.
- 김명용. *열린 신학 바른 교회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 _____. “교회 갱신이 시급하다.” *복음과 상황*. 1995년 11월호.
-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12.
- 길성권. “성령님과 함께 하는 불금.” *교회교육*. 2014년 봄호.
- 김용복. *지역 교회와 선교단체*. 서울: 학원복음화협의회, 2004.
- 김정옥. *청년대학부 20-20 비전으로 재건하라*. 서울: 기독교신문사, 1999.
- 김지철. “청년에게 비전을 주는 목회.” *목회와 신학*. 1999년 2월호.
- 김철한. *청년목회 활성화 방안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 두란노 편집팀. “청년들 왜 떠나나.” *빛과 소금*. 1996년.
- 라준석 전병욱 외. “성적 유혹을 이기는 청년 사역자.” *목회와 신학*. 1998년 8월호.
- 박상진. *교회교육 현장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8.
- 박원호. *신앙 발달과 기독교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8.
- 박 철. “동맥경화증 일보 직전의 교회.” *복음과 상황*. 1995년.
- 손원영. “청년 대학부의 활로를 모색한다.” *기독교사상*. 2006년 10월호.
- 양형주. *키워드로 풀어가는 청년사역*. 서울: 홍성사, 2005.
- _____. *청년리더사역 핵심파일*. 서울: 홍성사, 2006.
- 오형국 외 13인. *성장하는 14교회 청년대학부 부흥 전략*. 서울: 기독교 신문사, 1999.
-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 유해욱 외. “대학생들의 교회관에 관한 소고.” *신학전망* (1999).
- 이상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33가지 이유*. 서울: 브니엘, 2007.

- 이용남. *장식교회 교역자 연구논문집*. 서울: 그린파스츄어, 2002.
- 이재환. *미션 파서블*. 서울: 두란노, 2003.
- 이정현. *현대목회학*. 서울: 도서출판 지민, 2013.
- 이종식. *청년학 개론*. 서울: 청림출판, 2013.
- 임종학. *청년목자 청년사역매뉴얼*. 서울: 기독교대학인회 출판부(ESP), 2014.
- 이춘재 외. *청년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88.
- 장병림. *청년심리학*. 서울: 법문사, 1969.
- 정인석. *현대 청년심리학*. 서울: 재동문화사, 1983.
- _____. *신 청년 심리학*. 서울: 대광사, 2008.
- 주승중. *다시 예배를 꿈꾸다*. 서울: 두란노, 2014.
- 총회예식서수정위원회. *표준 예식서*.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 최윤원, 최정성.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서울: 도서출판 예향, 2012.
- 최영걸, “청년이 살아야 미래가 삽니다.” *교육목회*. 2014년 가을호.
- 하용조.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서울: 두란노, 2007.
- 학원 복음화 협의회. *청년 대학부 세우기 전략세미나*. 서울: 학원복음화 협의회, 1998.
- 허혜정, 김혜수. *청년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6.
- 황규복. *준비된 선교사*.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2009.
- 황은우. *삼일교회 청년부홍보고서*. 서울: 규장문화사, 2002.

2. 번역서적

- Crain, W. C. *발달의 이론*. 서봉연 역.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6.
- Harris, Maria. *교육목회 커리큘럼*. 고용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 LeBar, Lois E. *사람에게 중점을 둔 교회교육*.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2.
- Moran, Gabriel R. *종교 교육발달*. 사미자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국, 1988.
- Morgenthaler, Sally. *이것이 예배다*. 임하나 역. 서울: 하늘사다리, 1998.
- Morris, , Charles G. *심리학입문*. 장동환 외역. 서울: 박영사, 1987.
- Nelson, C. Ellis. *신앙교육의 터전*. 박원호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 _____. *형성과 변형*. 이기문 역.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1984.
- _____. *신앙교육론*. 문창수 역. 서울: 정경사, 1994.
- _____. *회중을 형성하고 변형케 하는 회중의 능력*. 김득렬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 Schwarz, Gary. *청년기와 청년문화*. 서울: 현암사, 1975.
- Soderholm, M. E. *학생을 이해하려면*. 양은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 Stein, Steven and Howard E. Book. *감성에 열광하라*. 문희경 역. 서울: 아시아코치센터, 2007.
- Stott, John R. W. *균형잡힌 기독교*. 정지영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1.
- Sweet, Leonard. *모던시대의 교회는 가라*. 김영래 역. 서울: 좋은 씨앗, 2004.
- Taylor, Marvin J. *기독교 교육의 새 방향*. 이기문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교육부, 1984.
- Tenney, Tommy.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서울: 두란노, 2011.
- White, James F. *기독교 예배학 입문*. 정장복, 조기연 역. 서울: 예배와설교 아카데미, 2000.

3. 외국 서적

- Nelson, C. Ellis. *Their Power to Form and Transform*.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88.
- Tozer, A. W. *What Ever Happened to Worship?*. Cam Hill: Christian Publications, 1985.
- Westerhoff, John H.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Hattiesburg, PA: Morehouse Pub., 2000.

Vita of
Kwang Su Park

Present Position:

Assistant Pastor of Namsan Presbyterian Church, Daegu

Personal Data:

Birth date:	October 05, 1972
Marital status:	Married to Hyun Jin Lee with one Children, Min Park
Home Address:	314-3 Janggi-dong, Dalseo-gu, Daegu
Denomination: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Ordained:	April 19, 2006

Education:

Th. B.:	Youngnam Theological University and Seminary, Gyeongsan, 1999
M. Div.:	Youngnam Theological University and Seminary, Gyeongsan, 2003
M. A.: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Seoul, 2012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15

Personal Experience:

1/2014 to 7/2014:	Assistant Pastor of Namsan Presbyterian Church, Daegu
2010 to 2012:	Assistant Pastor of Seung Lee Presbyterian Church, Ilsan